위인 김일성동지

차 례

1. 위대한 인간 5

  1) 인류지성의 령마루에 선 위인 5

    탐구로 빛내인 한생 5

    세계를 꿰드는 비범한 안목 11

    비상한 기억력 17

    천리혜안의 예지 20

  2) 인간사랑의 최고화신 22

    열렬한 인간애 22

    무한대한 도량과 포옹력 26

    숭고한 동지애의 혁명생애 32

  3) 불굴의 정신력의 제일강자 37

    불변의 신념과 의지 37

    무비의 담력과 배짱 40

    혁명적열정과 락관 45

  4) 고결한 풍모를 지닌 위대한 평민 50

    무한히 겸허하게 산 한생 50

    한없이 소박한 생활 53

2. 주체의 태양 57

  1) 주체의 빛발을 안겨준 절세의 위인 57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 57

    주체사상으로 밝힌 운명개척의 길 63

  2) 자주의 새 력사를 펼친 위대한 수령 71

    현대정치의 생명선-자주정치의 기원 마련 71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새 력사 개척 79

3) 인민적령도의 거장 87
한생의 좌우명-이민위천 87
혁명의 주체-새 인민의 탄생 91
인민의 힘을 혁명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전환 97

3. 민족의 어버이 105
1) 민족재생의 은인 105
2)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준 민족적영웅 111
민족자주로 건국성업 실현 111
자주민족의 넋과 기풍의 확립 115
민족존엄의 위대한 수호 119
인민에게 안겨준 민족제일의 긍지와 자부심 122
3) 민족번영의 사회주의의 령도자 127
사회주의를 민족자주위업으로 전환 127
민족의 리상이 꽃핀 참다운 사회 건설 132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담보 마련 135
4) 조국통일의 구성 138
조국통일의 위대한 경륜 138
통일을 위해 바친 위대한 한생 143
위대한 생을 바쳐 열어놓은 통일의 밝은 전망 151

4. 희세의 령장 156
1) 주체의 군사사상의 창시자 156
독창적으로 창시한 주체적군사사상 156
현시대 군사문제에 준 완벽한 해답 162
2) 총대로 주체혁명을 개척한 절세의 영웅 169
3) 혁명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천하명장 175

4)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위인 181
필승불패의 혁명무력건설 181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 191
위력한 국방공업의 건설 195

5. 인류해방의 구성 200
1) 인류해방의 앞길을 밝혀준 세기의 위인 200
온 누리를 비치는 주체의 해발 200
자주시대 인류해방투쟁의 최종목표 204
현시기 인류공동의 투쟁과업 208
진보적인류에게 새겨준 단결의 전투적기치 211
2) 인류해방투쟁을 자주의 길로 이끈 정치원로 214
새로운 앙양기를 펼쳐준 민족해방운동 214
전환적국면을 열어준 새 사회건설투쟁 217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운 사회주의운동 223
반제자주의 길로 이끈 쁠럭불가담운동 227
3)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위대한 수호자 231
4)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위대한 귀감 236
정의의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성원 236
싸우는 혁명전선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지원 241
진보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 준 사심없는 지원 248

6. 영원한 수령 252
1) 주체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은 천출위인 252
2) 영원히 흐르는 대양의 력사 261

1. 위대한 인간

1) 인류지성의 령마루에 선 위인

탐구로 빛내인 한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색과 탐구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성의 탑을 높이 쌓고 그에 기초하여 수십성상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하의 진리를 환히 꿰드시고 혁명과 건설을 단 한번의 착오나 실수도 없이 백전백승에로 이끌어오신 인류지성의 대표자로 되실수 있은것은 바로 혁명실천이라는 거대한 바다속에서 남달리 비상한 사색과 탐구로 한생을 빛내여오신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은 탐구력에서 또한 특출하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사색과 탐구를 멈추시는 때가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누구보다도 아는것이 많으시고 세상천하의 리치를 환히 꿰뚫고계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언제나 천재적인 예지와 슬기로 풀어오신 비범한 지성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지성의 령마루에 우뚝 올라서실수 있은 터전은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어리신 시절부터 남달리 탐구심이 강한분이시였다. 어떤 사물현상 하나를 보시여도 그냥 스쳐보내시는 일이 없었으며 한가지 일을 대하시여도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파악하실 때까지 사색과 탐구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였다.

4 살밖에 안되시던 때에 한줌에 걷어쥐시려던 무지개의 비밀을 파고들어 그 리치를 터득하신 이야기이며 축음기의 원리를 알고싶으시여 부분품들을 죄다 뜯어보신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신 시절부터 얼마나 뛰여난 탐구력을 지니고계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학교시절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알려져있었는데 지어 어떤 때에는 교원들이 미처 대답하기가 바쁠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신비주의를 하나의 병으로 보시며 사람이 신비주의병에 걸리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머저리로 된다고 여기시였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파고들어 사색과 탐구를 계속하느라면 이 세상에 신비할것이 하나도 없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독특한 사고관점이였으며 지칠줄 모르는 탐구자세였다.

현실속에서의 진리습득은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질화하신 중요한 탐구방법이였다.

12 살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조국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산과 들, 강과 바다, 명승고적들과 학교,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을 비롯하여 많은 곳을 돌아보시면서 조국강산의 아름다움과 조선인민의 슬기와 지혜를 보시였고 민족의 유구성을 깊이 체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조선인민의 피눈물이 스며있는 산과 들, 거리와 마을은 그대로 조국의 현실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실수 있게 한 하나의 거대한 학교였다.

이 현실속의 학교에서 그이께서는 일찍부터 착취받고 억압받는 불쌍한 인민의 처지와 악독한 억압자, 략탈자들의 본성을 깨달으시였고 정의와 진리에 대한 불같은 지향을 키우시였으며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의 토대를 하나하나 쌓아나가시였다.

일찍부터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시며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자연과 사회의 진리를 터득하고 천만가지 일들과 현상들의 리치를 새겨안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몸에 완전히 배인 하나의

습관으로 되였다. 현실을 더없이 훌륭한 학교로 삼으시는 그이의 남다른 습관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후에도 실천속에서 끊임없는 탐구의 길을 이어가실수 있게 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18(1929)년 가을부터 주체 19(1930)년 5 월초까지 길림감옥에서 옥중생활을 마치신 후 첫 자욱을 떼신 행로는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길, 직업적인 혁명활동의 벅찬 현실에 용약 뛰여드는 길이였다.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실천속에 들어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감옥에서 무르익히신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높이 드신 구호였을뿐아니라 모든것의 리치에 도통하고 모든것의 진리를 파고드는 사색과 탐구의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위대한 수령님특유의 새로운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혁명실천의 절실한 문제들을 정확히 푸는것이 탐구의 목적이였다면 인민의 지향과 념원, 인민의 재능과 경험은 조선혁명을 전진시키고 세기적인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탐구의 무한한 원천이였다.

혁명실천이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지식과 탐구를 위한 거대한 활무대였다면 그이께서 더없이 훌륭한 스승으로 내세우신 선생은 다름아닌 인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정으로 인민을 자신의 둘도 없는 선생으로 여기고 한생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시였다. 그이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리념에는 인민대중은 그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비할바없이 위대한 존재라는 그이의 특이한 견해와 관점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만나시여도 언제나 인민대중을 선생으로 여기고 그들에게서 허심히 배워야 하며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고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은 인민대중이며 현실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외국의 벗들을 만나시여서도 선생은 인민대중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서 배운다고 교시하시였다.

탄생 70 돐을 맞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성스러운 한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인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극진한 보호자였고 고마운 은인이였을뿐아니라 훌륭한 선생이였다고 진정을 담아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의 마지막해의 4 월 조선을 방문한 미국 CNN TV 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박식한 선생은 인민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을 하나 사색하고 탐구하시여도 인민의 자유와 행복,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하시였으며 항상 인민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말속에서 탐구의 종자와 실머리를 찾군 하시였다.

인민을 선생으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농민들, 지식인들은 물론 로인들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인민들에게서 실로 많고많은것을 배우고 체험하시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첫 리사장이였던 야스이 가오루는 인민을 선생으로 여기고 한평생 그들에게서 배우시였기에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사상과 같은 사람중심의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백과전서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실수 있은것임을 알게 된 나의 심정을 지금 무엇이라고 다 표현할길 없다, 인민을 선생으로 내세우신 그이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서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풀어나가시면서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략과 전술,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는 사상과 리론도 내놓으시였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전문지식들도 전문가이상으로 깊이있게 터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사상과 리론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새로운 현실적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데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제시된것으로 하여 그 어떤 학술론문에도 비할수 없는 리론적심도와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관한 리론 등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들과 당, 국가, 무력,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관한 리론들은 다 그 시대성과 독창성, 백과전서적인 완벽성으로 하여 인류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혁명적인 사상과 리론들이다.

조선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농업전선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나날에 온 나라 방방곡곡의 험한 포전길에서 찬이슬, 눈비를 다 맞으시며 몸소 창조하신 조선의 농업문제해결의 불멸의 대강이다.

사실 한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다 돌보아야 하는 국가수반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일일이 다 관심하고 하나하나 지도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나 보고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현실을 직접 료해하시였고 실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순간도 멈추지 않으시였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책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들의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탐구와 문명의 력사를 개척하여왔다. 독서는 해박한 사람을 만들고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는 명인들의 말도 인간의 문명과 지적능력형성에서 독서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한 가치있는 견해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간의 생활과 투쟁에서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책의 의의와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고 열정적인 독서로 지성의 탑을 끝없이 쌓으신 뛰여난 독학가이시였다.

주체 76(1987)년 2 월 어느날 쏘련아동문학잡지사 주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생가와 주변의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 책이 준 영향이 무엇이며 어려운 시기에 책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질문을 올린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올린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자신의 사상과 신념, 의지는 하루이틀사이에 생겨난것이 아니라 오랜 투쟁과 생활과정에 이루어진것이며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책읽기를 즐겨하던 어린시절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 있어서 책은 참말로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준 훌륭한 선생이였으며 참된 인생의 첫출발을 도와준 길동무였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시절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고 한생의 독서일과를 변함없이 지켜오신 꾸준한 애독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책읽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모든 짬시간을 독서에 리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벽녘에 일어나시여서는 신문과 새로운 통신자료들을 보시였고 사업의 짬시간에는 각종 도서들과 잡지들을 보시였으며 밤시간에는 또 밤시간대로 소설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으시였다. 어떤 때에는 식사를 하시면서도 책을 보시였고 자동차를 타고 현지지도의 길을 오가시면서도 독서를 하시였다. 이렇게 체질화된 독서이기에 그이를 모시고 다니는 일군들조차도 그이께서 쉬셔야 할 시간을 잘라내여 책을 보시고 식사시간이나 차안에서 책을 보시는것을 말릴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서분야에는 한계가 따로 없었다. 그이께서는 신문과 잡지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와 관련된 책들을 가림없이 읽으시였으며 부피두터운 소설책들도 빠짐없이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과 국가, 인민을 가장 현명하게 이끌어오시면서 전략적문제로부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나가는 지성의 최고체현자로 되실수 있은 주요한 비결의 하나는 바로 책을 말없는 스승으로 여기시고 책과 함께 한생을

살아오신데 있었다.

그래서 어느 문필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책과 함께 이어오신 고심어린 탐구와 그로 하여 오르시게 된 지성의 높이를 정확히 헤아리자면 아마 인류의 키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야 할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세계를 꿰드는 비범한 안목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상을 가장 넓고 명철하게 내다보는 비범한 안목을 지니고 만사를 누구보다 환히 꿰뚫어보신분이였다.

그이께서는 인간과 그의 생활에 대한 깊은 리해와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를 비롯한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대한 남다른 조예를 지니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인 인간의 본성과 생활에 대하여 누구보다 환히 파악하고계시였으며 자연과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하여서도 특출한 안목을 지니고계시였다. 혁명실천에 대한 탐구와 독서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득하신 다방면적이면서도 깊이있는 지식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어느 분야에도 막히는것이 없는 비상한 식견을 지니신 박식가로 명성떨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만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는 박사이시였고 주위세계에 대한 백과전서적인 과학적식견을 지니고계신 박식가이신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이를 세계를 꿰드는 한없이 넓은 식견을 지니신 천재중의 천재로 높이 칭송하였다.

세계를 알자면 무엇보다도 인간을 알아야 하는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므로 세계를 파악하고 옳게 변혁해나가자면 인간에 대하여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 사람을 잘 알아야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헤아릴수없이 많은 각계층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헤아리신 인간심리의 박사이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다심하고 다감한 어머니처럼 사람들의 처지와 심정을 속속들이 알아주시고 말씀한마디를 하여도 속이 후련하게 하여주시는 수령님을 누구나 진심으로 믿고 따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수령님께서 얼마나 소탈하시고 박식하시였으면 마을로인들까지 10 대의 어리신 수령님을 김성주선생이라고 존경하며 따랐겠는가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대중의 마음을 한몸에 체현하신 인민의 태양이시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한생 그 어떤 지시나 명령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그들의 심장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대중을 이끄시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뜻깊은 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움직이는데서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능력을 지니고계시였다.

구체적인 사물현상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 사랑과 증오와 같은 감정정서적인 심리상태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감정정서를 언제 한순간도 무시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구석구석 들여다보시고 사소한 심리변화도 정확히 포착하신데 기초하여 그에 맞게 모든 사업을 능동적으로 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시하시고 헤아려보신 사람들의 감정정서에는 철부지어린이들의 동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춘남녀들의 사랑의 감정과 각이한 직종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직업적특성에 따르는 감정정서적취미, 년장자들의 감정세부를 비롯하여 인간이 체험할수 있는 모든 심리적현상들이 다 포함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들의 심정을 얼마나 잘 헤아려주시였으면 나어린 소학교어린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비밀을 귀속말로 그이께

소곤소곤 말씀올렸고 고령의 늙은이들이 무릎을 치며 제할말을 다하였다. 어린이와 이야기하실 때에는 어린이의 심정이 되여주시고 로인들과 이야기하실 때에는 로인들의 심정이 되여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시기 그이보다 나이가 10~15 살씩이나 우인 많은 혁명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따랐는데 이것은 중요하게 그이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움직이는 특출한 능력을 지니고계시였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감정정서를 파악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시기 위해 어김없이 거치신 첫 공정이였다면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포착하는것은 사람들의 마음속깊이까지 들어가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만나보신 사람들은 헤아릴수없이 많다. 국적과 경력, 나이와 직업, 출신과 사회적지위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였던것만큼 그들의 지향과 생활적인 요구 역시 천태만상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으며 어떤것을 바라고있는가, 생활상의 요구는 무엇이며 그들의 리상은 어떤것인가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의 구체적인 세부까지 관심을 돌리시고 일일이 알아보군 하시였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다. 때문에 혁명을 하려면 대중을 동원하여야 하며 대중을 움직이자면 그들의 마음부터 움직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돈이나 채찍을 휘두를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상 사람의 마음, 사상감정과의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구체적인 심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을 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첫째가는

실력으로 꼽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아이들의 심리를 속속들이 꿰들고있는 소학교교원들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보고 그에 맞게 일해야 한다고 늘 간곡하게 가르치였던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인가도 교시하신것처럼 그이께서는 소학교와 중학교시절을 거치시였기때문에 청소년학생들의 심리를 환히 꿰들고계시며 오랜 기간 군대생활을 해오시였기때문에 군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였다. 그러기에 항일무장투쟁시기 대오를 이끄시고 참외밭옆을 지나시다가 참외를 먹었으면 하는 대원들의 심정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던 그 사랑으로 인민군군인들이 집에 있을 때처럼 떡이나 국수, 풋강냉이나 참외같은것을 그리워하지 않게 떨구지 말고 보장해주라고 간곡히 이르군 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과 농장에 나가실 때마다 로동자들의 기름묻은 손도 잡아주시였고 농장원들의 흙묻은 손을 보배손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마음속 심정을 일일이 헤아려주군 하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고 간고하고 시련에 찼던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위대한 전변과 변혁에로 천만군중을 불러일으키시는 천재적인 조직동원력을 발휘하실수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박사, 정녕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민심을 천심으로 내세우시며 항상 사람의 마음부터 들여다보시고 사람들의 사상감정과의 사업으로부터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수천만 인민이 삼가 올린 전인민적인 호칭이였다.

주체 81(1992)년 2 월 인디아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느 한 도서가 발행되였다. 탄생 80 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외국의 벗들이 삼가 올린 이 도서는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인 동시에 그이께서

지니고계신 백과전서적인 사상과 리론,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식견에 대한 격찬의 뚜렷한 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사상리론을 해설하는 책들을 출판하면서 수령님의 백과전서적인 뛰여난 사상리론을 높이 칭송하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신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혁명과 건설, 인간생활과 사회생활의 다방면적인 분야에 대한 식견은 폭과 깊이를 도저히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것이였으며 과학성과 론리성에 있어서나 현실적의의에 있어서 보통의 상식을 훨씬 뛰여넘는 초인간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명철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주시지 않은것이 없다. 그래서 조선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과 학자들, 개별적인사들까지도 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한없이 넓은 식견,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금치 못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득하시고 자신의 확고한 무기로 삼으신 지식은 자연과 사회의 어느 한 분야의것만이 결코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과 인류자주화위업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방대한 지식들을 체득하기 위하여 언제나 탐구의 폭을 넓히시고 끝까지 파고드시여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의 탑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원리적인 문제들은 물론 국제정치의 복잡다단한 실태를 언제나 환하게 꿰들고계시였으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방대한 령역을 포괄하는 해박한 지식을 깊이있게 소유하고계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은 가정과 생활륜리, 풍속과 세태를 비롯하여 인간생활의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에 정통하신 생활의 박사이시였으며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의

상식적인 문제도 누구보다 많이 알고계신 천하의 제일박식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의 음악과 예술, 전통과 력사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알고계시였다. 지어 그이께서는 여러 종교들에 대하여서까지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계시였다.

주체 69(1980)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럽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고계실 때 그 나라 대통령은 그이의 자기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집에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시였는데 식탁에는 그 나라의 여러가지 특색있는 음식들과 함께 마늘도 놓여있었다. 당시까지 그 대통령은 여직 마늘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가 그 시기에 와서야 마늘의 약효성분을 알게 되였고 그에 매력을 느끼고있던터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마늘의 좋은점에 대하여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직 마늘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줄로만 지레짐작하고있었던 그는 옆에서 누가 말을 꺾을세라 열성적으로 자랑을 늘어놓았다. 자기는 마늘을 처음 먹는데 마늘을 먹으면 입안의 병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져서 좋다는 등이였다.

여유있게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늘의 원산지는 조선이다, 조선사람은 옛날부터 마늘을 심어먹고있다, 조선의 마늘이 프랑스를 통하여 유럽에 퍼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마늘을 먹고자란 사람이다, 그러니 나한테 마늘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곁에 있던 조선의 일군들도 소리내여 웃음을 터쳤고 대통령을 비롯한 그 나라의 일군들도 제김에 따라 웃었다. 하마트면 남의것이 되여버릴번한 조선민족의 자랑인 마늘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렇게 정확한 제모습을 드러낼수 있게 되였다.

지금까지 뛰여난 지혜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일정한 어느 분야에서의 특이한 슬기로 하여 력사의 사람들의 찬양을 받아왔다.

외교적수완이 높은 외교가이든지 군사적지략이 뛰여난 전략가, 문학적재능이 특이한 유능한 문필가 등 개별적분야에서 뛰여나다고 할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위인들은 어느때 어느 시기에나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은 비범한 정치적수완과 세련된 령도예술, 뛰여난 군사적지략과 과학적타산이 안받침된 경제관리운영방법 등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손색없이 해결해오신 출중한 지혜의 소유자, 지략가이시였다.

비상한 기억력

한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는 체험이나 일생 잊지 못할 사연들을 기억해두고 재현해보는것은 누구에게서나 찾아볼수 있는 보편적인 의식현상이다. 하지만 개별적인간이 머리속에 새겨넣을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정한 사실이나 사건, 자료들을 보존시켜둘수 있는 기간도 대체로 제한되여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은 사람들속에서 례사롭게 찾아보게 되는 이러한 기억의 한계나 시간에 따르는 자료의 퇴색을 전혀 모르는 특출한 기억력을 소유하신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력사에 대하여 그리고 각이한 년대기마다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과 사건들에 대하여 누구보다 상세히 새기고 먼 후날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뛰여난 기억력을 지니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억하고계신 사실들과 사건들에는 조선민족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시기까지의 천만가지 크고작은 일들은 두말할것도 없고 누구나 별치 않게 여기던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내용의 사실들과 사건들이 포함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결론해주시고 지도해주신 문제들은

물론이고 자료나 현실에 대한 료해를 통해 알게 되신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각이한 시기에 벌어졌던 가지가지의 일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잊지 않고계시였다.

장장 수십여성상의 혁명생애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적뉴대를 맺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번 만나보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빠짐없이 기억해두시고 일생토록 추억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말년에도 수천명의 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헤아릴수없이 많은 평범한 근로자들과 군인들, 외국인들뿐아니라 지어는 어리신 시절에 들으셨던 동네 순사나 지주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되외우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계시였다.

사실 력사학을 전공한 학자도 아닌데다가 나라의 정사를 돌봐야 하는 한 나라의 수반이 크고작은 사실들과 사건들, 그와 관련된 많고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에 보고 들으신것, 느끼고 체험하신 거의 모든것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깊이 새겨두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보통의 인간들의 지적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할수 없는 뛰여난 기억능력을 지니고 활용해오신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억력은 지금까지 기억시간과 기억의 정확성의 불가피한 련관에 대한 사람들의 굳어진 인식을 완전히 깨버린 특이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가장 빠른 시간안에 새기시면서도 그 정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특이한 기억능력을 지니고계시였다.

주체 73(1984)년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찌또기념쎈터에서 쎈터에 진렬되여있었던 커다란 곰가죽에 대하여 들으셨던 찌또대통령의 이야기와 사냥점수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기억하시여 수행원들과 쎈터관리원들을 깜짝 놀래우신 일이 있었다.

퍽 오래전에 피뜩 들어두셨던 수자까지도 정확히 기억하시였다가 그대로 재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억력은 말그대로 반복이나 실수를 모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기억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기억의 세계는 시간적한계가 없는 무한대한 세계였다.

사람이 두뇌속에 새겨두었다가 재현해낼수 있는 자료의 량은 한정되여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의 대상을 선택적으로 정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속에서 기억의 량과 관련하여 통용되는 일반적인 경향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출한 기억력을 지니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방대한 현실과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하고 생활해오신분이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전생애에서 맞다드신 이러한 복잡다단한 현실적문제들과 헤아릴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생생하게 새겨두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기억력은 공고성과 지속성의 면에서도 특출한것이였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서나 한때 머리속에 새겨두었던 과거의것들을 점차적으로 퇴색시켜버린다. 특히 업무량이 다양하고 복잡하거나 부단히 새로운 자료를 두뇌속에 구축해야 하는 창조형의 인간들인 경우에는 기억되여있던 낡은 자료가 새 자료에 자리를 내여주는 교체속도가 빠르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는 반세기도 퍽 넘는 오래전에 만났던 실로 헤아릴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생활세부, 복잡한 력사적사실들과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회고자료들이 수록되여있는데 그 모든것은 다 수령님의 기억에 기초한것이였다.

회고록의 구절마다에 방불하게 살아숨쉬는 사실들과 사건들,

헤아릴수없이 많은 인물들은 시대와 력사, 복잡다단한 인간세계를 총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난 기억력이 새겨넣은 력사의 증견자료들이다.

천리혜안의 예지

과학적인 예지는 위인의 등불이다. 참다운 위인은 금권이나 채찍이 아니라 탁월한 예지를 천만사람의 눈을 틔워주며 사회발전을 선도해나가는 가장 위력한 무기의 하나로 삼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천재적인 선견지명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과정에 언제나 천재적인 예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과학적인 설계를 펼치시였으며 크고작은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승산있게 풀어오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혁명령도 전기간 단 한번의 실수나 착오가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전과정에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헤아릴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직접 다루어오시였지만 거기에는 과학적인 예견과 명확한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에 의해 과학적으로 제시된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실천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틀어쥐고 풀어나가시면서도 항상 앞을 예견성있게 내다보시고 원대한 구상과 과학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모든 일을 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무리 복잡하게 제기되는 현행문제라 할지라도 모두 앞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전제가 되게 하는 원칙에서 예견성있게 풀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로를 열어나가시던 시기 조선의 조건에서는 받아들일만 한 혁명수행의 교범도 지도를 청할만한 선각자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풀어나갈수 없었다.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단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는것이 다름아닌 당시 조선혁명이였다.

이러한 주객관적요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에 기초한 혁명수행의 독자적인 길을 선택하실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정확히 내다보고 앞으로 조성되게 될 주객관적조건과 변화될 정세를 과학적으로 판단한데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오시였다.

해방후 진행된 토지개혁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락후한 농업국가였던 조선의 당시의 실정에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가장 절절한 소원은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는것이였다. 해방전 농민들은 제땅이 없어 지주들의 땅에서 등뼈가 휘고 피땀을 빨릴대로 빨렸던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시여 4 만 4 000 호의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72 만여호에 달하는 광범한 농민대중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여주는 토지개혁의 위대한 변혁을 실현해나가시였다. 그러면서도 토지개혁이 장차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과 나라의 사회주의적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현명한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조선에서의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은 아직 고전이나 그 어느 나라의 혁명경험에도 없는것으로서 복잡다단한 현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시면서도 도래할 다음단계의 혁명과업을 예견성있게 내다보시며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선견지명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은 가까운 앞날뿐아니라 먼 앞날의 일들까지도 손금보듯 환히 꿰뚫어보시고 모든

일의 전말과 과정은 물론 후과와 의의에 대하여서까지도 정확히 예측하시는 말그대로 신비스러운 예견성이고 판단력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와르샤와조약기구와 쎄브에 들지 않은것은 천만번 옳았다고 하시며 정말 우리 수령님은 선견지명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한때 수정주의자들이 조선에 저들의 경제련합체인 쎄브에 들라고 압력을 가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별적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을 억제하는 쎄브의 운명을 정확히 내다보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결히 고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써 내다보셨듯이 쎄브는 유럽에서의 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종말을 고하였지만 조선의 자립적경제는 인간의 상상을 뛰여넘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주체의 붉은기를 억세게 지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힘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과학성은 이처럼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비범한 예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조선혁명의 전과정을 줄기차게 관통하는 혁명적원칙성과 령활성, 창조성과 과학성은 바로 한가지 일을 하시여도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있을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견성있게 판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과학적인 선견지명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2) 인간사랑의 최고화신

열렬한 인간애

그가 누구이건 위대한 수령님을 뵈온 사람들은 누구나 그이의 인품에 하나와 같이 반하게 되는 리유를 그이께서 지니신 고결한

인간애와 덕망에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이것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세상에 다시없을 인간애와 하늘같은 덕망에 대한 응당한 칭송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닻을 올리시면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이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력사의 주체라는것을 힘있게 선언한 인간존중, 인간사랑의 사상이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중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관점과 투철한 립장의 정화는 인민숭배이다.

주체 25(1936)년 초겨울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천도교 도정이였던 박인진은 그이께 숭상하는 대상이 무엇인가고 심중의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하늘처럼 여기고 하늘로 섬기는 인민,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중시의 관점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여있다.

인민은 하늘,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이 독특한 관점은 인민이라는 거대한 실체의 위력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의 응결체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주장해오신 좌우명이다. 력사의 어느 갈피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숭고한 좌우명이 이민위천이라는 네글자에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시작도 끝도 인민에 대한 사랑이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일관되여 끝없이 펼쳐진것이 곧 그이의 거룩한 사색이였고 위대한 활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전과정에 초인간적인 정력을 지니시고 헤아릴수없이 많은것을 구상하고 설계하시였으며 실천하시였다. 그 중심에는 시종일관 인민에 대한 사랑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떠난 한순간의 사색이나 한가지의 실천활동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해빛같이 환하고 따뜻한 미소는 그이의 특이한 인정미의 집중적표현이였다.

만사람의 심금을 틀어잡는 밝은 웃음을 함뿍 담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은 80평생의 전생애를 일관한 태양의 모습이였다.

그이의 모습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환하신 웃음이 넘쳐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들을 만나실 때나 아이들을 만나실 때나 언제나 태양처럼 환한 웃음을 담고계시였다. 일군들을 대하실 때에도 웃으시였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과 혁신자들을 만나시여서도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나누시였다. 지어 잘못을 저질러 걱정을 끼쳐드린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몸둘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이나 사람들을 대하시여도 너그러운 웃음을 짓고 대해주시며 차근차근 잘못을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식적인 회의나 담화, 당과 국가행사의 주석단에서도 늘 만면이 환하도록 밝게 웃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사 한때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반대하여 반역의 길을 걸었어도 자기를 뉘우치는 사람들을 웃으며 대해주시였고 외국손님들을 만나시여서도 늘 웃음을 지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담화도 하군 하시였다.

하지만 언제나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애정, 혁명동지들에 대한 우정때문에 한평생 눈물도 많이 흘리신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슬프고 가슴아프시여 눈물을 흘리신 때는 사랑하는 혁명동지를 잃었을 때였다. 동지들이 잘못되였다는 비보를 받으실 때마다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마음속에 생기는 상처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서 아물지 못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전의 나날에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동지들이 먼저 떠나갈 때마다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침식을 잃으시고 비길데 없는 고통과 비애의 아픔을 체험하시면서 하염없는 눈물속에 추도사도 쓰시고 몸소 렬사들을 안장해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누구나 첫 순간에 반하게 하고 인간의 심장이라면 그 어느 심장도 다 울려주는 특유의 인정미를 체질화하신분이여서 언제나 만사람의 지지속에 사시였고 그들의 열화같은 신뢰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을 끝없이 겸허하게 사신분이시다. 자신을 인민의 아들, 인민을 위해 일하는 복무자로만 여기신분이여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칭송을 시종일관 마다하시였으며 자신을 내세워드리려는 그 어떤 시도나 행위도 허용하신적이 없으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한평생에 인민이 지어드리는 하나의 부름만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스스럼없이 받아들이신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의 《어버이》라는 부름이였다.

한 나라의 주석, 집권당의 총비서와 어버이라는 개념에는 커다란 의미상차이가 있다. 주석이나 총비서는 한 나라의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과 최고의 정치조직에서 가지게 되는 공식적인 최고직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어버이라는 말은 낳아주고 키워주는 한 가정의 부모를 뜻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인류력사를 돌이켜보아도 명망이 있다고 하는 정치가들이나 군사령관들, 위인들가운데는 자신을 인민의 어버이로 여긴 사람이 없었다. 인민대중이 어떤 위인이나 정치가에

대하여 한결같은 진정을 담아 어버이라고 호칭한적은 더구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이시기전에 한없이 인자하면서도 마음의 굳센 기둥으로 되여온 아버지이시였고 다심하고 세심한 어머니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찬이슬과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공장과 농장, 군부대를 찾으시였고 인민들과 병사들의 살림살이를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각근히 보살펴주시였다. 평생토록 인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고사는 문제를 안으시고 자신을 깡그리 태우시며 사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행복,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시며 자신을 깡그리 태우시면서도 일년에 한번밖에 없는 생신날이나 명절날들에조차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소박하고 수수하게 쇠는것을 제일로 여기시였다.

어버이란 부름은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받으며 성장한 조선인민의 심장에서 울리는 한결같은 진정의 목소리이다.

무한대한 도량과 포용력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 바다와 같이 넓은 도량과 그 끝을 헤아릴수 없는 포용력을 지니시고 만민을 품어주고 보살펴주신 참다운 인간애의 체현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바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였으며 온 겨레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고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시여도 갈라지고 흩어진 동포들을 생각하시였고 동포들에게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걱정해주군 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큰 경사를 맞이하는 시각에도 남녘땅과 해외의 동포들을 언제나 생각하시였고 새해의 첫날 아침에 하시는 신년사때마다 동포들에게 따뜻한 설인사를 보내주군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정녕 온 민족을 안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겨레의 어버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폭우가 내리거나 가물이 나도 남녘의 농민들의 농사부터 먼저 걱정해주시였고 겨울이 올 때마다 남녘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추위에 떨 남녘의 동포들에 대하여 근심하시였다.

주체 73(1984)년 8월말-9월초 남조선에서 큰물피해가 났다. 당국의 공식발표에 의하더라도 300여명이 죽고 20만 7 000여명이 리재민으로 한지에 나앉았으며 3 만 6 700 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6 만 7 000여정보의 농경지가 류실매몰된 큰 재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동포들이 겪은 자연피해가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즉시 적십자중앙위원회를 비롯하여 해당 부문들을 총발동하여 구호물자를 보내주겠다는것을 결정하게 하시였고 그 강렬한 의향을 세상에 공포하게 하시였다.

남조선괴뢰당국자들이 세계의 면전에서 할수없이 받겠다는것을 약속하고도 이러저러하게 못되게 굴었지만 위대한 어버이의 동포애에 의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쌀 5 만석(10 분도미), 천 50 만 m, 세멘트 10 만 t, 여러 종류에 많은 량의 의약품이 준비되여 분계선을 넘어갔다. 총량을 액수로 따지면 1 800 만 US$에 해당한것이였는데 《우방》으로 자처하던 나라들이 당시 명색상 주었다는 《구호금》도 각각 2 만, 10 만 US$였을뿐이였다. 당시까지 120 여년의 적십자구제력사에서 가장 많은 량으로 기록된것도 1983 년 인디아가 큰물피해를 입었을 때 스웨리예로부터 받은 75만 US$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랑의 구호물자를 실은 1 400여대의 화물차와 14척의 배가 판문점분리선을 넘고 바다의 물결을 헤가르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어버이의 동포애가 너무도 뜨거워 끝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이렇듯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분이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찾아오는 남녘의 동포들을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품에 안아주군 하시였다.

나라가 해방된 후 려운형, 홍명희, 김규식과 같은 정치인들과 김구와 같은 지난날 반공사상에 뿌리깊이 물젖어있던 완고한 민족주의자들, 김석형, 박시형, 도상록과 같은 학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남녘동포들이 위대한 어버이를 뵈옵고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와 동포애에 끌리여 인생의 방향전환을 하였다.

세계 120여개의 나라에는 수많은 조선동포들이 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해외동포 한사람한사람은 다 자신의 살붙이였다. 비록 거주지와 국적은 다를지라도 그들모두는 자신께서 꼭 품에 안아 보살피고 위해주셔야만 할 친아들딸들이였고 친혈육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종일관하게 재일동포들의 운명문제를 두고 근심하시였고 그들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주기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주체 44(1955)년 5월에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강력한 통일전선체인 총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을 결성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동포들에게 친부모의 정을 초월하는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주체 46(1957)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국가예산초안이 심의될 때였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가셔지지 않은 형편이여서 복구와 건설의 과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었으므로 나라의 재정실태가 매우 어려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한두번으로 그만둘 일이 아니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며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민족적애국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재정예산항목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였으며 현재까지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수많은 교과서와 민족악기들이 재일동포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은 세계의 곳곳에 널려사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에게도 끝없이 가닿았다.

위대한 어버이의 진정에 넘치는 동포애에 이끌리여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남조선사람들의 교회련합회 고문이던 김성락목사,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 도이췰란드의 명망높은 동포음악가 윤이상, 재미동포 녀류기자 문명자 등 각이한 직업과 정견, 국적을 가진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 겨레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세계는 국경을 모르는 무한한 인정의 세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한히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평생토록 수많은 외국의 인사들과 따뜻한 친교를 맺으시고 한없이 뜨거운 은정과 배려를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여러 나라 당과 국가의 수반급인물들뿐아니라 각이한 국적과 정견, 각이한 직무와 나이를 가진 각계각층의 136 개 나라의 7 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을 만나주시고 사업하시였다. 이들가운데는 여러 나라 당과 국가의 수반급인물로부터 시작하여 각이한 국적과 정견, 각이한 직무와 나이를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 해방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면 거의 50 년이다.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이 기간에만도

한해에 1 400 여명, 거의 매일 4 명정도의 외국인들을 만나주고 사업하신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나주신 거의 많은 외국인들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대상으로가 아니라 친근한 벗으로 대하시며 우정을 나누시고 따뜻한 인간적뉴대를 맺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인정미, 외국의 벗들과 너무도 잘 어울리시며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인간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적대관계에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있던 외국인들까지도 그이를 뵙기만 하면 단번에 매혹되여 그이의 지지자, 신뢰자, 선전자가 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두번이나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외국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그이가 어떤분이신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들에게 한번 만나뵈오면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고 언제나 따르고싶은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하고싶다고 썼다.

이딸리아에는 태양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는 격언이 있다. 대양과 대륙을 넘는 뜨거운 사랑으로 인류에게 광명을 주고 사랑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인간,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주체 81(1992)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조사업과 관련하여 일군들과 담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담화에서 남조선과 해외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오는 사람들가운데는 지난 시기 조국과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성업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믿으시고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고계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주체 75(1986)년 9 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영주를 선언하는 해외동포 최덕신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영주를 선언하는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민중을 사랑하고 민중에게 참다운 복음을 주는 민중중심, 민중위주의 철리에 바탕을 둔 위대한 정치경륜과 뛰여난 품격, 비범한 선견지명과 해박한 지성, 넓은 도량과 인자한 덕망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성인중의 성인이십니다. 한번만 만나뵈오면 먼 과거에 품었던 소망과 오늘과 래일의 념원까지 다 헤아려보시고 순간에 가슴이 확 트이고 눈앞이 환하게 앞길을 명시해주시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일성**주석은 참으로 저와 같이 반공을 하던 사람까지도 탓하지 않으시고 민족의 한 성원으로 꼭같이 포옹해주시는 자애로운분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앞에 너무도 큰 죄를 지은 그였지만 과거와 결별하고 새 출발을 시작한 그가 인생의 마무리를 깨끗이 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영주를 선언한 그에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신보사 명예사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주체 78(1989)년 3월부터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김일성**훈장과 조국통일상도 수여해주시였다.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하시였고 그의 미망인에게도 끝없는 믿음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한때의 잘못도 너그러이 백지화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 공화국영웅이나 조국통일상수상자로, 교수, 박사나 인민배우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일군으로 생의 마무리를 빛나게 결속한 사람들은 헤아릴수없이 많다.

크나큰 아량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인간적인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애의 폭이 이렇듯 한량없이 넓은것이기에 지난날 봉건시대의 왕족의 후예들도 그이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려태조 왕건의 릉을 돌아보신 소식에 접한

그의 후손들이 600 여년간이나 감추어두고있던 왕건의 옥새와 족보를 내놓고 가문의 운명과 장래를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맡긴 력사적사실은 봉건시대의 왕들과 력사적인물들의 공적까지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내세워주시는 그이의 도량과 포옹력이 얼마나 웅심깊고 뜨거운것인가를 생동한 력사적사실로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무한한 도량과 포옹력에 이끌려 재생의 길을 걷고 인생을 떳떳하고 빛나게 총화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잊지 못하여 그이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태양의 성지를 찾고 또 찾는것이다.

숭고한 동지애의 혁명생애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애는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동지적사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한생을 누구도 따를수 없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참다운 동지애로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을 선포하시던 때로부터 한생토록 정을 고이고 진정을 나누신 혁명동지들은 수천수만에 달한다. 그 한사람한사람에게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애는 다 시들어가는 인생에도 재생의 봄을 안겨주는 뜨거운 생명소였고 평생의 어느 한 순간에도 식어본적이 없는 열정적인 사랑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동지획득에 바쳐진 숭고한 생애였다. 일찌기 부모님들의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면서 남다른 혁명적동지관을 확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유의 동지관을 확고한 신조로 삼으시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불같은 사랑으로 이어진 동지획득의 길에서 한평생을 살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그 위력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으며 새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하여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전력사적단계에서 언제나 승리와 성공만을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맨 처음 받들어모신 조선혁명의 첫 세대 혁명가들은 그이의 동지애를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사랑이라고 심장으로 노래하였고 그이의 품에서 혁명을 배우며 성장한 사람들모두가 그이를 한생을 다 바쳐 따라야 할 위대한 동지로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력사상 그 어느 위인보다도 동지가 많았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결전장에서나 평화적건설의 나날에나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깨끗한 동지적의리와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사람들모두는 다 그이께서 찾아내시고 품들여 키우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오신 그이의 혁명동지들이였다.

조선로동당의 태아이며 씨앗인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의 명칭에 담겨진 뜻은 참으로 심오하다. 《건설동지사》라는 명칭에는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킴으로써 혁명의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포부와 확고한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동지획득을 위한 멀고도 험난한 길을 헤쳐오시는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숭고한 동지관을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직하신 동지에 대한 신조는 참다운 동지는 제 2 의 자기자신이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동지는 단순히 우정을 나누는 벗이나 친구를 념두에 둔것이 아니였다. 자신의 밖에 있는 다른 자기자신, 사상과 생명도 모든것도 다 자신과 꼭같은 그러한 사람이 곧 수령님의 혁명동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혁명동지는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함한 그 무엇도 아낌없이 주고받을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자기자신이였다.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것,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그날로부터 내세우신 대명제였다.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함께 하는 동지들의 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하고 굳세며 그 힘에 의거하면 못해낼 일도 무서울것도 없다는것이 바로 동지의 귀중성과 역할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일관한 견해였다.

동지획득으로 혁명의 첫발을 떼시였으며 동지를 얻은 다음에 무기를 얻으시고 당도 국가도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동지획득은 한생의 최상의 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재부로 여기신것은 황금덩이나 천만금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할수 있는 혁명동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를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재부로 여기시였다. 바로 그래서 그이께서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를 최상의 락으로 여기게 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 한사람한사람을 얻으실 때마다 희열을 느끼군 하시였다. 그 희열은 그 어떤 기쁘고 좋은 일과도 대비할수 없는 숭엄하고 장쾌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의리심을 지니시고 혁명동지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극진히 위해주시였으며 동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숭고한 의리의 최고체현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승리의 신화적인 비결을 알고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이 어떻게 신흥군사강국인 일본의 군사력을 꺼꾸러뜨릴 정도로 그렇게 강할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총화지으신 회고록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왜 강했는가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리로 뭉쳐진 집단이였기때문이라는 대답을 하군 한다고, 우리의 단결이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순수 사상의지의 공통성만으로 이루어진것이였다면 우리는 그처럼 강할수 없었을것이라고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도 일제가 현대군사과학이 쌓아올린 모든 최신성과들과 수십년에 걸치는 폭압정치와 령토팽창을 통하여 련마한 파시스트적인 억압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조선혁명을 교살하고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날뛸 때에 혁명적의리와 단결의 전략으로 항일혁명전쟁을 이끄시여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안아오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시는 전행정에 언제나 대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도덕의리를 위력한 무기로 삼아오시였다.

사랑과 의리로 대중을 대하고 대중을 발동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동지애와 도덕의리에 이끌려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그이의 가장 충실한 동지가 되였고 수령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혁명가로 성장하였다.

세상에는 령도자도 많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령도한 걸출한 위인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처럼 인민대중 한사람한사람을 자신의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며 정을 기울여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의리심으로 변함없이 이끌어주고 보살펴준 그런 령도자나 위인은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적의리는 시간의 한계를 모르는 영원한 도덕의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사들과 동지들이 살아있을 때뿐아니라 희생된 후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의리심을 지니시고 살아있던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사진마저 퇴색되여버리는 오랜 세월속에서 먼저 간 혁명동지들을

잊지 못하시여 그들과 끝없는 정을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의 의리심에 의해 평양의 대성산 주작봉마루에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반신상을 숭엄하게 앉힌 혁명렬사릉이 꾸려지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생된 옛 전우들이 보고싶으실 때마다 집무를 보시던 금수산의사당의 창문을 여시고 항일전쟁의 옛 동지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숙연히 있는 릉을 바라보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전장의 차림새그대로 영생하는 선렬들사이에는 숭고한 의리로 오가는 그리움과 진정에 넘치는 마음속의 대화가 끝없이 흘렀다.

나라가 해방되자마자 혁명가유자녀들의 학원을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파견하시여 나라의 방방곡곡과 이국에 널려져있는 동지들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선대들의 뒤를 이을 혁명가들로 키워주신분도 혁명동지들에 대한 영원히 퇴색을 모르는 숭고한 의리를 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진을 금고속에 소중히 간직하고계신 이야기며 나라의 곳곳에 투사들의 동상을 세워주시고 도시들과 기관, 단위들의 명칭에 혁명선렬들의 이름을 새겨넣게 하신 이야기, 수많은 혁명동지들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키워 어엿한 일군들로 내세워주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는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사신 숭고한 의리의 세계는 그 폭에 있어서도 한계가 따로 없는 한없이 숭고한 인간사랑의 세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없이 숭고한 의리심을 지니시고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주시며 정을 나누신 사람들가운데는 곁에서 데리고 일하신 일군들은 물론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과 철부지 어린이들이나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사람들이 다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단 한번도 어기신적이 없었다. 인민과의 관계에서 관직이 아니라 사랑과 의리를 첫자리에 놓으신분이시여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신의를

귀중히 여기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였고 그 어떤 일에서도 주저를 모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을 하시면서 알게 되시고 조그마한 방조라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들모두를 자신의 은인으로 여기시며 그들에게 인간적의리를 다하시기 위해 애쓰시였다. 그들가운데는 중국인항일혁명연고자들도 있었고 아빠나쎈꼬, 노비첸꼬 등 이전 쏘련군인들도 있었으며 지어는 몽골의 평범한 녀성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불러주시고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그들에게 해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의리로 사시였고 의리로 한생을 인민들과 동지들을 위해 깡그리 바치신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귀감이시였다.

3) 불굴의 정신력의 제일강자

불변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신념은 인민대중의 혁명사상과 정의의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일관되여있는 특출한 정신력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창시를 선언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여 여러 단계의 복잡다단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오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진리성,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확신을 굳게 간직하게 되시였다.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발전력사이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그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이며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과정이였다.

해방직후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고 나라가 매우 뒤떨어진데다가 북과 남으로 분렬된 상태에 있는 어려운 조건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며칠씩 농민들과 생활을 같이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하는것이 조선의 농촌실정에 맞겠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시였다. 이 과정에 그이께서는 남의것을 그대로 모방하는것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적관점과 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시였다.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움직일수 없는 신조로 삼으시고 한생을 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정신력을 사상정신적원천으로 하고있었기에 조선혁명은 첫걸음을 내짚던 초시기부터 여러 혁명단계를 거쳐오면서도 일관하게 인민대중의 정의의 혁명위업으로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리상이라는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은 혁명투쟁의 전과정에 단 한번도 흔들리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이러한 남다른 확신을 지니고계시기였기에 그 승리를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온갖 사대와 교조, 수정주의와의 치렬한 투쟁을 벌리시면서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헤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뿐만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정의의 길에서 탈선하여 자본주의를 복귀하던 엄혹한 그 시기에도 끄떡없이 주체의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1(1992)년 4월 12일 미국《워싱톤타임스》기자단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에도 사회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우여곡절도 있을수 있으나 인간의 사회적본성을 구현한 사회주의의 리념이 달라질수는 없다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은 더욱 발전하기마련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어길수 없는 법칙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시려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해서도 남다른 확신을 굳게 간직하고 그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자신에게 부여된 최상의 민족사적과제로 간주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이 분렬의 고통을 겪는 첫날부터 조선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정당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간직한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장장 수십년세월 나라의 통일을 위해 마음쓰시며 불멸의 로고를 바쳐 조국통일 3대헌장과 같은 조국통일의 리정표들을 마련하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도 조국통일문제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인류의 해방위업,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은 인류공동의 념원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것은 현시대의 기본흐름으로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투쟁에 일떠선다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은 빛나게 성취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안고 한평생 그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의지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철의 신념으로 다져진 불굴의 혁명적지조이며 억센 투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시기부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의 초행길을 억세게 헤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켜오신 혁명적지조는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원천을 둔 강의한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동지들과 인민들의 사랑속에서 한생을 살아오시였으며 동지적의리를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어이 조국을 독립하고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는것이야말로 인민앞에, 동지들앞에 지닌 자신의 본분이고 의리라고 간주하신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다하기 위해 혁명적절개와 불굴의 의지로 적들의 음흉하고 교활한 책동을 걸음걸음 짓부시였으며 혁명투쟁의 길에서 단 한번도 주춤거리거나 원칙을 양보한적이 없으시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은 그 어떤 뢰성에도 끄떡하지 않은

강인담대성과 죽음도 맞받아나가며 무슨 일이나 통이 크게 설계하고 끝까지 밀고나간 완강한 실천력이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 부닥친다 해도 태연자약하고 여유작작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시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시고 일단 결심하신 문제는 끝장을 볼 때까지 드팀없이 실천해나가는 완강한 기상에 천하제일담력가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위인상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담력은 그 어떤 강적의 침략과 도전,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 맞다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맞받아나가는 강인담대한 정신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이끄신 령장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가렬한 두차례의 혁명전쟁은 역경을 맞받아나가는 인간의 담력이 어떤 높이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생동하게 보여준 교과서이다.

항일혁명전쟁은 그자체가 무비의 담력으로 개시되고 조직전개된 혁명전쟁이였다. 사실 비행기와 땅크, 군함을 가진 제국주의강적과 총 몇자루를 가지고 전면대결전을 결심한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써는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구도 엄두를 낼수 없었던 바로 이 길을 단연코 선택하시고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의한 담력으로 강도 일제와의 혁명전쟁을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보천보전투에 대하여 교시하신적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를 지휘하신 가림천기슭의 사령부지휘처는 일제의 경찰관주재소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이였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외국의 인사들도 세계전쟁사에는 사령관이 전장으로부터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전투를 지휘한 례가 없었다고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무비의 담력으로 한생토록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의한 정신력은 생애의 말년까지 변함없이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의 련쇄적붕괴라는 력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에도 여러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온갖 제국주의반동들과 맞서 끝까지 정의의 혁명적립장을 굳건히 고수하실 철의 의지를 명백히 피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사업을 하나 설계하고 작전하시여도 사람들의 상상을 뛰여넘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일판을 크게 벌리시였으며 일단 설정된 목표는 끝까지 관철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서해갑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전개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보여주는 로동당시대의 많고많은 증견자들중의 하나이다.

주체 70(1981)년 10 월 당중앙위원회 제 6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4 대자연개조사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해갑문건설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당시 일부 일군들과 전문가들은 대동강하류의 와우도앞을 막을 안을 내놓고 그것도 이전 쏘련에서의 볼가-돈운하와 로므니아의 두나이강하류운하의 건설과 대비하면서 수십년이 걸려야 건설할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여가지고서는 간석지물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실무일군들이 예견한 위치보다 바다쪽으로 더 나가 20 리 날바다에 그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것도 몇십년이 아니라 몇년안에 끝낼 담대한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그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수심이 깊은데다가 간만의 차가 심한 조건에서 20 리 날바다를 막는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서해갑문을 건설하면 자기들은 베링그해협을 막겠다고 희떠운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비의 담력과 투쟁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굴의 정신력앞에서 저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조선의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은 자체의 설비와 자재, 자기의 기술로 단 5 년동안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을 훌륭히 건설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하늘도 궤지를 이 세상 제일의 배짱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 강의한 정신력의 최고체현자이시였다.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특유의 정신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말년에 영광스러운 한생을 총화하시면서 자신의 회고록에 내 일생의 총적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한생을 살아왔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나는 그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에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고 쓰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주로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을 써온것은 복잡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이 제기한 요구였다, 20 세기 세계를 뒤흔든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만일 방어나 후퇴, 우회하는 방법에만 매달렸다면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타개할수 없었을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역경을 맞받아나가 그것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혁명적전략이 천백번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가슴뜨겁게 새겨넣으시였다.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만난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사경에 처할 때마다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죽음도 맞받아나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군 하시였다.

사실 항일의 전장은 순간순간 죽음의 고비를 무수히 넘어야 하는 결전장이였다. 해방후 혁명시인 리찬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하면서 불멸의 송가에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이라고 쓴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무수한 죽음의 고비, 피어린 결전장들에서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을 한시도 늦추거나 바꾸지 않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주체 26(1937)년 봄에 소탕하에서 수천명 적들의 포위에 들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수림지대에만 신경을 도사리고있는 점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배짱을 내대고 대도로를 따라 주민지구로 대담하게 행군하게 하시여 위기를 모면하고 부대를 구원하시였다.

완강한 공격정신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28(1939)년 봄에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시던 때에도 일제가 유격대《토벌》을 위해 닦아놓고 준공검사를 기다리던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대도로행군을 강행하심으로써 적들을 혼비백산케 하시였다.

혁명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배짱있게 공격전으로 맞받아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언제나 총탄이 비발치는 최전방에 계시면서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신 사령부는 언제나 싸움터의 가장 치렬한 곳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이께서는 싸창을 틀어잡으시고 전투를 지휘하군 하시였다. 대사하치기전투때와 같이 사령부를 노리는 적들의 총구가 집중되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 한번 한몸의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으시고 최결전장에 기꺼이 나서군 하시였다. 때로는 기관총을 직접 손에 틀어쥐시고 돌격전에 뛰여드시고 때로는 대오의 맨뒤에 서시여 뒤따르는 적들에게 멸적의 총탄을 안기신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배심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강의한 정신력으로 풀어오신 유명한 배짱가이시였다. 어떤 사업이든지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정신이였으며 이러한 불가능을 모르는 든든한 배심이 있어 조선혁명은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걸어올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구에서 화약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것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불굴의 혁명정신,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의 신념과 배짱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에 강냉이농사를 대대적으로 짓는 문제를 틀어쥐고나가실 때에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그에 반신반의하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보수주의, 소극성을 짓부시고 전국적으로 강냉이농사를 짓도록 배심있게 끝까지 내미심으로써 전후 그처럼 어렵던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외관계에서도 설사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방해를 논다고 하여도 혁명에 리롭고 인민에게 리로운 일을 하면 그만이라면 든든한 배심을 지니시고 아무리 긴박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여유작작하고 배포가 유하게 한생을 살아오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혁명적열정과 락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열정으로 이어진 한평생이였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순간도 쉬임없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만난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조국번영의 터전을 가꾸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에는 휴식이라는 말조차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력의 발현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한평생 일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밤늦게까지 일을 보시고 또 새벽에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시여 사업을 시작하시는것을 좀

삼가하여달라고 간청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몸에 배인 습관이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항일무장시기 적들이 꼭 이른새벽에 습격해오군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의 운명이 걱정되시여 마음놓고 쉴수 없으시였는데 그때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것이 그이의 굳어진 습관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되면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해방이 되니 또 얼마나 벅찬 일이 기다리고있는지 산에 있을 때처럼 또 새벽이면 잠이 오지 않더라고 하시며 그래서 또 걱정해주는 동무들에게 건당, 건국, 건군이 일단락되면 마음놓고 자보자고 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 일고 전쟁이 끝나자 복구건설이 시작되고 이어 천리마대진군이 시작되였다, 그런데 남보다 뒤떨어진 처지에 잠을 다 자고 쉴것을 다 쉬고 어떻게 그들을 따라잡고 앞설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결국 생활은 자신께 아침에 편안히 누워있을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여 굳어진 습관이라고 하시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버릇만은 일생을 두고 고치지 못할것 같다, 건강은 혁명을 위해 필요하며 혁명가는 혁명사업을 잠시도 멈출수 없다고 흔연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는 언제한번 휴가는 고사하고 몇시간의 짧은 휴식도 차례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열적으로 사업하시는것을 자신의 휴식으로 간주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은 비단 시간의 연장선우에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에 궂은날, 험한 길을 너무도 많이 걸으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 늘 입으시던 수수한 군복외투가 고이 보관되여있다. 옷깃이 다 닳아 보풀이 일고 해여진 군복외투, 그 오리오리에는 위기에 처하였던 혁명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선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고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을 찾으시여 수억만리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길, 류례없이 간고한 길을 한평생 걸으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라고,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고, 정말 인민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세계정치계를 둘러보면 대체로 국가수반이나 정치지도자들의 말년은 정치와 떨어진 조용한 환경에서 흘러가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령의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불같은 정력으로 나라일을 돌보시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다 만나주시며 생을 빛나게 마무리하시였다.

사실 생의 말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장병을 앓고계시였다. 서거하신 해에는 눈병까지 앓으시여 주체 83(1994)년의 마지막신년사를 하실 때에는 잘 보이지 않아 원고를 손에 드시고 힘들게 읽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내 눈수술을 받게 되시였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수술을 받으면 한달나마 쉬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수술을 받으신지 며칠 안되여 해외동포인 손원태선생을 만나주시였고 뒤이어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가한 학생소년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거하시기 전 몇달동안에만도 전국농업대회, 전국석탄공업일군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근로자들을 만나주시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그들과 일일이 기념촬영을 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여러차례의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고 온천군과 평양시주변의 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사문제를 의논해주시였다.

생애의 마지막나날이였던 7 월 5 일과 6 일에는 경제부문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54 차에 걸쳐 연 87 개 나라를 방문하시였다. 그 로정은 52 만 2 460 여 km 에 달한다. 그만큼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은 사람들의 상상을 뛰여넘는것이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나주신 외국의 수반들과 정치인들,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수는 이루 다 헤아릴수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에 누구보다 고생도 많이 하시였고 가슴아픈 상실의 고통도 많이 겪으시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한번 비관이나 동요를 모르시였다. 특히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막아설 때마다 앞날의 승리에 대한 락관을 지니시고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시였으며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을 빛내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락관이 있어 항일투사들은 천고의 밀림속에서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고 원쑤들에게 두눈을 잃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칠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락관, 해방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락관이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낳았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게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락관주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락관주의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고 높이 발휘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락천가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체험에 의하면 노래는 혁명적락관주의의 상징이고 혁명승리의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자주 인간생활에는 시도 있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어야 한다, 인간생활에 시도 없고 춤도 없고 노래도 없다면 무슨 살 재미가 있겠는가고

교시하군 하시였다.

노래소리가 높아야 나라가 흥하고 당이 강해지며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확고하게 간직하고계신 관점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백두산에서 일제와 싸울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싸웠다고 하시면서 노래는 멸적의 힘이였고 필승의 무기였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그렇고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그렇고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웠다고 회고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을 무척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히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꽃파는 처녀》**, **《혈분만국회》**, **《한 자위단원의 운명》**, **《성황당》**을 비롯한 혁명가극, 혁명연극들, 혁명가요 **《사향가》**, **《반일전가》** 등을 비롯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설이나 영화같은 문학예술작품감상을 즐겨하시였으며 노래도 잘 부르시고 악기도 타시면서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래 운동을 대단히 즐기시였다. 수영도 좋아하시였고 정구와 탁구도 능란하게 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한 나라 혁명의 성패나 생명력도 인간의 생활의 높이도 혁명적락관주의에 의해 좌우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혁명투쟁과 생활을 락천적으로 해오신 강의한 정신력의 최고체현자이시였으며 그로 하여 조선혁명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진함을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활력에 넘쳐 오늘에로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4) 고결한 풍모를 지닌 위대한 평민

무한히 겸허하게 산 한생

조선속담에 익은 곡식일수록 더 머리숙인다는 말이 있다. 서로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며 상대를 존중해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사람들사이에 솔직한 대화가 오갈수 있으며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겸손한 품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 한생을 살아오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끝없이 인자하고 겸허하신분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도, 인민의 찬양과 세계적인 공인도 다 마다하시고 한생토록 자신을 낮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자신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교시하군 하시였다.

인민의 아들, 비록 짧은 말이지만 그속에는 자신을 인민의 대오속에 인민의 한 성원으로 평범하게 세우고 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진정과 인민의 한 성원으로 사시는데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인생관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인민의 아들, 인민의 충복, 평범한 인민의 한 성원으로 여기고 사는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그 누구앞에서도 자신의 공적이나 칭호에 대하여 스스로 자부하거나 자칭해보신적이 없었다. 자신을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겸허하신 자세와 립장은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던 빨찌산시절에도 그러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자신의 80 평생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의 아들로서 인민을

위하여 바친 투쟁의 한생이라고 할수 있다고 교시하시던 80 고령에 이르실 때까지 한번도 변한적이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물원은 세계화초박람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꽃이 많고 력사가 오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식물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식물원에 오시였을 때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과 식물원원장은 한 이름있는 식물학자가 오래동안의 고심끝에 새로 육종해낸 아름다운 꽃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실것을 말씀올렸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꽃에까지 이름을 달겠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시며 겸손하게 만류하시였다.

그러자 수카르노대통령은 아닙니다, 각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기때문에 응당 높은 영광을 지니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굽히려 하지 않았다. 식물원에 대한 참관이 끝나고 수도에 올라와서도 대통령은 자기의 제안을 거듭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인민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우리 인민에 대한 찬양의 표시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수천년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꽃에 위인의 존함이 모셔지게 되였다.

한생토록 모든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허심하게 하여오신분이라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겸허한 인간적풍모의 또 하나의 매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평범한 당원의 한사람으로 여기시며 당앞에 무한히 허심하게 살아오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당원들이 다 당조직관념을 높이고있는데 총비서이고 국가주석인 자신께서 그 모범을 보여야 할것이 아닌가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당사업을 맡아하는데 조직비서로부터 분공을 받고 조직비서에게 그 분공집행정형을 보고하는것이야말로 조선로동당원의 의무가 아닌가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며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당조직관념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신적이 있었다.

세상에는 많은 정당들과 단체,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자신이 직접 창건하고 이끄는 당앞에 이토록 허심한 위인은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시고 어느때 어느 단위에 가시여서도 자신부터가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지키는것을 어길수 없는 준칙으로 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에 가시면 경비근무를 서고있는 농장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이시였고 군부대에 가시면 보초근무를 서고있는 어린 병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토록 배우기 위해 애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무한히 허심한 자세와 립장을 지니고 배우고 또 배우신 선생은 인민대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책이 말없는 스승이라면 인민은 지혜롭고 박식한 선생이였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누구의 말도 스쳐지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였다.

그 개별적사람들의 각이한 요구와 지향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으로 집대성되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전환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집대성되고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로선과 정책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그 누구도 내놓을수 없는 진리중의 진리였다.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한없이 숭고한 겸손성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의 아들로 살아오신 위대한 평민을 높이 모신 덕에 조선인민은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지녀보지 못했던 《령도자의 스승》이라는 분에 넘친 칭호를 지니고 살았다.

한없이 소박한 생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너무도 소탈하고 검박하게 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항일혁명의 전기간 탄우가 비발치는 혈전의 앞장에 서계시는 기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한번 사령관의 령장을 따로 달아보신 일이 없으며 전용침식조건이나 남다른 대우같은것을 허용하신적도 없었다. 그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소박하게 생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만민을 매혹시키는 소탈한 인품을 지니고계신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사람을 끄는 매력을 지니신분, 품에 안고 사신 로동자들과 농민들, 지식인들과 병사들은 물론 해외의 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마저 만나뵙자마자 대번에 반하여 마음속진정을 죄다 털어놓고 헤여지면 또 뵙고싶어하는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게는 분명히 자석과도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저도 모르게 열렬한 매혹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특이한 인력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사람들과 자그마한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허물없이 지내신 한없이 소탈한분이시였다.

오늘 조선의 그 어느 유치원, 탁아소에 가보아도 첫눈에 가슴뭉클하게 안겨오는 한상의 유화가 있다. 조국의 미래, 조선의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담은 미술작품이다.

공원의 소박한 긴의자에 앉으시여 태양과도 같으신 환한 웃음을 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이의 주위에 어린 꼬마들이 우구구 모여 어떤 아이는 그이의 중절모를 척 비껴쓰고 웃음을 짓고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수령님의 목을 량팔로 꼭 그러안고 귀속말을 하고있다. 모두가

자기의 친할아버지를 모신 행복에 한껏 넘쳐있는 모습들이다.

한 나라의 령도자와 어린 꼬마들사이의 꾸밈없고 소박하며 뜨거운 혈육의 정이 차넘치는 장면을 형상한 미술작품은 그대로 수령과 인민들, 아이들사이의 혈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력사적화폭이다. 그것은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인륜도덕과 정치륜리, 인간풍모의 새 경지를 보여주신 가장 걸출한 위인을 형상한 력사의 가장 아름다운 화폭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평생 자그마한 간격이나 허물도 없이 만사람들과 어울리시며 사업하고 생활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사업과 생활의 터전을 항상 인민들이 살아움직이는 곳으로 정하군 하시였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인민들과 늘 어울리시였다. 하늘처럼 믿고계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데 어울려야 그들의 무궁한 힘을 최대한 발동할수 있고 당도 국가도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혁명을 완수할수 있다는 확고한 관점은 수령님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인민과 허물없이 지내시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으시게 하였던것이다.

국적과 피부색, 언어가 서로 다른 외국사람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례상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친근하면서도 허물없이 대해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 인민이 피눈물로 가슴을 적시고있던 주체 83(1994)년 12 월 어느날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몇십년전에 나온 TV 를 그대로 리용하시고 보통 수수한 비닐방신을 신으시며 생활하시였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다 바쳐 인민에게 해주실수 있는것은 다해주신분, 근 반세기에 걸쳐 당과 국가의 최고직책에 계시며 혁명을 이끌어오신분이 인민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생활을 하시였다는것자체가 아직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일이였던것이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사업비용까지 자신의 생활비로 부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사업비가 첨부된 생활비를 가져다드리였을 때에는 국가의 재정규률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자신의 원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량을 도로 가져다 바치게 하시였고 또 어느 한 내각회의에서 종합대학의 총장생활비가 수상의 생활비보다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거기에 직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종합대학총장은 과학자이기때문에 응당 생활비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그루를 박아 강조하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주체 82(1993)년 11 월 어느날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성대히 열린 결산분배모임에서는 전후 사회주의농업협동화시기부터 명예농장원으로 등록되여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지난 기간 저금하여두었던 10 만 2 485 원의 분배몫을 정중히 올리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농민들과 함께 봄씨앗을 뿌리시던 그때로부터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농장의 살림살이를 일일이 돌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에 대한 절절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분배모임에 대한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돈으로 농장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농기계를 사서 보충해주자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도합 22 대의 뜨락또르와 련결차, 자동차가 10 리밖에까지 마중나온 농장원들의 노래와 춤속에 파묻혀 원화협동농장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감격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럽의 한 정치활동가는 세상에 한 나라의 수령이 명예농장원이 되여 분배몫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그 분배돈으로 농민들을 위해 뜨락또르며 자동차를 사서 보내주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고,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수만년이 흘렀지만 이것은 정말 전설같은 이야기이라고 하였다.

천하절승 묘향산에 자리잡고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이 집대성된 위인칭송의 대전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 여러 나라와 당들의 지도자들과 인사들, 단체와 기관들에서 보내온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는 이곳에는 잊지 못할 사연이 있다.

다른 나라의 정치가들을 보면 대체로 남에게서 받은 선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을 순수 자기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표시로 여기는데로부터 개인의 재산으로 보관하고 쓰기도 한다. 남들에게 보이는 경우에도 자기 개인의 인격에 대한 자랑거리로 삼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받으신 수많은 선물들을 그대로 나라의 국보로, 인민의 존엄과 위력의 상징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자신께서 받으신 선물마저도 후손만대에 물려줄 나라의 재보, 인민의 재부로 안겨주신분이여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 대혁명전시관이며 력사박물관 지어는 동명왕릉을 비롯한 온 나라의 재부들과 력사유물들은 일일이 다 보아주시면서도 자신께서 받으신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는 전람관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끝내 다 돌아보지 못하시였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숭고한 사상과 건전한 정신을 혁명가의 첫째가는 재부로 여기시며 한생을 살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이였다.

2. 주체의 태양

1) 주체의 빛발을 안겨준 절세의 위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습니다.》

사상리론에서 시대성보장은 해당 시대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있다.

주체사상이 창시되던 20세기 20년대-30년대초 세계적판도를 놓고 볼 때 당시 시대의 변화와 흐름속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시대와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었다.

당시 세계 많은 나라 인민대중은 자본의 억압과 착취, 식민지지배를 그대로 감수하지 않았으며 그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특히 이 시기 지금까지 중세기의 암흑속에서 몽매해졌고 자본주의문명의 밑거름으로만 되여오던 피압박민족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이 더욱 활발히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의 길에 나서신 1920년대 후반기부터 1930년대초에 이르는 기간 조선의 곳곳에서는 전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인민대중의 조직화된 폭력적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자주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라는 과학적통찰에 기초하여 창시하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주체 78(1989)년 6 월 유고슬라비아신문 《오슬로보줴니에》 책임주필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로부터 그리고 우리 인민의 투쟁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사상이지만 그것이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자아내고있는것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와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 대의 어리신 나이에 현시대가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는 결론을 내리시였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주체사상을 두고 인민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인민대중중심의 사상, 완성된 자주의 혁명사상이라고 격찬하는 리유는 그것이 다름아닌 인민대중이 살고 그들의 지향이 높뛰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창시된 사상이라는데 있다.

사상과 리론에는 그 출발점이 있게 되며 진보적사상은 과학적진리를 출발점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재에서 그 어떤 선행사상을 출발점으로 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고 새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혁명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적탐구를 진행하시였으며 혁명적실천투쟁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사상과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넘겨받으신 《지원》의 사상과 무산혁명의 리념을 고귀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하여 독자적인 새로운 진리를 탐구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진사상, 새 사조에 대한 연구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현실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선행한 학설이 조선혁명의 구체적인 실천적문제들에 옳바른 해답을 줄수 없음을 절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의 실천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시여 중요한 두가지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고귀한 진리의 하나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이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의 2 대진영을 이루고있던 민족주의자들과 초기공산주의자들이 인민대중이라는 거대한 혁명력량은 뒤전에 밀어놓고 오직 말공부와 령도권쟁탈에만 몰두하고있었다. 그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과 리탈되여 령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고있었으며 대중을 단결시킨것이 아니라 파벌싸움으로 분렬시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15(1926)년 10 월 참다운 첫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ㄷ》)을 결성하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떼시였으며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강도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선언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조직을 확대하며 그 주위에 광범한 청소년들과 근로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주체 15(1926)년 12 월에는

새날소년동맹이 결성되고 주체 16(1927)년 8월에는 《ㅌ.ㄷ》를 전신으로 한 반제청년동맹과 함께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되였으며 그 다음해에는 농민동맹과 반일로동조합까지 조직되였다. 주체 15(1926)년 12월에는 반일부녀회도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믿고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특히 자신께서 직접 학생들을 조직동원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시고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러한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이야말로 혁명투쟁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그 인민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운다면 반드시 그 어떤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자들도 능히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고귀한 진리의 다른 하나는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였다.

혁명은 수입할수도 수출할수도 없으며 더우기 그 누가 대신해줄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당시 민족주의운동의 일부 상층과 독립운동자들속에서는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독립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사대주의적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고있었다. 그들은 《교육과 산업의 진흥에 의한 국력배양운동》을 《독립목적달성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면서 그 《힘의 준비》를 미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렬강의 《원조》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까지 력설하고있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도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더 농후하게 나타났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독립대안은 없이 그저 고전만 옆구리에 끼고앉아 쏘련이나 국제당을 쳐다볼뿐이였다.

그저 때가 되여 쏘련이나 국제당이 나서주면 만사가 해결되리라는, 이를테면 어부지리나 얻자고 하는것이 대부분의 초기공산주의자들의 립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가 책임지고 제 나라 혁명부터 잘하면 누구든 자연히 인정하게 되며 무시할수도 없게 되리라고 확신하시고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독자적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각종 투쟁도 조직지도하시였으며 첫 당조직도 결성하시고 첫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도 조직하시였다.

이 모든 거창한 사업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자적인 결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실천하신것들이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주체사상의 두가지 출발점은 명실공히 독창적인 진리, 자기 인민, 자기 혁명중심의 주체의 진리이다.

일찍부터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거듭 모색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이 없이는 조선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는것을 더더욱 페부로 절감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바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인류의 운명이 그 창시를 절실히 요구하고있던 력사적시기에 나온 위대한 사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조직동원되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주시였다.

《조선혁명의 진로》는 혁명운동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혁명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혁명전략과 전술이 집대성된 혁명투쟁의 대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뚜렷이 밝히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창적인 무장투쟁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로선들은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주체사상의 혁명원리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철저히 일관된 주체의 로선과 전략전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라는 립장에 기초하여 조선에 조성된 계급관계와 조선혁명앞에 제기된 과업으로부터 그 어느 고전에도 없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내놓은적이 없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해주시였다.

력사적로작 **《조선혁명의 진로》**의 발표가 주체사상창시의 선포로 되는것은 바로 이 로작이 주체의 혁명원리와 혁명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을 담고있으며 조선혁명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부터 혁명의 기본임무와 그에 따르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주체의 사상과 로선의 불멸의 대강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지금껏 혁명리론과 투쟁방법의 백과전서로 공인되였던 맑스-레닌주의학설도 줄수 없었던 조선혁명의 진로를 탄생시킨것으로 하여 명실공히 시대의 어둠을 밝혀준 빛발이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인류와 함께 영원할 주체시대가 열리고 그 거세찬 흐름이 시작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으로 밝힌 운명개척의 길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운명개척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은 사람의 본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심으로써 인간자신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새 력사를 펼쳐놓으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철학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시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히시여 사람의 운명의 주인은 바로 사람자신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밝혀주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의미하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자신이 틀어쥔 운명의 주인, 운명의 개척자가 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시면서 사람이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근본비결을 사람의 본성과 관련시켜 해명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것은 바로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시절부터 조선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해오시는 과정에 일찍부터 인간에 대한 남다른 견해와 관점을 지니게 되시였다.

인간에 대한 견해를 세워나가시던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강렬하게 느끼신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문제였다. 불우한

식민지조선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진리를 확인하시였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죽어서도 잃지 말아야 할것이 바로 자유이고 자주적권리라는 철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항거하여 전국도처에서 들고일어나는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사생결단의 투쟁모습에서도 인간의 자유,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공통적인 지향을 절감하시였다. 더우기 항일의 나날 《자유가》를 부르며 목숨을 내대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가들의 투쟁의지에서 자유롭게 살려는것은 인간이 내세우는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사활적인 요구이며 바로 여기서 인간고유의 최대의 정신력과 의지가 분출된다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정한 인간적자유에 대한 요구와 지향으로 표현되는 자주성은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당하지 않고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근본속성이라고 보시였다. 바로 자주성으로 하여 인간은 자기밖의 세계를 운명개척의 요구에 맞게 주동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자주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과 의식성이 인간의 근본속성으로 된다는데 대하여서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다 빼앗긴 식민지민족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렬악한 생존조건속에서도 창조와 로동을 멈추지 않고 꿋꿋이 삶을 이어나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내제되여있는 무한한 창조적능력을 체험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수공권으로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한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는

조선혁명의 전기간 인민대중과 더불어 기적적인 승리를 이룩해오시는 과정에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하고도 위력한 창조적존재라는 확고한 관점을 수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은 의식성을 가진 존재,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라는데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의 정신력에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백전백승의 력사를 창조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식성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의 밑바탕에 놓이는 근본속성이며 바로 그것이 인간의 무궁무진한 위력의 원천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계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고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목숨바쳐 싸운 인민혁명군대원들의 무비의 희생성도 다름아닌 혁명가로서의 높은 의식성에 기초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식성을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인간의 근본속성으로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은 결코 그 어떤 선천적이며 생물학적인 속성이 아니라 부단한 사회적교육과 사회적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사회력사적으로 형성공고화되는 사회적인 본성이며 이로 하여 인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존재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론의는 비로소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며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끊임없이 진행되여온 인류사적과제였다.

인간의 사회적본성이 해명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과학적근거가 완전히 밝혀지게 되였다. 오랜 세월 신이나 지배계급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던 인간의 운명은 드디여 인간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였다.

바로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철의 진리를 진수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하시고 주체사상의 전반내용을 일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과 지위를 완벽하게 밝히심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심으로써 운명개척을 위한 인간의 인식과 개조활동의 위력한 방법론을 안겨주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의 세계관은 자주시대의 가장 옳바른 세계관이다. 자주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은 세계의 참다운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는 더욱더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전변되고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정립하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회적운동도 있을수 없으며 사회적운동은 오직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서만 발생발전한다고 천명하시였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다시말하여 인간의 참다운 사회적본성을 체현한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인민대중이다. 인간은 그 사회적본성으로 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이러한 본성으로부터 인민대중은 사회력사를 개척하고

주도해나가는 력사의 주체로 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고 하는것은 력사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말하여주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력사와 현실은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옳바른 지도밑에 결속되지 못한 인민은 아무리 방대한 인구수와 뛰여난 슬기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인류사회를 주도하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인류력사에 존재한 크고작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사, 모든 력사적운동의 성패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것은 첫째도 둘째도 옳바른 수령과 당의 령도라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10 대의 혁명활동시기로부터 인민을 이끌어 승리의 력사를 창조해오는 과정에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한다는 력사적결론에 도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사회력사원리로부터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데 있으며 그 성격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라는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사회력사적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며 인류력사의 발전방향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여나가는데 있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력사발전의 기본방향,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인류는 그 어떤 복잡다단한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도 력사의 진군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을 인민대중이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투쟁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주체확립에 관한 사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개척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데 대한 사상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을 밝혀준다.

주체확립의 본질적내용의 하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견지해야 할 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이 담고있는 구체적내용의 하나는 언제나 자기 인민의 리익,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신이 결정하는 완전한 독자성이며 다른 하나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철저한 자력갱생이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과 주견이 없이 그 누구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거나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힘에 의존하여 혁명을 하려는 외세의존사상, 사대주의와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주체확립의 본질적내용의 다른 하나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 인민대중이 마땅히 견지하여야 할 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이 담고있는 내용의 하나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 다시말하여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시대적조건과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다.

창조적립장은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를 믿지 못하고 제정신이 없이 기성의 리론이나 경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조주의, 도식주의와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은 실천적으로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식대로 혁명을 하는 원칙에 귀착된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식대로 혁명하는 립장, 이것이 바로 운명개척의 무기로서의 자주이며 창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할 떳떳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밀고나가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있다고 강조하군 하시였다. 한평생 조선혁명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드팀없는 혁명신조가 바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뚜렷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바로 이 근본원칙에 의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실제적인 투쟁의 무기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범위나 력사의 어느 한 구간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사상이 아니다. 자주와 창조의 리념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그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위대한 사상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단순히 조선혁명의 정치적 및 력사적환경과 조건의 특수성에 의해서만 제기되는것이 아니다. 이 요구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연적인것이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력사적으로 놓고보아도 나라와 민족을 떠난 전인류적인 혁명이란 사실상 있어본적이 없다. 나라와 민족마다 처하여있는 구체적환경과 조건도 서로 다르고 달성해야 할 투쟁의 목표도 다르며 대중의 준비정도와 구체적인 사상감정도 다른것만큼 운명개척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철저히 독자성을 띠고 진행되게 되는것이다.

실천속에서 검증된 리념만큼 진리적인 사상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 감회깊게 쓰신것처럼 조선인민이 오늘까지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면서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걸어올수 있은것은 바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데 근본비결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 돐을 맞는 주체 97(2008)년 정초에 한평생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굳건하며 자위로 강위력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한생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식으로 혁명할데 대한 자주와 창조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절대의 원칙으로 한평생 조선인민을 이끄시여 오늘의 승리와 영광을 이룩하시였다.

2) 자주의 새 력사를 펼친 위대한 수령

현대정치의 생명선-자주정치의 기원 마련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의 혁명령도사는 현대정치의 생명선으로 되는 자주정치의 참다운 기원을 마련하고 20 세기를 자주정치의 시대로 전변시키신 성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조선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조선로동당의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는것,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계신 정치신조였다.

해방된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것을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첫시기 조선인민앞에 제기된 초미의 력사적과제였다.

당시 새 사회건설경험이란 앞서 혁명이 승리한 쏘련의것밖에는 없었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따르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건설의 출발선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선인민의 근본리익,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로선을 선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직후인 주체 34(1945)년 8 월 20 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자주독립국가의 현실적담보인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조선인민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지체없이 실현할데 대한 당면임무를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의 근본리익을 옹호하여 새 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신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은 그후 력사에 의하여 검증되였다. 만일 그 시기 조선인민이 다른 나라들이

걸었던 사회건설의 길을 택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지 못하였을것이다.

현실적으로 자기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는 독자적인 로선을 가지지 못하고 쏘련식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식하였던 동유럽나라들은 새 사회건설의 시초부터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1945 년 6 월 정부를 수립하였던 뽈스까는 근 2 년동안이나 혼란을 겪다가야 겨우 정국을 수습하였고 1945 년 5 월 정부를 수립하였던 체스꼬슬로벤스꼬는 무려 3 년동안이나 곡절을 겪어야 하였다. 사정은 동도이췰란드와 로므니아, 벌가리아, 알바니아에서도 같았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도 전후의 페허우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태여난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사실 중공업이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방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부문으로서 공업의 토대가 일정하게 있는 나라들에서도 감히 우선적으로 내세우기 주저하는 공업경제분야의 가장 큰 부문이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공업과 같이 투자가 적게 들면서도 자금회전이 빠른 부문을 먼저 발전시켜 축적을 강화한 기초우에서 중공업을 발전시키거나 다른 모든 부문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중공업을 건설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사실 전후 재더미속에 거의 파묻히다싶이 한 조선의 경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다같이 발전시킨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어느모로 보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이 령상태에 놓인 전후의 형편에서도 조선인민의 근본리익,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리익을 무엇보다 중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 할지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자체의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인 국방력의 토대를 마련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력사적으로 대국들의 리해관계의 초점으로 되여온 조선이

언제인가는 반드시 그들의 희생물이 될수밖에 없게 된다는것을 내다보고계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중공업의 우선적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발전이라는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진보적민주주의로선은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조선의 현실적조건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과 그 활동의 기본방향과 방식을 규정한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근대이후 세계정치사를 돌이켜보면 국가건설과 활동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본주의제도의 발생과 함께 부르죠아민주주의가 공인되여있었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 월혁명이 승리하여 쏘베트정권이 선 다음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이후부터 민주주의는 미국식《자유민주주의》에 의하여 대표되는 유미자본주의국가의 《자유민주주의》와 쏘련식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로 갈라지게 되였다. 세계적으로 보면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실제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례외없이 미국식《자유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갔으며 민주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쏘련식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길을 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의 식 민주주의가 조국과 혁명발전에 끼치게 될 엄중한 해독을 헤아려보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며칠후인 주체 34(1945)년 10 월초 조선식 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자주, 련합, 자유, 부강, 혁명, 평화로 특징지어지는 진보적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해방후 조선인민의 지향에는 물론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참으로 독창적인 조선식의 정치로선이였다.

조선에서의 농업협동화정책을 보아도 그것은 선행리론과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창조적으로 작성제시된 독특한 자기 식의 정책이였다.

당시까지는 농업협동화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현대적농기계가 없는 조건에서는 실현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조주의자들은 농업협동화의 《시기상조》론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술적조건은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는데서 중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반드시 선행시켜야 할 필수적조건으로 되는것은 아니며 조선의 현실이 협동화를 요구하고 혁명력량이 준비되면 하는것이지 그것을 다른 나라의 경험에 맞추느라고 정지시키거나 후퇴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의 집단적경영을 담보할 현대적농기계가 없는 조건에서도 농민들의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고 또 그것을 맡아할만 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였을 때에는 농업협동화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확신밑에 주저없이 독창적인 농업협동화정책을 제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관하게 구현해오신 고귀한 전통이고 자기 식의 혁명방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연길폭탄》을 잊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를 남기시였다.

한때 간도사람들은 유격근거지에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을 계획을 세우고 쏘련사람들에게 원조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쏘련측에서는 그 청원에 아무런 대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쏘련사람들의 랭담한 침묵은 먼저 혁명에서 승리한 나라가 아직 정권을 잡지 못한 혁명가들을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라고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혼란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석게도 남의 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간도사람들의 사건을 혁명대오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들에게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결정적인것은 자기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것이며 남들의 원조는 부차적인것이라는 립장을 확고히 가지도록 교양하시였으며 적들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내는 한편 자체로 병기창을 꾸려 무장을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유격근거지의 실정에 맞는 화약제조방법으로 작탄을 만들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시고 병기창일군들의 혁명적적극성과 견인불발성,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연길폭탄》이라는 그 작탄의 이름은 연길일대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작탄벼락에 넋을 잃은 일제가 공포의 대상으로 지어부른것이였다.

《연길폭탄》은 물론 망치와 줄칼, 풍구 등의 도구밖에 없었던 백두의 원시림속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도 자못 의의가 큰것이였다. 그러나 그에 비할바없이 큰 의의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거대한 힘과 슬기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자기 운명을 능히 자체의 힘으로 개척할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을 통해 절감하게 한 정신적령역에서의 일대 전환의 계기였다는데 있다. 《연길폭탄》이 조선혁명력사에 자력갱생의 빛나는 상징으로 기록되여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의 이름있는 당 및 국가활동가였던 쥬다노브를 만나 담화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쥬다노브는 위대한 수령님께 해방후 쏘련이 조선에 어떤 지원을 줄수 있겠는가고 문의하였다. 이 질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력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에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페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확고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쏘련사람들은 그때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었다.

조선인민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 45(1956)년 12 월 력사의 강선길을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조선혁명의 한걸음한걸음이 다 시련과 고난에 찬 준엄한 행로였지만 이때처럼 엄중한 난국이 들이닥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수정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은 극도에 달했고 그들을 등에 업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기고만장하여 로골적으로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여기에다 방대한 5 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자재와 자금이 모자랐으며 인민생활도 그때는 아직 어려웠다.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은 이 준엄한 시련을 뚫고 당 제3차대회가 내세운 제1차 5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내는가 아니면 영영 주저앉고마는가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였다.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자체의 힘을 믿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준엄한 난국을 타개해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력갱생의 의지와 신념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천리마운동의 선구자가 되여 6 만 t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 만 t 의 강재를 생산하였다. 조선인민은 전해에 비해 공업생산 22%장성을 예견한 주체 46(1957)년의 방대한 인민경제계획을 2 배로 넘쳐수행하였으며 5 개년계획이 《환상》이요, 《공상》이요 하는따위의 궤변을 불사르고 그것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 년반이나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단 14 년동안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프랑스의 저명한 기자는 조선인민의 자력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감동되여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할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사조마냥 재더미속에서 소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조선의 복구와 건설일것이라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난 20 세기에 자주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수정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집요한 내정간섭을 물리치는 심각한 정치투쟁을 동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44(1955)년에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과정은 수정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는 심각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농촌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농민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이 시기 사회주의혁명구호를 내들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이 성숙되였음을 확증하시고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완성하시였다.

그런데 주체 44(1955)년초 쏘련당 고위급인물은 테제를 보면 조선당이 도시수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를 부식시키겠다는것이 아닌가고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은 테제에서 언급된 농업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도 반대해나섰다. 그들은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한 다음에야 농업협동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기성리론을 내흔들면서 공업화된 동유럽나라들도 아직 협동화를 못했는데 이것만 놓고보아도 조선당의 정책이 주관주의적인것이 아닌가고 시비질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테제가 없이도 사회주의혁명을 해나가고있는데 조선에서 테제가 필요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테제를 내놓는것이 무엇이 나쁜가, 다른 나라에서 내놓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 식대로 해나가겠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강령을 놓고 수정주의자들과 일대 론쟁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 주일만인 주체 44(1955)년 4 월에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력사적인 《4 월테제》로 불리우는 불멸의 로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세상에 발표하시였다. 이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를 밝혀주시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력사적인 사회주의건설강령을 발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 도시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남들이 10 여년이 걸려서도 실현하지 못한 력사적위업을 단 4~5 년동안에 완수하시는 빛나는 현실을 창조하시였다.

만일 그때 조선이 수정주의자들의 압력에 조금이라도 굴복하여 자기 식의 사회주의건설강령을 내세우지 못하였거나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금이라도 늦추었더라면 이 땅에 오늘과 같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울수 없었을것은 물론 현세기의 대정치풍파속에서 그 존재마저도 보존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준 명백한 현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견결한 자주적립장으로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독자성을 실현하심으로써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의 국제적지위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신 자주의 정치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큰 나라 당, 작은 나라 당은 있어도 《형님당》, 《동생당》이라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그 어떤 나라의 특권적행위에 대하여서도 견결히 반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적인 로고와 불면불휴의 투쟁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위대한 당》,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당당하게 걸머지고있는 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이름도 빛나는 자주의 강국으로 자기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게 되였다.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새 력사 개척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길을 개척하고 이 땅에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수백년간의 오랜 세월을 두고 민족자주정신을 좀먹는 사대와 외세의존사상이 뿌리깊이 박혀있던 조선에서 민족자주정신을 확립하는 문제는 그 어느 나라에 비할바없이 간고하고도 첨예한 정치투쟁이였다. 력사적으로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엄중히 침해하여온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전후시기에 이르러 혁명대오에 끼여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44(1955)년 12 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12 월연설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이라고,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사상사업의 주체이라고,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자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전개하시면서 조선인민이 자기의것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불을 지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12 월연설을 비롯한 여러 고전적로작들에서 주체사상교양이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을 확립하는데서 가지는 의의와 그 실현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사상교양을 주체사상교양으로 일관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5(1956)년 2 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조선인민의 투쟁력사, 창조의 력사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자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전개하시면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거창한 실천투쟁을 민족자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위력한 사상전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천리마운동은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남들이 어떤 길을 걸었든 오직 자체의 힘으로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려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투철한 자주정신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운동을 위력한 방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갈 용기를 안으시고 조선로동당 제 4 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 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천리마를 타게 함으로써 민족자주정신으로 무장된 대부대를 키워내기 위한 력사적운동이였다.

전후에 어떤 사람들은 조선로동계급이 레닌그라드의 끼로브공장로동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자면 적어도 한세기, 100 년은 걸려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대중의 앞장에 내세우기가 어렵게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강선제강소의 진응원작업반장이 단 몇해사이에 첫 천리마기수로, 나라의 영웅으로 자라났다. 단 14 년만에 완성된 사회주의공업화와 계속혁명의 불길속에서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천리마기수, 영웅들이 자라났다.

민족자주정신이 발양되는 사회적실천운동,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혁명투쟁의 정신적추동력으로 간주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발견하시고 실천하실수 있는 민족자주정신확립의 위력한 방도였다.

20 세기는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개척에서 자위의 총대가 가지는 의의와 역할이 명백히 실증된 력사적행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주체 34(1945)년 8 월 20 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혁명무력건설의 길을 뚜렷이 명시하신 혁명무력건설사업을 선차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로동계급을 찾아 걸으신 현지지도의 자욱은 군수공업을 일떠세우기 위한 《평천길》에도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기슭에서 자위적방위력을 마련하는 사업에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는가 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무기를 보면 피곤이 풀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체 37(1948)년 12 월 일요일의 휴식도 미루시고 몸소 첫 기관단총의 시험사격을 하신 력사적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의 경제건설력사에는 제 1 차 7 개년계획이 3 년간이나 연장되였다고 기록되였다.

1960 년대 《까리브해위기》를 계기로 조성된 세계정치정세를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처할 중대결단을 내리시였다. 주체 51(1962)년 12 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5 차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 55(1966)년 10 월 당대표자회에서 이 방침을 정식 천명하신데 이어 국방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무장대오를 마련하고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하는 사업의 중심으로 틀어쥐시고 먼저 혁명무력의 핵심인 군사간부들을 자체로 육성하는 사업부터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는 군관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을 높이며 자체의 힘으로 군간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군강화전략이였다.

대덕산의 천연바위에는 대를 이어 길이 보존할 《일당백》이라는 세 글자가 깊이 새겨져있다. 바로 그 《일당백》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0 년대초 이곳을 찾으시고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해 제시하신 전투적구호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선군정치를 하면서 많은 부대들을 다녀보고 부대들의 연혁과 배치상태를 보았는데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의 자욱이 어려있지 않은데가 없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이어가신 군강화의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위적국방공업을 일떠세우는데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국방공업은 이미 1970 년대에 현대적인 국방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기의 토대를 튼튼히 갖추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으시여 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전변시켜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사상과 구상에 따라 주체 48(1959)년에 로농적위대가, 주체 59(1970)년에는 붉은청년근위대가 조직되였으며 민간무력의 합리적인 조직구성과 지휘체계가 마련되고 훈련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였다. 이렇듯 전민무장화의 실현으로 인류최초의 전인민적무장력이 태여났으며 전체 인민이 총을 잡고 조국을 지키는 전인민적자위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을 요새화하는 사업도 강력하게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의 모든 요새들을 적들의 그 어떤 타격에도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리용적가치가 높게, 최대로

실효성있게 꾸리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2008 년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수백년간의 발전력사를 자랑하던 거대은행들과 독점체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그 여파로 절대다수의 나라들과 기업체들이 아우성을 치고있을 때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이 무시무시한 동란속에서도 태연하게 있을것은 북조선뿐이라는 글을 전한적이 있다.

여기에는 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에 대한 무시할수 없는 세계의 평가와 인정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고 일떠세우신 자립적민족경제는 한마디로 말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경제였다.

쏘련의 영향하에 있던 당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지배주의자들의 《쎄브》정책을 받아들인 후과로 하여 불가피하게도 그들의 경제부문구조에 얽매인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였다. 이 나라들의 산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 《쎄브》의 분업체계에 의하여 꾸려진것으로 하여 자체로 재생산을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구조상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있었다. 결국 이 나라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제부문구조를 자체로 원만히 갖추지 못한것은 물론 생산순환체계가 국내적범위에서 실현될수 있게 확립되여있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경제구조상측면에서부터 일면성과 기형성을 면할수 없었던것이다.

언제인가 황해제철소(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로동계급이 조선의 연료에 의거한 철생산에서 이룩한 혁신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강철공업의 주체화에 이바지한 연구사들에게 영웅칭호를 주도록 하시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원료, 연료에 의한 철생산체계를 완성하시려고 참으로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하기에 주체 98(2009)년 12 월 강선의 로동계급이 기어이 만들어낸 주체강철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철생산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교시하시면서 주체철에 의한 제강법을 완성한것은 3 차 핵시험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격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지나온 경제건설실천은 강력한 중공업에 기초한 조선식의 경제구조야말로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나라의 물질적토대를 백방으로 다져나갈수 있는 가장 리상적인 경제구조라는것을 보여주었다.

1965 년 4 월 인도네시아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인도네시아림시인민협상회의 제 3 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경제도 틀렸다, 어떤 사회주의나라들은 경제발전에서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오직 마음에 들게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는 조선이다, 조선은 공업과 농업이 다 발전되고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누구에게도 예속되여있지 않다라고 격찬하였으며 자기 나라도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미국의 특사와 프랑스, 영국, 서도이췰란드대표들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회의에서 그가 조선의 경제건설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발언한것은 결코 간단한 정치적문제가 아니였으며 그자체가 강력한 중공업에 기초하여 나라의 모든 경제부문구조를 종합적으로 완비한 조선식의 경제구조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한 인정이였고 공인이였다.

생의 마지막시기에 이전 미국대통령이였던 카터를 직접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미국이 우리 나라의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지 제재를 받지 않은적이 한번도 없다, 우리 나라에 대하여 미국도 제재를 가하였고 일본도 제재를 가하였으며 그밖의 다른

나라들도 제재를 가하였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별일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제재를 더 받는다고 하여 못 살아갈줄 아는가고 여유있게 교시해주시였다. 한생을 바쳐 강력한 자립경제를 건설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배짱있는 교시였다.

자주의 기치밑에 새 사회건설의 빛나는 력사를 개척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인재육성사업을 중핵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이끌어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세우신 전민교육제는 새 세대들은 물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교육대상으로 삼고 교육을 중단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주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다 대학졸업정도에 이르게 할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와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이 모든것은 말그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하나의 거대한 전민학습제도를 이룬다. 그리고 그 모든것을 철저한 무료로 안받침하고있는 전민교육제도야말로 조선이 세계적인 인재의 나라로 솟구칠수 있게 하는 참으로 거대한 토대이다.

새 세기초 어느 한 나라에서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대처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학습형사회의 전면적건설, 인민들의 학습기회의 전면적확대, 인민들의 학습능력의 전면적향상…

이처럼 21 세기에 들어선 오늘에야 세계가 리상으로 내세우고 그나마 현대문명을 지향하는 나라들에서도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전민교육, 전민학습의 리상이 조선에서는 지난 20 세기 위대한 수령님대에 이미 완전히 현실화되였다. 전민이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이것이야말로 인재양성의 토양, 터전문제를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한 거대한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재육성의 터전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민교육제와 함께 정연한 고등교육체계, 뛰여난 인재육성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로 키워내도록 하시였다.

주체 74(1985)년 2 월 26 일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재양성기지인 평양제 1 고등중학교(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훌륭한 학교가 일떠선데 대하여 시종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런 학교들을 지방들에도 건설하여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키워낼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과학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뛰여난 인재들을 잘 키울데 대하여 주신 교시만도 헤아릴수없이 많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인재양성기지를 꾸리는 사업부터 독특하게 밀고나가시였는데 종합대학을 먼저 창설하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확대하여나가도록 하신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나라의 구체적인 민족간부실태와 장래과학발전의 요구를 선견지명의 예지로 헤아리시고 나라의 종합적인 민족간부양성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대학으로서의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모체대학, 종합적인 민족간부양성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종합대학에 앞으로 여러 단과대학들로 분리될수 있는 기술관계학부들을 종합적으로 예견성있게 설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단과대학들을 내올수 있는 기초가 충분히 마련된 즉시로 공학부, 농학부, 의학부를 단과대학들로 분리시키도록 하시고 이 대학들에 교원들과 학자들, 대학일군들과 사회과목교원들도 넘겨주며 단과대학들을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해방후 3 년만인 주체 37(1948)년에 벌써 11 개의 대학, 주체 38(1949)년에는 15 개의 대학과 55 개의 기술전문학교들에서 수만명의 학생들이 여러 부문의 유능한 민족간부로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양성기지창설에서뿐아니라 교육교양사업도 철저히 자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주체가 확고히 선 인재,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인재의 육성이였다.

그 어떤 추상적인 《전인류를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 내 인민을 위하여 필요한 혁명적세계관과 과학지식을 소유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재육성사업에서 견지하신 근본원칙이였다. 바로 이 사상이 민족인재육성사업의 주체화라는 정식화에 집대성되여있다.

참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에서 민족인재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만년미래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중의 업적이다.

3) 인민적령도의 거장

한생의 좌우명-이민위천

위인에 대해 알려면 그의 좌우명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위인의 좌우명은 그의 모든 투쟁과 생활에 관통되는 신조와 인격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은 이민위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에는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는 다 담을수 없는 심오한 철학이 있고 거대한 력사가 집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이 세상의 모든 명인들은 내세운 좌우명부터 벌써 비범하였다. 그들중에는 지칠줄 모르는 투쟁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로동계급과 인류의 해방위업에 공헌한 위인도 있고 애국을 좌우명으로 삼고 자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명인도 있었다. 그러나 인류가 기록한 위인사를 다 훑어보아도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 위인, 명사는 없다.

이민위천의 좌우명은 동서고금의 어느 위인도 내세울수 없었던 최고, 최상의 좌우명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인민에 의거하여 한생을 그토록 빛내일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인민은 하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은 이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속에 있는 인민은 장구한 세월 백성으로 불리우며 정치권밖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살아온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였다. 가난에 짓눌린 만경대의 사람들과 거리에 떨쳐나 피범벅이 되면서 독립만세를 부르던 3.1 인민봉기의 참가자들, 잊을수 없는 은인이였던 교하의 아주머니와 천교령에서 만난 로인, 해방후의 나날로부터 한생토록 논밭머리와 기대앞에서 만나시였던 수많은 사람들,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였다. 바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이의 인민이였고 그이의 하늘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인 이민위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집대성되여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국의 한 문필가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그 문필가는 위대한 수령님께 슬기로운 조선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위해서 오래 살라니 참으로 고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후날 그 문필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전하면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 화제에 오르면 금시 활기를 띠시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글은 마땅히 인민적인 송가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절절히 토로하였다.

그렇듯 자신의 삶 전체를 인민을 위한것으로 생각하시며 인민을 하늘로 받드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그이께서 구상하고 이룩하신 일들은 모두 인민을 위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투쟁으로 일떠세운 국가도 인민을 위한 《인민공화국》이였고 정권도 인민이 주인인 《인민정권》이였으며 군대도 인민을 지키기 위한 《인민군대》였다. 인민을 위하여 남달리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공로를 세운 지식인들과 체육인, 예술인들의 삶도 다 《인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인민들이 창조해낸 가장 훌륭한 창조물들도 명실공히 인민과 인민의 나라를 상징하여 명명되였다. 조선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가공해낸 나라의 첫 박격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표식이 새겨지고 해방후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태여난 첫 군함도 《로동자》호로 명명되였다. 조선에서 제일 큰 궁전이 《인민문화궁전》이고 제일 큰 도서관도 《인민대학습당》이다.

인민은 하늘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은 수령님으로 하여금 당과 혁명을 위해 조국과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당도 혁명도 있다는 철학을 한생의 정치신조로 삼게 한 사상적원천이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혁명은 그자체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투쟁이라는 새로운 혁명관이 정립되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태여날 때부터 인민에 대한 복무를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가장 인민적인 당과 국가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된 때로부터 어느덧 20 여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그토록 애독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 인민들을 한생을 다하여 하늘로 받드시였으며 80 여성상의 위대한 생애를 총화하는 회고록도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믿음의 성전으로 만드시였기때문이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혁명방식을 통칭하고있는 불멸의 격언이며 그이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고귀한 정치적신조이다.

도서 《인민들속에서》는 한생을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뜻과 정을 나누시고 인민에 의거하여 혁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민의 사상과 인민적령도풍모에 대하여 조선인민들이 쓴 회상실기이다.

한평생 인민들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들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이 인민적령도의 총서는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도서 《인민들속에서》는 주체 51(1962)년에 첫 권이 세상에 나온 때로부터 오늘까지 무려 수천만부나 발행되여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인민이 한식솔로 살아온 영광스럽고 행복한 나날들에 대한 추억들이 실린 회상실기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도이췰란드 등 여러 나라에 무려 수십만부나 보급되였다. 세계의 이름난 신문들과 잡지들도 그 책의 회상실기들을 수많이 편재하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위대한 수령님의 이 좌우명에는 한평생 인민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삼고 혁명해나가야 한다는 수령님의 투쟁과 생활의 드팀없는 신조가 반영되여있다.

주체 83(1994)년 4 월 미국 CNN TV 방송회사 기자단을 접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시며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우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속에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인민대중이 체현하고있는 무한한 지성의 세계를 명백하게 집약화하신 뜻깊은 명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에게서 배우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과 같은 불멸의 사상을 창시하실수 있었고 수령으로서의 가장 탁월한 지도능력을 지니실수 있었으며 철학과 경제학, 문학과 심리학의 대가로도 되실수 있었다.

지금도 만경대갈림길에 서면 해방과 함께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을 곁에 두시고 강철로동계급을 찾아 떠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오고 제강소에 가면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폐허를 하루빨리 가시자고 절절히 호소하시던 수령님의 교시가 그대로 울려온다. 농촌에 가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허물없이 앉으시였던 수수한 멍석이, 어촌에 가면 어부들과 함께 만져보신 그물이, 탄광에 가면 갱막장에까지 들어가시여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키시던 자취가 눈앞에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인민이라는 바다속에서 한평생 그들을 불러일으켜 가장 거대한 힘으로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였던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고 백전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혁명의 주체-새 인민의 탄생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혁명력사, 그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선행시켜온 독특하고도 숭고한 투쟁력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탄생 60 돐을 축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연회에 참석하시여 지나온 60 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사대와 파쟁으로 빚어진 조선의 망국사를 총화하시고 전체 인민을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혁명투쟁의 어렵고 복잡한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오신데 대하여 긍지높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탄생 70 돐과 80 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자리에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나 시종일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항일혁명의 전로정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항일전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나날이였으며 인민대중자신이 자기의 투쟁으로써 력사의 당당한 주체임을 과시해온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당을 창건하시고 5 개월남짓한 기간에는 북조선로동조합총련맹과 북조선농민조합련맹 등을 결성하여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춘 대중단체에 각계각층의 민주력량을 굳게 결속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때에 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민주주의단체들과 종교단체들까지 망라하는 통일전선조직을 내오신것은 온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지 얼마후인 주체 39(1950)년 12 월 당중앙위원회 제 3 차전원회의에서 북남조선의 직업동맹, 농민동맹, 청년동맹, 녀성동맹을 각각 통합하여 통일적중앙지도기관을 내올데 대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일어난지 1 년도 못되는 주체 40(1951)년초까지 북남조선의 근로단체들이 통합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을 이루고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의 페허속에서도 당과 정권, 인민의 힘을 강화하는데 조선혁명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 있다고 보시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철저히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였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하여 복잡해진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 맞게 각계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사회주의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대고조창조에서도 사람들을 주체사상,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근본열쇠를 찾으시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전기간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문제를 혁명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강력히 밀고나가시였다. 이 나날속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져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사상과 정신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온 사회가 굳게 단결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이 마련되여 전당과 온 사회의 통일단결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력사는 어느 한 시기에 발휘된 인민의 힘이 결코 혁명과 건설의 전과정에 그대로 지속적으로 발휘될수 있는것이 아니며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키우는 사업을 순간이라도 소홀히 한 후과는 수십수백년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참다운 단결에 대한 희망은 반만년의 조선민족사도, 100여년의 국제혁명운동사도 실현할수 없었다.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력사적위업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확고히 믿고 혁명령도의 전기간을 통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최대의 중대사로 선행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운동의 천하지대본은 일심단결이며 일심단결의 기초는 혁명적동지애라는 단결의 원리를

내놓으시고 혁명적동지애로 혼연일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동지는 곧 제2의 나이며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을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관이였다. 일찌기 아버님으로부터 동지획득에 관한 고귀한 사상을 유산으로 넘겨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동지를 얻고 그다음에 무기를 얻으시였으며 동지들을 묶어세워 당조직을 내오시고 동지들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을 전개하시였다. 조선에서의 첫 당조직이였던 《건설동지사》의 명칭에는 생사운명을 같이할 동지를 찾아내고 묶어세워 조선혁명을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동지관이 반영되여있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애는 그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과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켜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대오를 일심단결된 운명공동체로 만든 정신적원천이였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결사옹위의 위대한 정신력, 이것은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절정이였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다 뚫고나가게 한 무비의 원동력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의 불패성의 근본원천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왜 강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리로 뭉쳐진 집단이였기때문라고 대답을 하군 한다, 우리의 단결이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순수 사상의지의 공통성만으로 이루어진것이였다면 우리는 그처럼 강할수 없었을것이다, 오로지 충성과 의리로 결합된 사상의지적단합이 있어 우리는 강적을 타승할수 있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될 때 15년이 아니라 20년, 100년이라도 적과 싸울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전체 인민을 다 자신의 동지로 여기시고 끝없이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은 그 폭에 있어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광폭적인것이였으며 그 열도에 있어서 명실공히 태양에만 비길수 있는 뜨겁고 열렬한것이였으며 그 지속성에 있어서 세대에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과 믿음이였다.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대가 조선로동당마크속에 거연히 솟아올랐을 때 로동계급의 당들전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지식인, 로동자, 농민과 하나로 뭉쳐 로동계급의 당의 한 성원이 되였다는것은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1930 년대초에 어느 한 나라의 철학자는 지식인은 각이한 계급의 대표자들이 그들을 파견한 계급의 리익에 따라서 모든 가능한 그루빠들을 형성하는 사상적의회와 흡사하다고 하면서 전체로서의 인테리의 계급적특성을 운운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달리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런 또는 저런 계급에게 복무하는 사회의 중간층으로서의 지식인들의 사회적처지를 중시한것이였다.

사회의 중간층,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을 개척한 맑스와 엥겔스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한 레닌과 쓰딸린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규정한 지식인의 사회적지위였다. 선행한 혁명의 수령들이 사회적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지식인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단순히 그들을 투쟁에 인입하거나 리용하며 극상해서 《배려하는 정책》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것은 바로 지식인들에 대한 허물수 없는 인식에 기초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서 지식인들의 처지와 그들의 동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그들모두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수 있는 동지로, 혁명의 주체를 구성하는 한 성원으로 선언하시였다. 세상에 지식인이 속해있지 않는 당은 없지만 자기 당마크에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을 새겨넣은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밖에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특출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믿음의 세계에는 떠나간 혁명동지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고결한 혁명적의리도 있고 한생토록 찾고찾으시던 유자녀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보다 먼저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던 친어버이의 사랑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거기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한 전우의 생각으로 어린이들의 설맞이공연이 끝나는 길로 몸소 가정방문을 하여주신 위대한 동지의 사랑도 있고 희생된 한 농장의 관리위원장이 가슴아프도록 추억되시여 그의 고향으로 지나가실 일이 생길 때마다 굳이 먼길을 에돌아 현지지도의 길을 달리시던 눈물겨운 사랑의 길도 새겨져있다. 참으로 그 어느 혁명보다 복잡다단한 길을 헤쳐오면서 천층만층으로 각양각색이던 조선인민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안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만물의 생명을 일으켜 대자연의 조화를 이룩하는 하늘의 태양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모두를 자신의 동지로 삼고 이 땅에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펼쳐가신 그 력사적인 나날은 조선인민모두가 수령의 두리에 혼연일체로 굳게 결속된 력사적인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폭우가 쏟아지는 만수대언덕에서 옷을 벗어 화환에 씌우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서있는 대학생청년들을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였다.

그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내리는 날 만수대언덕에서 보신 대학생들의 모습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이번 애도기간에 우리의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공고한가 하는것이 힘있게 시위되였는데 이런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놓으신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세계각국의 수반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저명한 인사들과 평범한 인민들로부터 수많은 선물들을 받으시였다. 국제친선전람관으로 불리우는 묘향산의 웅장한 집에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품들이 빠짐없이 전시되여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인민들에게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곁에 남겨두신것은 다만 한장의 사진뿐이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불변의 세계, 혁명동지들의 사랑의 세계를 담고있는 한장의 사진은 식민지망국노의 처지에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그토록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밑천이 바로 혁명동지였음을 눈물겹게 확증해주고있다.

혁명적동지애와 혼연일체,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것이 다 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한장의 사진이 담고있는 력사적의미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에게 남기신 유산중의 최대의 유산이며 유훈중의 최대의 유훈이다.

인민의 힘을 혁명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전환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대중동원력에서 기본은 인민대중의 정신력의 발동이다.

언제인가 조선을 방문한 서방의 한 기자는 인민을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무한한 힘을 발휘하도록 이끄시는 주석각하의 령도예술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근본을 둔 새로운 령도예술이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동원력의 본질적특징에 대한 이 평가는 지금까지 대중을 발동하는데서 보편적방법으로 적용되여온 외부적작용에 의한 방법의 제한성과 그에 비한 인간의 내적힘, 정신력발동의 절대적우월성에 대한 공정한 인정에 기초하고있다.

국제혁명운동사를 살펴보면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중시하고 그것을

발양시키기 위한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당들의 노력들을 찾아볼수 있다.

사회주의 10 월혁명을 수행하던 시기에 로씨야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레닌이 제시한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혁명적구호에서 무한한 정신적힘과 용기를 얻고 투쟁에 일떠섰다. 중국공산당은 간고하게 수행한 2 만 5 천리장정에서 《북상항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광범한 중국인민들의 민족적의분을 폭발시켰고 홍군병사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켜 승리를 가져왔다. 쏘도전쟁시기 히틀러의 마지막아성이였던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에 붉은기를 꽂은 쏘련군 사단장은 회상록에서 정치적방법으로 군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킨것이 최후의 승리를 마련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였다고 썼다.

장구한 인류력사가 기록하고있는 이러한 정신적앙양기의 무수한 갈피속에서도 단연 특출하게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 힘, 참다운 정신력의 발동으로 스러져가던 한 나라를 일떠세우고 옹근 하나의 시대를 진감시킨 위인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조선혁명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들에 조선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이 거세차게 분출된것이다.

조선혁명에서 불굴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탄생한것도 일제의 전대미문의 폭압이 절정에 달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였고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전환적국면이 열린것도 전쟁의 운명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정신이 높이 발양된것도 조선혁명에서 가장 준엄하였던 1950 년대였으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의밑에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진시킨것도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였던 1960 년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에서 특징적인것은 례외없이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진공적인 사상공세, 정치사업공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무장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나가시던 시기 적극적인 무장투쟁로선에 기초하여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을 제시하시여 인민들에게 항일투쟁의 뚜렷한 목표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해방후에는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인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시여 건국의 초행길을 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전쟁시기와 복구건설시기를 거쳐 혁명과 건설의 중요시기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성된 정치정세와 중요문제들을 환히 알도록 하시고 련이어 전투적인 구호들을 제시하시여 전국이 들끓게 하시였으며 전체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분발시키시였다.

조선인민의 정신력의 근본바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조선인민이 지닌 정신력의 모든 내용들은 주체사상을 출발점으로, 원천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주체사상교양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시면서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켜오시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을 운명개척의 가장 옳바른 행로에서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20 세기의 력사속에서 전진해온 조선혁명의 특징은 경제와 군사, 과학과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발전속도가 비상히 빠른것이였다.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 그 기적적인 속도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전군중적운동, 전인민적운동으로 이룩되였다.

항일혁명대전은 전군중적인 무장획득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고 새 조국건설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시작되여 증산경쟁운동과 문맹퇴치운동, 애국미헌납운동과 군기기금헌납운동으로 이어지며 줄기차게 전진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태여난 《나의 고지》운동과 복수기록운동, 《민청호》무기쟁취운동과

전선원호미헌납운동은 수많은 영웅들을 낳으며 승리의 날까지 계속되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과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에는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과 돌격대운동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낳았다.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시기에 이르러서는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가 타올랐다. 조선혁명의 기적적인 력사는 이렇듯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자랑찬 로정으로 길이 이어졌다.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가장 우월하고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최대로 도모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최대로 발양시키는 조선의 대중운동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인민대중의 위력한 사회주의운동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에도 로동계급의 당들이 대중운동으로 이룩한 성과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쏘련에서의 대중운동은 주로 사회주의경쟁운동이였다. 공산주의토요로동과 쓰따하노브운동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1919 년 모스크바-까잔철도기관구의 15 명의 공산당원들이 레닌의 호소에 호응하여 무보수로동으로 전개한 공산주의토요로동으로 대중적경쟁운동의 시초가 마련되였다. 쓰따하노브운동은 1935 년 돈바쓰탄전의 한 로동자가 종래의 기준량을 10 배이상 초과한것을 계기로 하여 벌어진 사회주의경쟁운동이였다.

그러나 이 운동들의 발단과 확대과정이나 결과를 살펴보면 그것들은 다 일정한 시기 생산력발전이나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것들이였다. 공산주의토요로동만 보아도 쏘련에서는 그것이 1940 년대이후에는 중요한 기념일이나 뜻깊은 날을 계기로 해서만 진행되였다. 그 대중운동들이 지향하는 전략적목표는 사실상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첫 대중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조직전개하고 이끌어오신 모든 대중운동들은 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로 철저히 지향된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해방후 첫 시기에 조직전개된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3 대혁명의 시작을 선언한 대중적운동이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 인민대중속에 새로운 민주조선의 주인다운 정신과 풍모, 도덕과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상개조운동이였다면 증산경쟁운동은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술경제적과업을 제시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이였으며 문맹퇴치운동은 문화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대중운동이였다.

천리마운동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대중교양운동,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경제, 문화건설에서 혁신을 이룩하도록 하는 기술개조, 문화개조운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단계에서는 대중운동을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명명하시고 이 운동을 3 대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혁명적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힘을 발동시켜오신 현지지도는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개척하고 실천하신 가장 위력하고 인민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

현지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령도방법으로서 인민대중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승리를 안아온 근본요인의 하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겁게 교시하신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끊임없이 인민들을 찾으신 현지지도의 한평생이였다. 오늘도 조선인민이 뜨겁게 외우는 《인민행렬차》, 바로 여기에 언제나 인민을

찾아 걷고걸으신 수령님의 한평생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이 그대로 담겨있다. 현지지도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수령님고유의 대중지도방법이며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의 본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로선과 정책을 구상하고 작성제시하시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오늘도 조선인민의 심장속에는 쇠물이 쏟아지는 용해장과 착암기소리가 울리는 막장들, 씨앗이 움트고 낟알이 익는 농장벌들과 눈내리는 최전선에서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지울수 없이 깊이 새겨져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의 소박한 생각이나 귀속말도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에 담으시는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수행하여 여러 농촌들과 제강소, 전기공장, 곡산공장에 나가보았던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그때 들으시였던 농민들의 소원, 그때 료해하신 공장실태가 토지개혁법령과 산업국유화법령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의 법령들에 그대로 반영된데 대하여 감격에 넘쳐 이야기하군 하였다.

오늘 조선의 그 어디에 가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사적을 전하는 현지지도사적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그 사적비들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당 단위를 찾으시여 맡고있는 혁명과업의 중요성과 수행방도를 비롯하여 대를 이어 명심하고 지켜나가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교시들이 불멸의 글발로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현지지도를 통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사업은 그 어떤것이든 구체적인 혁명과업수행과 밀착된 현실적인것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해 회고하시며 수령님께서는 10 대의 어린시절에 벌써 사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서 박사가 되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만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끌어당기는 강한 친화력, 만사람의 리성을 일시에 거머쥐는 강한

설득력, 천만의 심장을 한꺼번에 불태우시는 강한 선동력, 이것은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수령님의 정치가적능력이고 매력이였다. 이 위인적인 능력은 그것이 인민들속에서 그들의 혁명과업수행과 하나로 결합되여 발휘된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힘과 열의를 남김없이 폭발시키는 거대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이 일하는 곳 어디에나 찾으시여 그들과 생사를 함께 하시였다. 불비쏟아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병사들이 싸우고있는 곳에 나라고 왜 못가겠는가고 하시며 최전방전호에까지 나오시여 전사들을 한명한명 뜨겁게 포옹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지 3 달도 안된 어느날엔가는 험준한 산골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발전소를 찾으시여 위험하다고, 못들어가신다고 앞길을 막는 일군들을 만류하시며 천정과 벽에 고압선이 줄줄이 늘어져있고 지하수까지 흘러내려 감전될 위험이 있는 굴속으로 서슴없이 들어서시였다. 제강소에 가시여서는 2 000℃의 고열로 타번지고있는 로앞에서 서시여 불길을 내뿜고 불꽃이 튀는 그속에서 로동자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였고 광산과 탄광을 찾으시여서는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찾아 몸소 광차와 탄차를 타시고 아찔한 지하갱막장에까지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분명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정치예술이였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가장 위대한 인간,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체질화된 생활방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근 50 년동안 인민들속에서 보내신 시간은 그 절반에 달하는 근 24 년의 기나긴 세월, 8 650 여일을 이루고있다. 이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발자취를 다 이어놓으면 그대로 이 나라의 지도가 된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력사에는 현지지도라는 말자체가 없었다. 한생을 인민들속에서 산 령도자는 더우기 없었다.

어느해인가 꾸바의 이전 피델 까스뜨로수상이 예고도 없이 아바나의 조선대사관을 찾아온적이 있었다. 지방으로 지도사업을 나가던 길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기록영화를 보고싶어 들렸다는것이였다. 그날 까스뜨로수상은 새벽 3 시가 지나도록 여러편의 기록영화들을 보고나서 감동을 금할수 없어하며 **김일성**동지의 령도방법은 모든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모범이다, 부르죠아정객들이라는것은 군중앞에서 연설이나 한두번 하면 다지만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은 그렇게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 그러자면 힘이 들고 바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적인 령도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사회관리전반에 완전무결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주체의 사회관리체계와 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주체 48(1959)년 12 월전원회의후 몸소 대중지도의 새로운 사업방법을 창조하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연 15 일간에 걸쳐 청산리와 강서군당위원회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는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지도의 기본방향과 원칙들이 체계화되여있다. 그 내용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나라의 살림살이와 인민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며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원칙에서 당적, 국가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 사회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도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주체 50(1961)년 11 월 당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2 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12월 대안전기공장을 찾으시여 그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지배인이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행사하는 지배인유일관리제와는 달리 모든 사업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되며 그 과정이 곧 근로대중자신의 광범한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여기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그것이 광범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근본원리를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비단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로서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전반을 관리운영해나가는 사회관리체계로서 보편적의의를 가진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을 두고 그것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관계를 확립한데 못지 않은 사회개조분야에서의 거대한 혁명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던것이다.

3. 민족의 어버이

1) 민족재생의 은인

조선민족은 민족의 원시조 단군에 의해 성스러운 민족사를 시작해온 이래 자기의 높은 존엄과 강대성,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여온 슬기로운 민족이였다.

그러하던 조선민족이 민족의 옳바른 령도자를 못만난탓에 사대와 굴종으로 시들다가 20세기초엽에는 끝내 망국의 비운을 들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수난을 당하게 되였다.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이러한 조선민족에게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었으며 반만년 민족사의 새

전기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오늘 조선인민이 자기를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이라고 당당히 말하게 되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조선민족의 력사가 위대하고 성스럽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자주의 넋을 안겨주시였으며 불패의 당과 천하무적의 강군,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민족의 억년재보로 마련해주시였다.

훌륭하고 강직한 애국가문, 혁명가문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체현하시면서 위대한 애국자, 혁명가로 성장하신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실 때부터 귀에 익혀 들으신것은 애국이였고 인생에 두고 살아야 할 목표로 배우신것은 다름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년시기 동심세계에 잠기기보다 일제침략자들의 간악성과 그들에게 수난당하는 민족의 설음과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체험하시며 애국의 신념을 굳혀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7 살 되시던 해인 주체 7(1918)년 6 월 조선국민회사건으로 평양감옥에 체포되신 아버님을 면회가시였을 때 수많은 총구와 키높은 담장, 철조망으로 뒤덮인 감옥과 일제교형리들에 의해 아버님의 몸에 생긴 상처를 보시면서 악마와도 같은 일제에 대해 끓어오르는 의분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8 살 나시던 해인 주체 8(1919)년에는 3.1 인민봉기에 참가하시여 나라와 인민을 도륙내는 야수들의 칼부림과 무서운 폭압의 총칼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조선민족의 불굴의 기개를 절감하시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몸바쳐 싸우려는 비장한 마음을 간직하시였다.

부모님을 따라 중강과 중국동북지방으로 가실 때에도 망국민의 설음과 함께 왜놈들이 살판치는 세상에 대한 경멸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조선의 망국사를 부모님들에게서 들으시며 나라찾는 투쟁에 한생을 바칠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였으며 14 살의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시였기에 20 성상이라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추호의 동요없이 헤쳐넘을수 있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 없는 거룩한 위인적풍모로 하여 당년 10 대의 나이에 벌써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과 기대가 담긴 《태양》의 성스러운 존함을 받아안으신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

한 민족이 자기가 낳은 걸출한 위인들에게 안겨주는 호칭에는 참으로 많은 뜻과 의미가 담긴다. 하지만 세계위인사의 어느 갈피를 헤쳐보아도 한 민족이 자기의 지도자에게 그를 받든 첫 시기에 벌써 성스러운 《태양》의 존함을 드리고 다함없이 흠모하고 높이 받들어올린 례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조선인민으로부터 받으신 《태양》의 존함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이끌어주실것을 바라는 조선인민,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 깃들어있었다. 그와 함께 여기에는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을 지니신 민족의 령도자를 태양처럼 받드는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혁명활동의 길에 나서신 때 청년지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혁명가들과 독립운동자들, 인민들은 조선의 앞길을 밝히는 별이

되여주실것을 념원하여 《한별》, 《일성》의 아호를 드리였으며 다시 태양에 비기는 이름인 《일성》이라는 존함을 드리였다.

혁명시인 김혁은 조선민족이 숭앙하는 위인을 칭송한 노래 《조선의 별》을 지어 보급하였다. 이 노래는 중국 만주는 물론 국내와 바다건너 일본땅에까지 파급되였다. 이 사실은 당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높이 모시려는 조선인민의 심정이 얼마나 열렬했으며 수령님의 위인다운 인품이 얼마나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켰는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며 웨치는 조선민족의 환호와 격정은 1930 년대와 1940 년대 전반기를 거쳐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높이 울리였다.

항일의 나날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설적인 위인상을 《백두산정기를 한몸에 지니신 겨레의 구세주》, 《백성들에게 만복을 가져다주시는 하늘이 낸 성인》으로 칭송하며 가지가지의 전설들을 수많이 창조하였으며 인민가요 《백두산의 장군별》 등 노래까지 지어불렀다. 그런가하면 항일유격대원들과 조선인민들은 《**김일성**대장은 만민의 태양이시다》, 《만민태양 광복령수 **김일성**대장 만세 조국광복 만세》, 《자자손손 받들자 절세의 영웅 **김일성**대장》 등 수많은 혁명적구호문헌들을 국내는 물론 중국 동북지방 여러곳의 천고밀림의 나무들과 수림지대들에 력력히 아로새겨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에 안고사는 조선동포모두의 가슴에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강대하고 포악한 제국주의침략자와 맞서 15 성상 피어린 무장투쟁을 벌려 30 대에 민족재생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민족의 영웅중의 영웅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남다른 특수성과 력사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로선과 방침, 투쟁방략에 이르기까지 민족해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독자적으로 사고하시고

확정하시였다.

민족해방구호를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수령님은 그 어떤 세력들의 압력과 전횡속에서도 조선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혁명가들의 신성한 권리를 견결히 고수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을 명실공히 민족해방을 목표로 한 민족적위업으로 굳건히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주체 21(1932)년 4 월 25 일 조선민족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포악하고 강대한 일제와 정면으로 맞서 피어린 유격투쟁을 벌리시였다.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대원들의 높은 사상정신력과 령활무쌍한 유격전술을 승리의 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안기시며 조국해방의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지니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군민일치의 고귀한 기풍을 창조하시여 항일유격대가 국가적후방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지원이 없는 속에서도 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게 하시였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유격대의 생존방식이고 활동원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의 독립투쟁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철저히 자력갱생의 길이라는것을 확인하시고 유격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힘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유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각종 무기들을 자체의 힘으로 수리하고 벼려냈으며 연길폭탄과

나무포같은 무기들까지도 제작하였다. 그 나날속에 줄칼로 재봉기바늘을 만들어 600벌의 군복을 만들어낸 불굴의 일화들도 생겨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개시하시면서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독립성업의 근본전제로 내세우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성스러운 조국해방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해방운동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나라를 해방하자면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 즉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물론 종교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에 이르기까지 반일적인 사상을 가진 모든 애국력량을 반일의 기치아래 굳게 결속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에 기초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주체 25(1936)년 5월에 창립하시였다.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에 전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주체 34(1945)년 8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합세하여 이미 국내에 조직되여있던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은 전국각지에서 일제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소탕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렸으며 진격해오는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일제는 최후공격이 개시된지 한주일도 안된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지 않을수 없었다.

주체 34(1945)년 10월 14일 평양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이룩해주신 민족의 영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그날 삼천리강산을 진감시킨 그 열광적인 환호는 성스러운 민족해방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영영 숨져가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에 대한 전인민적감사의 폭발이였다.

2)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준 민족적영웅

민족자주로 건국성업 실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인민에게 주체의 건국대강을 제시하시여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자주적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되여 재생된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국가가 나아갈 앞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비록 민족적독립은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발전의 길에서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으며 다시금 렬강들의 롱락물로 굴러떨어지는 운명을 면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4(1945)년 8 월 20 일 군사정치간부들의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에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 조선민족이 새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건국로선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우리앞에는 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오직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에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조선인민의 손으로 이룩한것처럼 새 조국건설도 그 누구의 손이 아닌 바로 자기의 손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남의 식이 아닌 자기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자주적립장이 뚜렷이 반영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건당, 건국, 건군의 3 대과업을 제시하시고 이를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체할수 없이 관철해야 할 긴급하고도 중대한 혁명임무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인 새 조국건설로선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단결시키고 그 단합된 힘으로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그 기본방도로 제시하시였다.

주체 80(1991)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고 하시면서 나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인민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호소하였다고, 우리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자주적인 새 조국건설로선에 기초하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지체없이 건당, 건국, 건군의 3 대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조선인민에게 참다운 민족적자주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이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할수 있는 당을 창건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새 조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기본담보도 통일적인 당을 창건하는데 있다고 보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리론의 제시로부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전과정에 당을 어느 특정한 계급만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모두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하는 정치적향도자로 건설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관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당창건원칙은 자주성의 원칙이였고 그 방식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광범한 대중속에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온 토대우에서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모든 준비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4(1945)년 10 월 5 일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를 거쳐 10 월 10 일 평양에서 력사적인 당창립대회를 여시고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의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조선인민의 자주적리익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 탄생하게 되였으며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주체 38(1949)년 조선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따라 북과 남에 존재하던 로동당이 합당하여 전체 조선민족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이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 지식인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 붓을 뚜렷이 새겨넣도록 하심으로써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우에 민족자주적인 정권을 세워주심으로써 조선민족을 자주권을 자기 손에 당당히 틀어쥔 자주민족으로 세계정치무대에 당당히 내세워주시였다.

해방직후 주권문제를 둘러싸고 나라의 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이한 주의주장이 란무하고 첨예화되는 남조선정세와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 지체없이 북반부에 인민의 정권을

세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인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기 손으로 지방주권기관들을 세우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북조선의 모든 지역들에서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여 자기의 활동을 시작한데 기초하여 주체 35(1946)년 2 월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립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새형의 민주주의적인 정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민족자주의 인민주권아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의 식민지노예화책동으로 남조선이 또다시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있는 조건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하루빨리 수립하여야 할 절박성을 느끼시고 헌법과 국기, 국장을 제정하도록 하심으로써 공화국창건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토대하여 주체 37(1948)년 8 월 북남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에 기초하여 주체 37(1948)년 9 월 9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수반, 내각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조직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유일한 합법적국가의 탄생이였으며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자주권의 실제적인 대표자이며 철저한 옹호자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총대를 강화해주심으로써 자주권을 틀어쥔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조선인민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담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원을 창립하시고 수상보안대를 창설하신데 이어 륙해공군의 모체부대들과 각 기술병종부대를 조직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고 자체의 병기공업을 창설하신데 기초하여 주체 37(1948)년 2 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인민주권의 확고한 무력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지난날 총대가 없어 망국의 비운을 막아내지 못하고 피눈물만 흘려야 했던 력사의 교훈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수 있게 되였으며 강력한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자기의 자주적발전의 길에 더욱 확고히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수천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의 새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개혁을 통하여 조선을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인 주인이 되여 자기 손으로 자기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의 나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개혁으로부터 민주개혁의 봉화를 추켜드시고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시고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과 문화, 사법검찰제도를 세워주시였다.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켜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숭고한 사랑에 감동된 조선인민들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불길속에서 애국미헌납운동, 애국적증산경쟁운동, 로동영웅운동 등 다양한 건국운동과 생산돌격운동을 벌리면서 나라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번영의 터전을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해방된 조선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나라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가는 동방의 첫 민주의 나라였다.

자주민족의 넋과 기풍의 확립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인민에게 그 어떤 물질적재부에 비길수 없이

고귀한 민족자주의 위대한 정신을 심어주시고 조선식으로 살아나가는 투쟁기풍을 확립해주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인민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조선의 미래를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을 심어주시려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개선연설에서 해방된 조선의 주인은 바로 우리 조선인민이라고,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그들에 의하여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조선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새 조선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명시해주신 건국사상과 로선이 발표된 첫 순간부터 전체 조선인민을 크게 격동시키고 새 조선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될수 있었던것도 거기에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함이 없이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여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데를 찾으시여서나 공장과 농촌, 광산과 어촌 등 조국의 모든것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조선의 근로대중의것이며 문화인들은 새 조선의 문화전선의 주인, 청소년들은 미래의 조선의 주인공이라고 격조높이 주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는것과 함께 오래동안 조선인민의 정신령역에 남아있던 사상적오물을 완전히 청산해버림으로써 온 나라에 민족자주정신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해주시였다.

민족의 존엄의식을 허물어버리는 가장 해독적인 사상경향은 민족주체의식을 마비시키는 사대주의와 그로부터 산생되는 민족허무주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에게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을 넣어주시는데서 강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된것은 주체사상이였다.

주체사상은 모든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자면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고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 국방건설문제나 문화건설문제, 대외활동문제에 대하여 교시를 주실 때에도 언제나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해나가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철저한 자주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사대와 교조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투철한 자주의 신념과 의지, 강한 자주정신을 가지게 되였다.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거창한 사회적변혁들이 성과적으로 완수된 비결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천리마운동과 같은 전인민적대중운동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라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려 짧은 력사적기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던 비결도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민족자주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한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투쟁실천을 통하여 민족자주적으로, 조선식으로 살아나가는것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기질, 기풍으로 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우시는 자기 식, 조선식의 투쟁기풍에는 민족의 운명은 철저히 자기 민족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민족중시의 철학, 애국애족의 철학이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장하신 자기의 투쟁방식, 조선식은 결코 시대적추세를 무시한 자기 주관이 아니며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민족의 자주적리익의 구현이다.

나라마다 민족적특성이 있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생활감정과 풍습이 같지 않은 조건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꼭같이 들어맞는 유일한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의 기치, 조선식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이 세상에 만능의 힘이 있다면 오직 자주적인 사상정신과 그에 의하여 높이 발휘되는 자기의 힘뿐이다.

돌이켜보면 남들이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고 기계로 산업을 발전시키며 번영을 이룩해나갈 때에조차 갓쓰고 하늘소를 타고다니던 너무나도 가난하고 뒤떨어진 조선민족이였다. 그러하던 조선민족이 남들이 수백년동안 이룩한 번영을 반세기 남짓한 력사적기간에 이룩하고 오늘은 세계강대국들과도 당당히 어깨를 같이하며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칠수 있게 된 근본비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투철한 민족자주의 정신력을 안겨주시고 실천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조선인민의 고유한 투쟁기풍으로, 기질로 억세게 키워주신데 있었다.

참으로 혁명과 건설의 전과정에 조선식, 자기 식이라는 위력한 투쟁방식으로 조선인민을 무장시키고 조선식으로 력사의 만난시련을 뚫고 민족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공적은 조선민족사에서 남의 식을 끝장내고 주체식을 철저히 확립한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민족존엄의 위대한 수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으로 내세우시고 조선민족을 해치거나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지배주의자들, 제국주의원쑤들을 한번도 용서한적이 없으시였으며 조선민족을 깔보고 우롱하려는 그 어떤 지배와 간섭행위에 대하여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였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나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찾은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3 년간의 엄혹한 해방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조선전쟁시기 특파기자로 활동한바있는 로씨야의 한 인사는 쏘도전쟁이 대군과 대군사이의 전쟁, 련합국과 동맹국사이의 전쟁이였다면 조선전쟁은 《세계제패》를 꿈꾸는 대군과 엊그제 태여난 군대와의 전쟁, 련합국세력과 청소한 일개국사이의 보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였다고 썼다.

강의한 자존심과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언제나 성스러운 애국성전의 최선두에 서시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로 일관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기의 폭격으로 다리가 끊어졌을 때는 근방에 있는 철교를 넘으시였고 싸우는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고무해주시였으며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몸소 전선작전을 진두지휘하시였다.

그 나날속에 적들이 《불퇴의 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계선에서의 강행도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대전포위작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되였으며 락동강도하가 단행되여 한달 남짓한 사이에 적들을 대구, 부산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고 남반부전지역의 90%이상을 해방하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게 되였다. 또한 1211 고지가 영웅의

고지로 빛나고 조국의 촌토가 목숨처럼 사수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족, 애민, 애국의 신념으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전선형편이 불리해져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진행되였을 때 일부 비겁분자들은 압록강을 넘어가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압록강을 건느실수 없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침략자들과 이 땅에서 기어이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민족수호자로서의 신념과 의지, 꺾을수 없는 자존심을 굳게 간직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불굴의 애국신념, 드놀줄 모르는 강철의 의지에 고무된 조선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이 강의한 정신력과 정치사상적우세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거둔 빛나는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구상하시고 그 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을 교정으로 다시 부르는 명령을 내리시고 기술인재들을 전선에서 소환하거나 외국류학을 보내도록 하시였으며 과학자대회를 소집하고 국가과학원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오직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지니신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세계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전설이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싸우는 조선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으며 민족의 존엄으로, 더없는 긍지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전행정에서 주체식의 탁월한 전략과 전법을 창조하시고 능숙하게 적용하심으로써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 완전히 짓부시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신 탁월한 령장이시였다.

당시 적들이 조선전쟁에서 적용한 모든 전략과 작전, 전술들은 다 서방세계에서 수많은 침략전쟁을 통하여 《명성》을 떨친 수십명의 《책략가》들과 악명높은 호전《장군》들이 달라붙어 짜낸것들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주체식의 독창적인 전략과 전술로 그 모든것을 여지없이 격파하시였다.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전과정에 언제나 급변하는 군사정치정세와 그 발전추이,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적의 행동성격, 적들의 약점과 전선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꿰뚫어보신데 기초하여 전쟁의 전략적계단들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시고 매 계단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정확한 투쟁방침들, 싸움에서 적용할 독창적인 전법들을 명철하게 제시하시였으며 전선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작전과 전투들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예로부터 사랑을 백병의 효험, 하늘을 얻는 열쇠, 죽음도 이기게 하는 제일무기라고 했다.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화선휴양소를 개설운영하도록 하신 이야기며 적의 포위에 든 전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 전선에 걸쳐 긴급대책을 취하신 이야기며 3 살난 어린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무장한 대원들을 적구로 파견하는 비상조치를 취해주신 이야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병, 애민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이 사랑의 전설은 그대로 전쟁승리를 위한 기적을 안아왔다.

사상과 정신력에서도 따를수 없고 전략전술과 도덕적측면에서도 견줄수 없는 조선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의 위력앞에 적들은 무서운 공포에 질렸다.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대의 가장 으뜸가는 명장,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명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시였으며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서의 위인상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수십년간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적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민족의 존엄을 견결히 지켜주고 빛내여주시였다.

조선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절대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코 평화를 구걸하지는 않는다, 다른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뿐더러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이 침해당하거나 유린될 때에는 주저없이 용감히 떨쳐나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에게 안겨주신 민족적자존심이고 혁명적전쟁관점이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에 이어 또다시 기여든 간첩비행기 《EC-121》을 단방에 격추시켰으며 무수히 감행된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들의 불장난을 제압분쇄하였을뿐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과녁으로 하여 벌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매해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투철한 민족적자존심과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반제대결전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결과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의 대표자이시고 수호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조선은 견결한 자주의 강국으로 온 세상에 그 위용을 과시할수 있었다.

인민에게 안겨준 민족제일의 긍지와 자부심

오늘 조선인민, 조선민족이 간직하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무적의 군력을 가진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사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며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에게 안겨주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서 더없이 귀중한것은 조선사람, 조선민족으로 태여난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이며 옛날부터 외래침략자들과 력대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용감하고 패기있는 민족이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능있는 민족이라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하는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인민으로서의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더욱 높이 간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각계각층 인민들로 하여금 조선사람으로 태여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는 해방된 조국땅에 울려퍼진 《애국가》에도 어려있고 전화의 나날 평양시 교육간부양성소 교원, 학생들에게 해주신 뜻깊은 담화에도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용감성, 문명성과 직결된 숭엄한 사상감정이며 조국강산의 아름다움과 귀중함과도 련결된 특이한 사랑의 감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을 특이하게 깊이 간직하신분이시기에 늘 그 누구를 만나시여도 조선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강조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고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주심으로써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 떨쳐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 000 여년의 조선민족사를 주체적견지에서 바로 정립하여주시였다.

그때까지 조선민족이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선민족의 발생, 발전행적이 선명하게 정립되여있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문들이 적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이 되자 지체없이 조선민족의 력사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자신이 직접 이 사업을 틀어쥐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이 과정에 조선민족사는 과학성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재평가되고 옳바로 해명되게 되였으며 조선민족은 유구한 민족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문명하고 존엄높은 민족이라는것이 온 세상에 뚜렷이 실증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족의 시원문제에 과학적해명을 주심으로써 조선민족이 사는 이 땅이 인류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1950 년대까지만 하여도 조선력사학계의 일부 사람들은 인류발생의 초시기로 불리우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는것을 근거로 조선에는 구석기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웃나라에서 구석기시대를 거친 사람들이 신석기시대에 이 땅으로 이주해와서 살았다고 인정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록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선에 구석기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연구를 심화시키고 발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들도 몸소 취해주시였다.

하여 조선이 인류발상지의 하나, 조선사람의 발원지이며 인류문화의 발원지라는것을 확증할수 있는 귀중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수많이 발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의 기원문제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으로 연구분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력사학자들은 조선사람에 대한 인류학적징표와 문화적특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조선사람은 명실공히 본토기원의 단일한 민족이며 조선민족은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원시사회의 모든 발전단계를 다 거쳐오면서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이룩한 우수한

민족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민족말살책동과 력대반동사가들과 대국주의사가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외곡되였던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찾아주시여 전설로만 전해오던 반만년의 민족사를 과학으로 뚜렷이 확증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학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빛나는 예지와 심오하고 풍부한 지식,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지난 시기 연구된 자료라 하더라도 단군을 고증하는데 실마리로 될수 있는것이라면 자그마한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조사발굴대를 여러곳에 파견도 하시며 발굴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하여 여러 력사책들의 기록과 단군신화를 통하여 얻은 결론과 고고학적발굴을 통하여 고조선시조왕의 생존시대를 밝힐수 있는 출로를 찾아냈으며 단군이 평양일대에서 태여나 나라를 세웠다는것이 정설이라는 증거를 가지게 되였고 주체 82(1993)년 단군릉발굴이 진행되여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방의 강대국이였던 고구려의 건국년대도 바로잡아주시였으며 고려태조 왕건에 대하여서도 주체적립장에서 재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연구에서 철저히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제정신을 가지고 지난날 외곡된 모든 력사적사실사건들도 옳바르게 대하고 평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지난날 정설로 되여오던 안악 3 호무덤 벽화의 주인공문제, 단군릉기적비주변의 돌사자문제 등 수많은 력사문제들이 조선민족의 리익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해명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발전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것으로 하여 력사학자들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의 유구한 민족문화유산이 조선민족사에, 인류문화사에 귀중한 재보로 찬란히 빛을 뿌리게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을 떠나서는 그 민족의 지나온 력사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서도 론할수 없다는 견해와 관점을 지니시고 조선인민이 이룩해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지키고 빛내이시려 그 누구보다 마음써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숭고한 애국의 일념으로부터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몸소 이끌어주시여 조선에서 민족문화유산보존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의 애국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확고한 견해와 립장은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민족문화에는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 생활감정, 인민의 우수한 재능이 반영되여있으며 이러한 민족문화유산들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지체없이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맡아보는 국가기구를 내오고 력사유적과 유물을 발굴하여 보존하며 평양시를 비롯한 각도소재지들에 력사박물관을 건설하고 전국의 력사유물을 수집하여 국보로 등록하며 력사유적과 유물이 있는 곳에는 다른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각지의 절간들까지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시였다.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조선인민이 이룩한 민족의 우수한 유산들을 다 찾아내며 그것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국립예술단체가 조직되고 국립음악학교가 창립되였으며 국립곡예단과 건축가동맹이 조직되여 민족의 우수한 문화예술과 건축술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다 찾아주고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적들을 아무런 손상이 없이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서울해방을 위한 총공격을 새날이 밝은 다음에 개시하도록 하신 사실과 류실소각될번하였던 귀중한 문화유산인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최고사령부에 보관하도록 하신 전설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나라의 형편이 몹시 어려운 조건에서도 파괴된 력사유적들을 원상복구하도록 하시고 많은 고전문학작품들과 의학서적들을 수집, 정리, 번역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의 시조왕릉들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더욱 찬란히 빛내이기 위하여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깡그리 다하신 민족의 어버이이시였다.

3) 민족번영의 사회주의의 령도자

사회주의를 민족자주위업으로 전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선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되여가던 주체 47(1958)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회의에서 제1차 5 개년계획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이 민족의 장래번영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는것을 명백히 선언하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ㅌ.ㄷ》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닻을 올리던 력사의 그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해방을 이룩한 다음 민족의 자주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혁명의 목표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실 때부터 일떠세우시려 구상하신 사회는 애국, 애족, 애민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온 겨레의 민족적리익과 번영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리론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원리를 구현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리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공산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및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로정, 공산주의건설강령으로서의 온 사회 주체사상화방침,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철저히 구현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갈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원칙,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로선, 사회주의정치방식에 관한 리론 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철저히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중시하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리론이다.

주체 72(1983)년 6 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있던 뻬루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대표단을 만나주시고 주체사상이 맑스주의를 기계적으로 본딴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사상이라고 리해하고있다는 그들의 말을 긍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맑스가 쓴 책에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씌여있지 않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혁명의 수행방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을 하는데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을 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것이다, 이밖에는 다른 공식이 있을수 없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였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과정에도 그러하시였지만 특히 조선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기성의 리론이나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조선혁명의 요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지난 세기말 세계사회주의운동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태와는 대조되게 승승장구해나가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참모습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표대는 들었어도 모든 민족성원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전민족적위업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옳바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는것이 실천으로 뚜렷이 증명되였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운동에서는 그 계급적원칙을 지키고 계급적단결을 이룩하는 문제가 주로 강조되였을뿐이며 민족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기의 개인적소신을 표명하는 정도로 이야기되였을뿐이다.

일찌기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주의에 대하여 옳바른 해명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혁명투쟁에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의 관계를 빛나게 해결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강조하신 교시가 있다.

혁명은 민족을 위해 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모든것을 민족중시의 각도에서 고찰하시는 그이의 특이한 혁명관점이 있다. 모든 혁명투쟁은 민족을 위해서만 필요하며 또 가치를 가진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민족애에 기초한 혁명에 대한 관점의 근본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리익우에 어떤 계급이나 당파의 리익이란 있을수 없고 민족을 등진 그 어떤 영웅도 결코 진정한 영웅이 될수 없으며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심연도 장벽도 뛰여넘지 못할것이 없다는 불변의 관점을 가지고 민족과 혁명의 호상관계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시였다.

민족중시의 사회주의사회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참답게 실현해주는 애국, 애족, 애민의 새 사회가 일떠서고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로 확고히 결합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고수발전시켜 민족적특색이 적극 장려되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방략의 하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생명으로 내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로 조선의 구체적현실과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정서에 맞게 정치생활과 경제생활이 진행되여올수 있었으며 조선민족의 특색을 살려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었다.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적, 봉건적문화와 사상, 생활인습을 철저히 청산하며 참다운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를 강령에 명백히 밝혀넣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을 철칙으로 내세워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 문학예술, 체육, 생활양식 등 모든 문화분야에서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현대적미감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이야말로 민족성의 참다운 계승발전으로 된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어분야에 큰 관심을 돌리시여 민족성을 살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면서부터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리고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우수한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조선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말과 글이 외래어와 한자말의 범벅말, 혼탕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하시고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체육발전에도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민족정통의 고려의학을 적극 장려발전시키고 문학예술분야에서 민족성을 특색있게 살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식주생활분야에서도 민족적특색을 한껏 살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 47(1958)년 8월 23일 몸소 옥류관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터전을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9(1960)년 8월 13일에 민족적정취가 흘러넘치는 조선식건축물에 그 이름도 **《옥류관》**이라고 친히 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수십여차례에 걸쳐 옥류관을 현지지도하시고 친히 국수맛까지 보아주시며 인민들에 대한 봉사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손수 풀어주시였다.

오늘 옥류관에서는 평양의 자랑이며 민족의 자랑인 평양랭면, 고기쟁반국수, 쟁반국수를 비롯하여 소갈비국밥, 평양어죽, 록두지짐 등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만들어 조선인민들과 외국사람들에게 훌륭히 봉사하고있다.

주체 89(2000)년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과 그의 일행이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을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남조선사람들속에서는 평양랭면이 대인기음식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 42(1953)년 4 월 5 일 제 55 차 군사위원회에서 평양시복구건설의 기본방향을 밝히시면서 평양시를 복구건설하는데서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본축을 보존하면서 보통문, 대동문과 같은 전통적인 조선식건물과 새로운 현대식건물을 잘 배합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평양시에는 전후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평양대극장과 인민문화궁전을 비롯한 문화예술, 봉사기지들과 주요한 건축대상들이 조선식건물로 훌륭히 솟아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름답고 우수한 민속을 귀중히 여기고 더 활짝 꽃펴나게 해주시려 조선민족의 넋이 반영된 생활문화를 적극 살려나가도록 누구보다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오늘 조선식사회주의가 애국에 리념과 정을 둔 모든 조선사람들의 진정한 조국으로 되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사회에 민족의 참된 넋이 거세차게 살아숨쉬고 민족적인 모든것이 중시되여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기때문이다.

민족의 리상이 꽃핀 참다운 사회 건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는 인민들의 정치적권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며 유린하는 그 어떤 사회악도 없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입니다.》

장구한 인류력사는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사회건설을 지향하고 탐구해온 력사적과정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 력사의 흐름속에서 동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리상사회, 리상국가를 꿈꾸어왔다.

조선민족뿐아니라 동서양의 각이한 민족들이 그려본 리상사회형태들에서 공통적인것은 인간존중의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평등사회에 대한 갈망이였다.

그 념원을 담아 사회주의쏘련이 리상사회건설의 첫 돛을 올렸다. 하지만 현대수정주의의 책동으로 20 세기 마지막년대에 이르러 쏘베트사회주의가 붕괴되자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하다면 인류의 그 리상은 과연 꿈이였던가.

이 세기적물음에 대답한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오신 조선식사회주의의 현실이였다.

세상사람들이 보게 된 조선식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다운 인간존중의 사상,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시고 주체사상의 요구를 일관하게 구현해오심으로써 이룩된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사람,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자신의 지론에 구현하신 인민의 탁월한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은 곧 하늘이였고 《하느님》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지론이 사회주의건설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된 결과 마침내 력사에 류례없는 리상적인 인간존중, 인민존중의 사회가 일떠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 인민대중의 인격과 가치를 최대로 높여주는것을 제도적으로 법화하도록 하시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자주적인간의 권리와 의무,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신성하게, 가장 철저하게 규제하고있는 자주적인간존중의 대법전이다. 여기에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공민이 누릴수 있는 권리가 가장 평등하게, 가장 리상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정책과 로선, 사회적시책들을 철두철미 사회성원들의 리익과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공포하고 인민자신의 손으로 철저히 시행해나가도록 하는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민족의 념원을 꽃피워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행복의 요람속에서 세세년년 복락을 누려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생활을 통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오직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명절날, 휴식날이란 따로 없으시였으며 지어 1 년중의 단 하루인 탄생일을 쇠시는것도 허용되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같은 정력으로 한평생을 변함없이 인민행렬차를 타고 달려오실수 있은 사상정신적요인은 바로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행복의 락원에서 살려는 민족의 념원을 반드시 풀어주시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신데 있었다.

지난 혁명운동력사에는 위인들이 자기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먼길을 걸은 일화들이 없지 않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오로지 인민을 찾아 떠나신 걸음을 한평생 멈추지 않으시고 수천수만리길을 이으신 례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보내신 불면불휴의 낮과 밤, 바치신 사색과 심혈은 그대로 조선인민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적인 사회주의적시책으로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이 차례지도록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조선인민은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쓰고살 걱정뿐아니라 치료받을 걱정, 배울 걱정까지도 모르는 행복한 인민으로 삶을 누리게 되였다. 그 행복속에 1960 년대부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정녕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으로 한걸음한걸음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사회주의조국은 행복의 보금자리, 영원한 삶의 요람이다.

조선인민은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쉽게 누릴수 없는 복중의 복들을 받아안으면서 이 만복을 낳은 복을 《수령복》이라고 칭송하며 수령복은 오직 조선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복이라고 긍지높이 자부한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날마다 더해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에 불타는 애국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맡은 초소와 일터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참으로 인민복을 타고났다고 뜨겁게 교시하군 하시였다.

인민들은 수령복을 노래하고 수령은 인민복을 타고났다고 자부하는 복이 넘치는 사회, 복이 복을 낳는 사회가 다름아닌 조선의 사회주의이다.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담보 마련

조선식 사회주의가 그처럼 위력하고 생명력있는 사회로 만사람의 찬탄을 받고있는것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사회라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설해놓으신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과 불패성은 전체 인민이 하나로 일심단결된 사회라는데 있다.

일심단결은 조선의 사회주의의 존재와 발전의 생명선이며 그 불패성의 원천이다.

세월의 모진 비바람에도 산정에 거연히 서있는 억센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은 땅속깊이 뻗어나간 그 뿌리를 생각하게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불패의 보루로 만드는 힘의 원천을 다름아닌 일심단결에서 찾고있다.

오늘은 일심단결이라는 말이 조선의 참모습, 본질적특징을 표현하는 날말로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져있지만 그것은 결코 순탄한 과정속에서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꽃펴난 일심단결의 전통을 항일혁명대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후에는 당의 조직사상적단결을 실현한 기초우에서 그것을 온 사회의 통일단결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첫발을 들여놓으시면서 인민들을 민주주의기발아래 하나로 묶어세워 새 조선을 건설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기업가, 종교인 등 각이한 계급계층의 인민들을 만나시여서도 민주주의기발아래 하나로 굳게 뭉칠데 대하여 격조높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통일단결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혈연적뉴대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신 위인이시였다.

혈연적뉴대에 기초한 공고한 일심단결,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수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조선의 사회주의이다.

조선의 사회가 오늘과 같이 혈연적뉴대속에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근본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동지 한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존재였다. 그래서 항일의 그날부터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세상재미라면 자신께서는 동지 한사람을 알게 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령도를 하고 령도를 받는 관계이기 전에 혁명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전우이며 한집안식솔이라는 숭고한 인간관계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이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어느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다 베풀어주신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 정으로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의 구호밑에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

실로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 온 사회가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바로 여기에 일심단결의 사회로서의 조선의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를 건설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인상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법칙으로부터 군사력강화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일찍부터 군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이시였다.

자위의 원칙을 내세우고 군력강화를 제일로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있어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오늘 강국건설의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가진 생명력있는 불패의 사회주의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생활력있고 공고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시여 부강번영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조선에서 전후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중공업의 우선적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건설로선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선택되게 된것은 자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축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에 기초한것이였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어 조선은 세계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압력이 도수높게 가해지고있으며 세계경제파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 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줄기차게 추진시켜올수 있었다.

4) 조국통일의 구성

조국통일의 위대한 경륜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오신 첫 시각부터 가슴깊이 간직하신 의지이고 신념이였다.

망국의 설음안고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조선독립의 맹세를 다지실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슴에 안으신 조국은 하나의 조선이였지 분렬된 두개의 조선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의 등잔불을 추켜드시고 비쳐보신 조선의 지도도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였지 결코 두동강난 조선이 아니였다.

해방직후 민족분렬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우던 그때에 벌써 민족의 분렬을 막지 못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후대들까지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통일의 길을 모색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들이 더 늙기 전에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임무를 절대로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며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온갖 정력을 쏟아부으시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과 뜻은 그이의 한생을 관통한 인생관이였고 체질화된 신념과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쏟아부으시였다.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부터 높이 추켜드신 신념의 구호이며 통일의 기치였다.

인민에게 조국통일을 선물하시려는 크나큰 소원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간직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제 2 차 범민족대회가 준비되고있던 시기인 주체 80(1991)년 8 월 1 일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나는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조국통일의 과업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화합을 이룩하는 문제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천명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통일문제는 그 성격에 있어서 조선민족내부문제,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며 조선민족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실현하여야 할 전민족적위업이라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과학적평가로부터 조국통일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사활적이고도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선다는 력사의 결론을 내리시였다.

주체 85(1996)년 11 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 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조국통일의 3 대기둥, 3 대헌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에 기초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 대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초석을 반석같이 다져놓으시였다.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립장이자 출발점이며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평화통일원칙은 조선반도의 분렬이 안고있는 전쟁의 위험성과 이를 제거해야 할 민족적, 시대적요구에 따라 제기되는 절박하고 중대한 통일문제해결의 중요방도이다. 그리고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원칙은 조국통일이라는 지향과 목표아래 전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행동지침이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 대원칙을 제시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불후의 공적이며 조선민족에게 남기신 가장 귀중한 통일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 대원칙에 기초하여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민족통일전선강령인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실현의 현실적로정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의 모든 계급과 계층, 당파들이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국가건설방도를 밝혀주고있는 통일대강이다.

새로운 통일방안에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이 예견되여있다.

련방국가의 국호도 조선에 존재하였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이름을 붙인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과

함께 쌍방이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련방이라는 국가결합방식과 공화국이라는 국가정치체제를 반영하고있다.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로서의 련방국가창립을 총적목표로 제기하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단결의 리념적기초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을 단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있다.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족의 본성과 조국통일의 본질, 수십년간의 분렬로 하여 산생된 정치적, 사회적문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민족통일전선강령, 정치련합강령이다.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투철한 자주적, 애국애족적립장과 온 겨레의 념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민족단합과 민족번영의 대강령, 대헌장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 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민족자주정신과 조국애, 민족애가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수도 규정할수도 없는 통일리정표들이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겨레는 세월이 흐를수록 조국통일 3 대헌장이 가지는 거대한 민족사적의미를 더욱 절절히 인식하고있으며 이 불멸의 통일대강, 3 대헌장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운동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반세기를 헤아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투쟁사는 그이께서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조국통일의 기관차를 쉬임없이 그리고 줄기차게 몰아오신 투쟁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온 민족의 통일열망을 반영한 자주적인 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며 원쑤들의

분렬주의로선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심으로써 적들의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는 현명한 령도로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남조선인민을 해방하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도록 전민족을 각성시키고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고 조국통일을 촉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으로 민족적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속에서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에 기초하여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련이어 내놓으시였다.

공화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정책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인식을 주었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국제회의들에서 광범한 여론을 불러일으키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 의해 주체 60(1971)년 9 월 20 일부터 주체 61(1972)년 8 월 11 일까지의 사이에 25 차례에 걸치는 쌍방적십자단체 예비회담과 13 차의 쌍방실무자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적십자회담과는 별도로 주체 61(1972)년 5 월초에는 첫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평양에서 마련되였다. 이 력사적인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의하여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리념이 그대로 반영된 력사적인 7.4 북남공동성명이 채택되는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거대한 정치적사변이 이룩되게 되였다.

7.4 북남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특히 북남협상방침이 가져온 훌륭한 열매였다. 북남고위급정치회담과 공동성명의 발표는 통일운동을 북남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높이에서 이끌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주체 80(1991)년 12 월 력사적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대화협상사상과 숭고한 포옹력이 안아온 력사적승리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에 기초하여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통일제안들을 련이어 내놓으시며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이끌어오신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구성이시였다.

통일을 위해 바친 위대한 한생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였다. 민족의 단결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자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지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독창적이고도 폭넓은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에 벌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의 통일전선체에 묶어세울것을 결심하시고 이를 위하여 주체 38(1949)년 6 월 전조선적인 통일전선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시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북과 남의 70 여개의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된 전민족적애국력량의 총집결체로서 북과 남의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된 통일전선체가 아니라 북남 전지역을 포괄하는 전민족적애국력량의 통일전선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을

확고한 의지로 간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동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 37(1948)년 4 월 평양에서 분렬력사상 첫 력사적인 회합이며 첫 민족회의인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진행되였다.

5 월 2 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동강의 쑥섬에서 북남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북남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협의회를 가지시고 5.10 단선을 저지시키고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위한 당면한 투쟁대책을 토론하시였다.

쑥섬협의회는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하여 합의를 본 사실상의 전조선정치협상회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종일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인사들과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대화를 나누어야 민족대단결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으로부터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협상을 위한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이러한 투쟁과정에 1970 년대에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접촉과 협상들이 진행되고 북과 남사이에 첫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으며 1980 년대에 새로운 합리적인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층 민족성원들의 폭넓은 접촉과 래왕, 대화실현을 위한 투쟁이 보다 적극화되였다. 북남사이에 여러 갈래로 진행된 접촉과 래왕, 대화와 협상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민족대단결과 통일실현에로 힘있게 지향시켜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사는 해외동포들에게 조국방문의 보다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공화국북반부동포들과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해외동포들을 따뜻이 맞아 그들이 북과

해외의 련대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이 과정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서 1981 년 11 월 3 일부터 6 일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신자간의 회합이 진행된데 이어 1982 년 12 월 핀란드의 헬싱키와 1984 년 12 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제 2 차, 제 3 차대화들이 진행되였다. 특히 제 3 차대화에서는 북과 해외동포력량사이의 련합을 위한 비상설협의체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련합이 결성되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러한 긍정적변화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대회를 소집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 79(1990)년 8 월 15 일, 마침내 조국해방 45 돐, 민족분렬 45 돐이 되는 이날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범민족대표들이 비록 한자리에 모여앉지 못하게 된 조건에서도 판문점과 서울에서는 같은 시각에 같은 안건을 가지고 동일한 일정에 따라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력사적인 회합인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온 겨레의 크나큰 관심속에 대성황리에 막을 열게 되였다.

드디여 주체 79(1990)년 11 월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이 민족앞에 결의한대로 상설적인 전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된데 이어 주체 81(1992)년 8 월 15 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이 결성되고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산하조직들이 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여러 지역들에 조직되게 되였다.

북, 남, 해외의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속에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투쟁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요구와 국제정치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이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저지파탄시킴으로써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동적인 조치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73 년 9 월부터 개막된 유엔총회 제 28 차회의 제 1 위원회에서는 공화국대표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나라 대표들의 힘있는 지지성원에 기초하여 7.4 북남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면서 미일반동들이 내놓은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일축하고 유엔남조선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것은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표결없이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그런가하면 1975 년 유엔총회 제 30 차회의에서는 적대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문제해결에 관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반영한 43 개국 공동결의안이 제 1 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압도적다수의 찬성표로 가결되였다.

이 공동결의안의 기본내용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것, 이와 관련하여 조선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정전협정의 실제적당사자들에게 호소한다는것, 조선의 북과 남이 북남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하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것을 담보하는 실제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켜나가기를 요망한다는것 등이였다.

1980 년대말－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자들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변질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여 유엔에서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조선의 영구분렬을 위한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기어이 성사시켜보려고 공공연하게 책동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조건에서 유엔에 공화국이 먼저

가입하도록 하는 중대결단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조치에는 유엔에 남조선이 단독으로 들어가 조선문제를 《해결》받아 민족의 영구분렬을 고착시키자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저지파탄시키고 변천된 정황에 맞게 조국통일투쟁에서 계속 주동을 틀어쥐고 분렬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부터 생애의 전기간 130여개 나라의 연 7만여명의 외국인사들과 만나 사업하시였다. 여기에는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물론 자본주의나라들 지어 적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인사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에게 조선통일문제의 본질과 조선인민의 조국통일투쟁의 정당성과 생활력, 통일조국의 전망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주체 59(1970)년 한해만 하여도 제3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회의와 국제기구들에서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하는 200여건의 각종 련대성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대세의 흐름속에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 련대성집회 등이 광범히 벌어졌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호소에 따라 1979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 세계 128개 나라와 31개의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들에서 10억 8 000만명이상이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의 통일에 얼마나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족분렬의 기본장본인인 미국당국과의 협상투쟁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심으로써 조선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적극적인 조미협상방안에 의해 공화국과 미국간의

회담은 드디여 주체 82(1993)년에 막을 올리였으며 주체 83(1994)년 10 월에는 력사적인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는 력사적사변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미국대통령이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라는 존칭까지 정중히 붙여 담보서한을 보내오고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으로 세계는 끓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숭고한 민족애로부터 출발하시여 해외교포운동발전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립장에서 해외교포문제는 철저히 민족문제의 한 고리이며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여야 한다는것, 이로부터 해외교포운동은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위업에 공헌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비록 다른 나라 땅에서 살고있어도 조선사람의 피줄을 타고난 해외동포들은 어데까지나 조선민족이며 따라서 마땅히 민족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것이 해외교포문제를 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장이였다.

해외교포운동을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커다란 힘을 넣으신것은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세계각지에 해외교포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여 동포들을 조국통일대오에 하나로 튼튼히 결속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따라 주체 44(1955)년 5 월 25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되고 결성대회에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독립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하여》라는 조직활동방침이 채택되였다.

총련결성을 시발점으로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을 본보기로 해외교포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해외교포들의 투쟁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아메리카와 유럽지역, 독립국가협동체지역, 중국에 사는 조선해외교포들은 주체적해외교포조직의 전형인 총련을 본보기로 하여 이미 있던 자기들의 산발적인 조직들을 재정비하거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진보적단체들을 새로 내오고 그것을 범교포적인 조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갔다.

이 과정에 1970 년대—1980 년대에 아메리카, 유럽, 일본 등지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하여 촉진위원회, 연구회, 국민전선, 국민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회, 자주통일추진회, 조국통일촉진회, 협회 등의 명칭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진보적단체들이 결성되였다.

자본주의세계에 사회주의보루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들의 교포조직이 무어져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통일애국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된 력사적현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는 경이적인 화폭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교포조직활동에서 동포들이 자기의 주의주장을 조국의 통일번영이라는 민족적대의에 복종시켜 모두가 굳게 단결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일관하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로고가 있어 세계각지에는 공화국의 위력한 해외교포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여나고 그 두리에 광범한 동포대중이 결속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구상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자기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따뜻한 손길로 7 000 만겨레를 한품에 안아주고 통일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

오로지 민족중시,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적대의를 앞에 놓으시고 애국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뜨겁게 안아주고 삶을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광폭의 사랑과 믿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폭과 깊이, 뜨거운 열도를 가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성스러운 통일실현의 길에 한몸바친 사람들일수록 더 뜨거운 믿음을 주고 그들모두에게 민족성원으로서의 가장 값높은 삶, 영생하는 삶을 안겨준 뜨거운 사랑의 품이였다.

오늘 평양시교외에 있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운 수많은 통일애국렬사들이 고이 안치되여있다. 그들 한사람한사람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고 높이 내세워주신 애국자들이였다.

멀리 떨어진 자식생각으로 잠못 이루는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부모의 심정에도 비길수 없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해외에 흩어진 겨레모두를 한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세워주고 고귀한 삶을 안겨주시려 누구보다 마음을 쓰시였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이 되여서부터 해외동포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들을 조국에 데려오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시고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들이 언제든지 조국에 올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마련해주시였다.

어버이의 그 사랑속에 주체 48(1959)년 12월부터 세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격찬한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배길이 열리고 수많은 재일조선동포들이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에 파견되는 대표단과 일군들에게는 물론 만나시는 해외교포조직일군들과 해외동포들에게도 조국에 오고싶어하는 동포들을 조국은 언제나 환영한다는것을 모두에게 전하도록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조국을 더 잘 알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 늘 강조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인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이게 되였다.

위대한 생을 바쳐 열어놓은 통일의 밝은 전망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그렇듯 위대한것으로 될수 있은것은 다름아닌 온 민족의 운명을 말아안고 민족을 위하여 불면불휴한 한생이였기때문이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다 바치신 거룩한 한생이였기때문이였다.

1990 년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80 고령을 전후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년세에도 지난 시기보다 더 완강히, 더 정력적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조국통일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자신께서 기수가 되여야 하며 더우기 분렬의 심연이 더욱 깊어가고있는 현조건에서 그 전환적국면은 다름아닌 자신께서 열어야 한다고 깊이 생각하고계시였다.

사실 이 시기 전민족적인 통일대화를 마련하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과 같은 범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도록 하시였으며 북남대화를 성공시키시여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게 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을 발표하여 온 민족을 대통일전선에 묶어세우시였으며 조미협상의 타결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의 길을 개척하시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통일사절들을 직접 만나주시여 그들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같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절세의 애국위인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거대한 민족사적문제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미협상을 실현하고 남조선의 당국자와 직접 통일대화를 진행하는것이 1990 년대를 조국통일의 년대로 되게 하는 전환적돌파구라고 결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탁월한 정치지략에 의하여 드디여 주체 81(1992)년 4 월 미국의 빌리 그라함목사가 조선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다는 클린톤대통령의 구두편지를 가지고 조선에 찾아오게 되였으며 결과 지난 시기 그렇게도 열려지지 않던 조미협상의 문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3(1994)년 4 월 16 일 미국 《워싱톤 타임스》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미국에 우리는 평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려든다면 우리도 자위권을 행사하여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수 없다는것, 우리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침해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결심과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미국정부는 다시 협상의 길에 나오지 않을수 없었으며 1994 년 6 월에는 전직 미국대통령이였던 지미 카터가 대통령 클린톤의 특사와 같은 자격으로 서울과 판문점을 거쳐 평양에 찾아오게 되였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터를 너그럽게 맞아주시고 그와의 담화에서 조미사이의 대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였다.

카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협상방안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조미사이의 얼어붙은 얼음을 깨는 선구자가 되겠다는것을 다짐하였다.

이후 미국이 조미회담에 다시 응해나옴으로써 조선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조미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미회담과 함께 북남협상의 전선도 펴시고 원숙한 정치실력과 뛰여난 령도수완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결정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문이 열리던 첫시기부터

최고위급회담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로고를 바치시였다. 남조선에 이른바 《문민정권》이 나온 다음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이 립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터에게 자신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대범히 교시하시면서 북과 남사이의 최고위급회담을 하려면 통일방안을 가지고 서로 마주앉아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는 자기의 통일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북남최고위급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회담,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시기 위한 회담으로 되여야 하며 따라서 최고위급회담은 마땅히 자기의 명백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대원칙을 합의보아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담과 관련하여 견지하신 근본립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넓으신 도량으로 지난날 극단한 우익민족주의자, 반공적이던 인물들을 만나시여 민족을 위한 길로 이끌어주신 경험으로부터도 만약 남조선당국자가 아무리 민족을 등지고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선민족의 자그마한 얼이라도 있다면 민족통일에 대한 제의를 외면하지는 못할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선민족의 비극적인 분렬력사에 마흔아홉번째의 년륜이 새겨지던 주체 83(1994)년 7 월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끝없는 로고에 의하여 분렬력사상 처음으로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예견되게 되였다. 이것은 온 민족에게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대한 가슴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소식이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런 획기적인 회합의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국통일의 그날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저명한 인사인 문익환목사도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며 완료형이라고 탄성을 올렸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순간도 휴식할수 없으시였고 일손을 놓으실수 없으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해 하루를 열흘, 한시간을 열시간맞잡이로 일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사업일과, 생활일과였다. 자신께서 더 분투하신다면 그만큼 통일의 대문은 한시간이라도 더 빨리 열수 있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각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의 마지막시기의 통일령도와 더불어 영원히 잊을수 없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주체 83(1994)년 7 월 7 일, 바로 그 전날에 경제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고 밤을 꼬박 밝히시며 부피두터운 통일문건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과로 정해주신 아침산책시간마저 잊으시고 사색을 거듭하시였다.

일군들이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에야 깊은 사색에서 깨여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시더니 **김정일**동지가 짜준 일과이니 무조건 지켜야지만 오늘은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빨리 완성하고 **김정일**동지와 의논을 해야 하겠다고, 그러니 오늘만은 산책시간을 어겨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 문건이 바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될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력사적인 문건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게 될 북남최고위급회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면서 력사적인 문건을 완성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구에 도래할 조국통일의 날을 그려보시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의지를 담아 활달한 필체로 **《김일성 1994. 7. 7.》**이라고 써넣으시여 력사적문건을 종결하시였다.

사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장병과 눈수술로 하여 안정치료를 하셔야만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을 위해 이처럼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였던것이다.

그런데 주체 83(1994)년 7 월 8 일 새벽 2 시, 천만뜻밖에도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건을 옆에 놓으신채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대국상이였으며 겨레의 통일운동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보상할수 없는 최대의 상실이였다.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을 위해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던 조선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신채 너무도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시였다.

조국해방 50 돐을 앞두고 판문점 통일각앞에는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고동까지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의 마지막친필을 형상한 조국통일친필비가 불멸의 기념비로 정중히 건립되였다.

주체 85(1996)년 11 월 24 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현지시찰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앞에 뜨거운 눈물을 머금으시고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크나큰 격정을 누르시며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비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에는 수령님의 강의한 통일의지와 신념이 함축되여있고 조국통일에 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가 응결되여있다. 그것은 자신이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로고와 무한한 헌신에 대한 고귀한 증표이며 그 친필을 아로새긴 친필비는 조국통일의 길에 한생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공적비이다.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바치시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혁명업적은 민족분렬의 비극사를 끝장내고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서 영원불멸할 초석으로 된다.

4. 희세의 령장

1) 주체의 군사사상의 창시자

독창적으로 창시한 주체적군사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군사사상은 새로운 력사적시대인 자주시대에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창시된 전혀 새로운 군사사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제국주의강적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군사의 영재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자주시대가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의 군사사상을 창시하고 발전풍부화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10 대후반의 그 시기부터 수십성상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현대전쟁사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거대한 군사적승리를 거두시였으며 그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을 창시하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사상리론가로서의 명성은 20 세기 30 년대부터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그이의 절대적권위는 세상사람들 지어 적대세력들도 공식인정한것이였다.

1990 년대 중엽 미국의 군부, 국무성, 정계, 학계는 어느 한 계기를 통하여 조직한 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현대정치사의 가장 출중한 위인》, 《보기 드문 군사대가》로 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강적들과 맞서 혁명전쟁을 벌려나가시면서 제국주의자들과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되며 오직 강력한 군사적힘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기시고 주체의 군사사상에 그대로 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총칼을 가지고 덤벼드는 원쑤들과는 총칼로 맞서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시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총대로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것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여 혁명의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것도 다 제국주의강적과는 반드시 힘으로 맞서야 하며 총대만이 제국주의침략과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다는 진리를 굳게 확신하시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한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침략자들을 때려부셔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히신것도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전에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을 선포하시면서 유격전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전쟁이라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전후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전체 인민을 국방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여 적들의 침략과 도전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국주의강적들과 벌리는 혁명전쟁의 실천속에서 찾으시고 정립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신력과 전략전술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일제침략군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적들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였다.

혁명군대의 정신력과 전략전술을 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기묘한 전략전술과 전법을 능숙히 활용하는것과 함께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강적들과의 혁명전쟁시기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수호를 위한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면서 주체의 군사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속에서 제국주의의 군사적침략위협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언제든지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잘하며 적들의 사소한 침략전쟁도발책동에도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데 대한 혁명적인 사상도 주체적군사사상과 리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구려가 1 000 년동안 동방에서 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칠수 있은 요인은 바로 군사를 중시하는 상무기풍을 세운데 있었다고 가르치시면서 군사를 중시하고 전체 인민이 군사를 배울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잘할데 대한 군사사상을 지침으로 하였기에 조선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정치사상적준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고 전시생산과 수송준비를 원만히 갖추었으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함으로써 그 어떤 침략자들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세계전쟁사를 새롭게 분석총화하고 그 기초우에서 독창적인 주체의 군사사상을 창시하신 영재이시다.

지금까지의 전쟁사를 통해 나온 군사사상리론들을 더듬어보면 례외없이 그것은 무기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된 군사사상리론들이였다. 지난날 절대다수의 군사사상가들이나 군사령관들은 무장력구성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무기가운데서 무장장비를 절대화하는 《무기만능론》, 《무기중심론》에 집착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선행한 군사사상리론의 제한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전쟁을 비롯한 모든 군사문제를 사람, 군인대중을 기본으로 하여 보는 독창적인 주체의 군사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론에 기초하여 선행한 군사리론들을 새롭게 분석총화하고 그 토대우에서 주체의 군사학설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그 어떤 군사사상리론적문제를 고찰하시면서 교조를 단호히 배격하시고 언제나 자주적으로, 독창적으로 사색하고 탐구하시는 군사사상리론가의 귀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유격전에 관한 사상리론만 보아도 여기에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그이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다.

지난 세기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유격전을 정규전의 보조적인 투쟁형태로만 보아왔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나라에서의 무장투쟁의 기본형식문제에 대하여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면서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무력건설과 관련하여 내놓으신 현대적인 군종, 병종건설에 관한 리론은 주체의 군사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에도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조선의 지형조건과 군인들의 체질과 기능적인 특성에 맞게 조선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관점과 창조적인 사색이 력력히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에서의 전쟁경험을 연구분석하시면서 혁명군대에 당조직들을 내오고 그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가지는 의의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와 정치를 완전무결하게 결합시키고 군사행정사업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도록 혁명적령군체계를 세우는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조선인민군을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지지 못했던 강력한 당조직, 정치조직을 가진 정치적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전쟁경험과 교훈을 총화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의 전쟁리론도 새롭게 집대성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엄혹하고 간고한 조건에서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100 만의 일제관동군과 맞서 장기간 싸워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의 하나가 바로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그를 전쟁승리의 항구적요인의 하나로 뚜렷이 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활하고 탐욕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통하여 그 본질과 수법을 규명하시고 주체의 전쟁론을 더욱 풍부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시기 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전쟁들과 사건들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작고 약한 나라에는 거리낌없이 덤벼들고 큰 나라에는 조심스럽게 맥을 보면서 덤벼드는것이 자본주의,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본성이며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라는것,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전쟁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고 침략자들과 견결히 투쟁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군사전법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인류의 전쟁사는 곧 군사전법의 발전력사이다. 인간의 창조적지혜의 산물인 군사전법은 주로 전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작전과 전투의 승패도 중요하게 전법의 과학성과 령활성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0(1951)년 1 월 어느날 인민군대지휘성원들에게 물론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배워야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데 대하여 비유법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사할 때 어떤 나라 사람들은 포크와 칼로 먹고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긴 저가락으로 먹는다, 우리는 밥과 국을 먹기때문에 칼이나 포크로 먹으면 입을 상할수 있고 먹기도 불편하다, 그러니 우리는 숟가락과 저가락으로 먹는것이 제일 좋다고 교시하시면서 전쟁을 하는것도 매한가지라고, 그러니 싸움도 반드시 우리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릴데 대한 새로운 군사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전군적으로 《나의 고지》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관한 독창적인 모든 사상과 리론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전쟁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제시된것으로 하여 자주시대의 최고봉의 군사사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현시대 군사문제에 준 완벽한 해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군사원리와 원칙, 군사리론, 주체전법으로 구성된 주체의 군사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군사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군사사상의 출발적원리는 한마디로 말하여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람, 군인대중이 기본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주인은 사람, 군인대중이며 군사문제해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도 사람, 군인대중이라는것이다.

주체의 군사사상의 원리로부터 무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사람, 군인대중으로 보는 새로운 견해와 관점이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기나 그 어떤 물질기술적수단보다도 사람,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먼저 보고 일제와의 싸움을 시작하시였으며 일본의 강대한 군사력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때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의 군사력에 대비가 될수 없었지만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하나와 같이 일떠선 2 천만민중의 힘에 의하여 일제와의 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국을 해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서 해야 할 일들이 헤아릴수없이 많았지만 평양학원부터 먼저 세우시고 혁명무력의

핵심골간들을 키우신것도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사상혁명수행에 중심을 두도록 하신것도 다 무장력건설에서 사람, 군인대중을 기본으로 보는 새로운 견해와 관점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0 년대에 밝혀주신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육성할데 대한 사상 역시 사람, 군인대중을 무장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보는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군사사상의 원칙은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자위의 원칙이다.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에 관한 사상은 그 어느 고전이나 군사대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내놓지 못한 새로운 국방력건설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를 옹호보위하려는 인간의 자주적본성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자위의 원칙에 관한 군사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국방건설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견지할뿐아니라 자위의 원칙에서 자체로 자기를 지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방에서의 자위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방을 건설해나가는 군사사상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국방건설은 결코 남에게 의존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 물론 외부로부터 효과적인 원조를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의 원조가 아무리 크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매개 나라의 주체적인 힘을 절대로 대신할수 없다. 중립국가의 경우에도 자체의 힘, 자위적국방력이 있어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지난 시기의 실례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사상의 원리와 원칙이 사람들에게 군사문제에 대하는 견해와 관점, 립장과 태도를 명시해준다면 군사리론은 그에

기초하여 무력건설과 전쟁수행, 령군예술의 활용 등 군건설과 군사활동과 관련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에 관한 종래의 모든 리론들을 분석총화하고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현시대의 전쟁의 실제적본질과 근원, 성격, 그 주되는 세력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본질에 있어서 어떤 계급이나 국가가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하여 실행하는 정책의 연장이라고 하시면서 그 성격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 선진계급들의 전쟁과 반동계급들의 전쟁, 계급적, 민족적억압에서 해방을 가져오기 위한 전쟁과 이 억압을 공고화하기 위한 전쟁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침략전쟁은 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제국주의의 전쟁상인들도 인정하는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인 근원이며 제국주의는 전쟁을 떠나서 한시도 살아갈수 없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전쟁의 본질과 특성, 근원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밝히시였다.

혁명전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다. 혁명전쟁의 특성은 그것이 가장 간고하고 치렬한 전인민적전쟁이라는데 있다. 혁명전쟁의 근원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들의 반동적인 사상과 정책에 있으며 그 직접적인 요인은 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의식과 정치적준비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의 요인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지난 시기 리론에서는 전쟁승리의 요인을 항구적요인과

일시적요인으로 구분하고 후방의 공고성과 같은 항구적요인을 결정적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가적후방을 가지지 못한 식민지조건에서 조선인민이 벌린 항일혁명전쟁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혁명전쟁실천은 결코 전쟁승리의 요인이 후방의 공고성과 같은 항구적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현시대의 혁명전쟁은 주체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적으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물질경제적요인에 치우치는 전쟁리론과는 반대로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전쟁을 반대하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인 전쟁관점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쑤들과는 반드시 한번은 싸워야 하며 혁명전쟁, 정의의 전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는 인민대중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는 혁명전쟁으로 맞서야 하며 적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철저한 반제자주적립장, 계급적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한 군사리론을 밝히시면서 주체적립장에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할데 대한 리론을 제시하신 군사리론가이시였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매개 나라와 민족의 국방력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국방건설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바로가지는것이다.

나라의 국방력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야지 남이 건설한 국방력은 그 명맥도 남의 손에 쥐여지게 되므로 그러한 국방력은 자기 나라와 인민의 참다운 자위력으로 되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4(1945)년 8 월 20 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정규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와 선행한 혁명단계에서 마련된 자기의 무력건설의 핵심골간과 전통에 토대하여 자체의 혁명무장력을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인민대중의 힘이 크고 무궁무진하다는것을 누구보다 깊이 체득하고계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위적무장력을 건설하는 거창한 사업도 조선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시였으며 실천투쟁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위력을 건설할데 대한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시였다.

그것이 얼마나 선견지명있고 후손만대를 위한 정당한 선택이며 중대한 결단이였는가 하는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물론 전후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전력사가 명백히 실증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무력건설리론에서 특징적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리론이다.

조선의 혁명무력이 오직 조선로동당앞에 충실하고 오직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한길로 전진하며 당이 쟁취한 혁명의 열매를 보위하며 당중앙위원회를 앞장에서 결사수호하는 명실공히 당의 혁명무장력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고 철석의 의지이며 일관한 혁명무력건설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건설의 운명도 사상에서 찾으시였고 무장력의 위력의 원천도 군인들의 사상에서 찾으시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리론에서 처음으로 제시되고 빛나게 구현되여온 군건설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군리론의 특징은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실현을 근본내용으로 하는 령군리론이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령군리론, 관병이 하나로 뭉쳐 부대지휘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령군리론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군대에 대한 지휘, 령군문제를 혁명적수령관의 원리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고찰하시고 철두철미 혁명무력에 대한 수령의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령군원칙과 령군체계, 령군방법에 관한 리론적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는 군대안에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과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에만 보장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을 부대지휘관리에서의 첫 공정으로, 기본으로 그리고 하나의 철칙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지휘관리에서 군사정치일군들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군인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정치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상관과 부하로 구별되여있으며 군사지휘, 군사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상관과 부하사이의 관계를 상하관계, 복종관계로 보았다.

중국력사에서 군사가로 인정되였던 손무가 오나라의 궁녀들에게 군사훈련을 주었으나 명령에 불복하며 움직이지 않아 지휘관으로 임명된 두명의 상궁의 목을 베서 한순간에 궁녀들을 규률있는 《병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군대안에서 부대지휘관리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일뿐아니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 군정배합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독창적인 주체의 령군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2(1963)년 2 월초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기회에 혁명군대에서는 군관이나 전사나 다같이 혁명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동지들이라고, 웃사람은 아래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아래사람은 웃사람을 존경하고 옹호하면서 상하의 굳은 단결을 보장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부대지휘관리에서 군정배합을 잘해나갈데 대한 주체의 령군리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제시하신 독창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정배합이 인민군대에 대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전군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의 군사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군정배합을 실현해나가는데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깊이 관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침략군대도 타승할수 있게 하는 주체의 군사전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에는 그 조직진행방식에 따라 정규전법과 유격전법이 있는가 하면 그 목적과 규모, 지속시간에 따라 전략적 또는 작전, 전술적의의를 가지는 전법들이 있고 목적과 환경, 양상에 따라 공격전법과 방어전법을 비롯한 전법들이 있는가 하면 력량과 기재의 동원정도에 따르는 전법이 있으며 지형과 주야조건에 따르는 산악전법과 야간전법이 있는 등 실로 다종다양한 전법들이 있다.

주체전법이 지난 시기는 물론 오늘날의 다른 모든 군사전법들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창조되였으며 현대혁명전쟁의 실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이며 완성된 전법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성상 조선혁명무력을 이끌어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을 벌려오시는 나날 혁명군대의 본질적우월성, 혁명군대의 높은 정신력에 기초하여 백전백승의 주체전법을 창조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인매복전법과 야간습격전, 일행천리전술 등 다양한 유격전법과 전술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법들을 많이 창조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전법을 창조하여 인류의 군사전법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2) 총대로 주체혁명을 개척한 절세의 영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말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현대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습니다.》

혁명군대가 민족의 독립의지와 신념의 최고대표자이며 민족해방전선의 주력군이고 혁명의 조직자, 령솔자이라는것, 이것이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보신 혁명군대의 지위와 역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관점과 립장에서 혁명무력건설의 선행이라는 력사적과제를 조선혁명앞에 내세우시였다.

정의의 총대를 강력하게 벼려 그 총소리를 크게 울릴 때 민족의 애국심과 열도 높아진다는 진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군대를 창건하신 얼마후 현실속에서 증명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령솔하시고 보천보로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가 떠들고 온 민족이 흥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무력건설선행의 새로운 길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주체식으로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다.

원래 국권이 없고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마저도 없는

식민지나라에서 자체의 혁명군대를 창건한다는것은 헐치 않은 일이다. 하물며 제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혁명군대를 창건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혁명가들이 안고있던 고충은 더욱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첫 기슭에서 혁명군대를 창건하시면서 그 필수적요소인 사람과 무기문제를 자기실정에 맞게 주체식으로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건될 유격대의 골간을 혁명적실천속에서 키우시는 한편 여러 혁명조직들을 통해서도 육성하시였다. 유격대창건이 박두한 시기에는 단기강습(단기훈련)을 조직하여 핵심골간들을 집중적으로 키우시였으며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주는 경우에도 자기실정에 맞게 싸움에 실지 필요한것을 가르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의 유산인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하여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시였는데 유격대소조와 적위대로 편성된 습격조를 친솔하시고 안도현에 있는 악질지주의 보위단을 불의에 기습하여 10 여정의 무기와 수많은 총탄을 로획하시였다.

무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얼마나 간고하였는가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 만일 어느 문필가가 무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대담성, 림기응변의 기지와 비상한 창발성에 관한 일화들을 종합하여 형상적화폭으로 펼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로 엮어질것이라고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과 함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연길폭탄을 개발해낸 화룡현 수리바위굴병기창은 후날 조선인민혁명군의 믿음직한 무기제조기지, 수리기지로 되여 항일대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체 21(1932)년 4 월 25 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도의 수림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을 가지시고 조선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때로부터 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전과정에 조선인민혁명군을 강력한 정치적군대로 꾸리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며 인민혁명군이 혁명의 중추적핵심력량, 정치적향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자신의 한생의 귀중한 체험과 조선혁명실천에 기초하여 군대생활과정은 하나의 종합대학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뜻깊게 교시하신적이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유격투쟁이 혁명군대원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얼마나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는가 하는것은 주체 27(1938)년말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혁명군이 단행한 고난의 행군과정 하나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쓰시였듯이 고난의 행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것이였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투쟁이 동반되였다.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투쟁이였다. 초보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 나아가서는 적들과 싸워이기기 위한 투쟁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였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 적들을 타승한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한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며 항일혁명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이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과 자애로운 손길아래

조선인민혁명군 장병들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혁명의 핵심들, 정치활동가들이 수없이 자라났는가 하는것은 그들에 의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각성되여 전민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된 력사적사실과 해방후 그들의 핵심적역할에 의해 새 조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모든 력사적과제들이 빛나게 실현된 현실이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회고하신것처럼 김책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은 지난날 그 어떤 정규교육을 받은적이 없었지만 한결같이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대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은 물론 그 어떤 경제과업을 맡겨주어도 능숙하게 해내는 쟁쟁한 정치활동가, 실천가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에 의한 당적령도라는 새로운 혁명령도방식을 창조하심으로써 조선혁명가들은 당창건위업이 완성되지 않은 조선의 조건에서도 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실패와 우여곡절로 가득찬 지난날과 결별하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특히 항일혁명대오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옳바른 방법론이 세워지고 하나의 령도중심,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혁명군대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혁명적무장력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성원들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뿐아니라 인민혁명군에서 발행하는 《종소리》와 《철혈》, 《3.1 월간》과 같은 출판보도물들은 혁명군의 사상과 로선, 방침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반일혁명군중은 하나의 사상적뉴대를 이룩하게 되였으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라는 거대한 민족사적화폭이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여 새 조국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신것은 항일혁명을 통하여 이룩한 가장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주도적력량으로 하여 당건설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심으로써 해방후 건당위업을 완성할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당창건을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정치적참모부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에는 조선혁명의 유일한 령도중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여기에서 항일혁명의 전략과 전술, 당건설의 로선과 방침이 채택되였다.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고 그 어떤 종파주의에도 물들지 않은 순결한 당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나 당창건의 기둥이 되고 선봉투사, 기수가 되였으며 당대렬이 하나의 령도중심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기층당조직으로부터 지역적당지도기관,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된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창건준비사업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에 의거하여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청산하고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역을 창설하신데 이어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의 부정적영향을 가셔내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가밑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유격구안의 모든 곳에서 8 시간로동제를 실시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부락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거지인민들이 리수구와 십리평에 있는 유격구병원들에서 무상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억압속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는 녀성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주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였다. 인민혁명정부가 나누어준 분여지에 말뚝을 박아놓고 꽹과리를 울리며 춤을 추는

농민들의 모습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그리고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펼쳐진 인민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현실은 간도의 불모지에서 조선혁명가들만이 창조해낼수 있었던 세기적인 화폭이며 천지개벽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에 의거하여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새형의 정권을 건설하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로, 밑천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제 1 선에 내세워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원칙과 방식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예작품들을 수많이 창작공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생활문화를 혁명가의 사상문제, 혁명군대의 전투력과 직결시키고 조선인민혁명군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문화를 창조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병실은 물론 위생문화시설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잘 꾸려놓고 생활도 문화정서적으로 윤택이 나게 하였다. 그 진면모는 백두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청봉숙영지에 가보면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오늘 답사자들이 청봉숙영지에 들어서면서 받게 되는 강한 충동은 그처럼 어려운 항일전의 나날 하루밤을 숙영한 장소였지만 손색없이 모든것을 잘 꾸려놓은 알뜰한 솜씨이다. 병실과 우등불자리, 자그마한 샘터까지도 질서정연하고 정갈하게 꾸려놓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생활문화의 면모는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질서가 정연하였고 활기가 있었으며 전투에서 언제나 용맹을 떨칠수 있었다. 항일련군의 지휘관의 한사람이였던 양정우가 늘 조선인민혁명군의 절도있고 생기발랄하고 문화적인 면모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군 하였던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의 주인공들은 항일의

나날에 이룩한 혁명적문화창조의 경험에 토대하여 해방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힘있게 벌려 식민지적이며 봉건적인 온갖 낡은 사상문화를 뒤엎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의 새 화원을 훌륭히 가꾸는데 앞장섰다.

3) 혁명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천하명장

지난 20 세기에 조선인민이 맞선 침략자들은 하나같이 전쟁과 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뛴 제국주의강적들이였다.

하지만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침략자들이건 단호히 맞받아나가시였으며 절대로 용서를 모르고 자비를 모르시였다. 그이앞에서는 당대의 강적이라고 하던 제국주의도 군사적패배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이는 유일하게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침략군대를 때려부시고 현대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군사의 거장이시였다.

그이는 유격전에서도 명장이시였고 현대정규전에서도 명장이시였으며 조국수호전에서도 명장이시였다. 제국주의침략거두들도 머리숙이고 진정으로 칭송하는 비범한 군사전략가, 강철의 령장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조선에서 1930 년대 유격전을 벌리기 전까지만 하여도 유격전을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기본형식으로 정식화한 리론도 없었고 그러한 유격투쟁으로 이름을 떨친 군사가나 영웅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전쟁의 매 전략적단계마다 그앞에 나선 투쟁과업과 적의 행동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유격작전들을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혹한 시련이 수없이 가로놓여있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였으며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에 유격구방어작전을 창조하고 구현하시였는데 그것은 당시까지의 유격전의 력사에 없는 독창적인 작전예술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 일제는 두만강연안 유격구를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없애버리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조성된 군사정세는 유격구를 적들의 《토벌》로부터 튼튼히 보위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23(1934)년 3 월부터 주체 24(1935)년 3 월까지의 기간에 적들의 《위공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유격구방위작전을 조직지휘하시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함께 반일자위대 그리고 유격구인민들로 유격구일대에서의 적극적인 방어행동을 벌리는것과 함께 적의 군사적거점들에 대한 배후타격, 제 1 차 북만원정을 조직진행하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위공작전》은 최종적으로 파탄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비롯한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하며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무장투쟁 첫단계의 전략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대규모적이며 기동적인 유격활동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새로운 작전예술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백두산지구진출작전과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의 유격작전, 두차례의 국내진공작전, 적배후교란작전 그리고 고난의 행군, 대부대선회작전 등 수많은

유격작전들을 성과적으로 조직진행하시였다. 그가운데서 대표적인 대부대기동작전은 보천보전투를 중심으로 한 국내진공작전이였다.

철통갈다고 호언장담하던 적의 국경경비진을 감쪽같이 돌파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국내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의 군사요충지를 불의에 타격한것은 삽시에 조선국내와 일본의 통치층내부는 물론 온 세상을 뒤흔들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29(1940)년 8월 돈화현 소할바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단계를 규정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할데 대한 전략적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소부대작전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간부들과 군사간부들, 로대원들과 신대원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에서 소부대는 10여명안팎으로부터 수십명으로, 소조는 수명정도로 편성하고 해당한 임무와 활동구역을 제시해주시였으며 무장도 간편하게 갖추도록 하시였다. 소부대, 소조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련락체계가 서고 소부대, 소조안에 당세포와 당분조가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전술적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소부대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몇개 소부대가 련합하여 큰 싸움도 벌리는 등 천변만화하는 유격전술로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온 만주땅과 조선의 북부국경지대는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으로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부대작전을 맹렬하게 벌리도록 하신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부단한 《소모전》으로 소멸하려던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갖추어나가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빛나게 장식하시면서 보여주신 독창적인 작전예술은 조국해방작전, 전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이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유격전쟁을 놓고보면 전국을 해방하는 최후결전을 하지 않고 정화협정을 통하여 식민주의자들로부터 독립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나라의 해방을 달성하는것이 일반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는 달리 일제가 패망을 명백히 눈앞에 두고서도 쉽사리 항복하려 하지 않고 《본토결전》까지 준비하는 조건에서 침략자들을 군사적으로 무자비하게 철저히 격멸소탕할 작전적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일제와의 최후결전단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총공격작전에 전민항쟁을 배합하여 일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는 독창적인 작전방식으로서 나라의 전지역을 짧은 기간에 해방하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게 한 군사예술적요인이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독창적인 유격작전예술을 창조하고 빛나게 구현하여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본보기를 마련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비범한 유격전략가이시였다.

1970년대 어느 한 일본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력사적사실들을 그대로 담은 《신출귀몰한 항일유격대》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아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유격전술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무력에 의해서만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독립시킬수 있다는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자체의 독자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인민이 믿을것이란 오직 자기자신의 힘뿐이다. 자기를 믿고 자주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인민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해도 승리와 영광의 상상봉에 오를수 있다는것, 하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힘에 매달리는 인민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종국적으로는 전쟁에서 패배와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 이것은 20세기의 총화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당이나 쏘련과 같은 외부의 지원보다도 조선인민자체의 힘을 더 귀중히 여기시였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주체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 자주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당이나 다른 나라 혁명가들과 손을 잡고 함께 싸우는 경우에도 언제나 조선혁명을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놓으시고 자주적립장에서 모든것을 대하시였으며 자체의 상비적인 혁명무력, 조선인민혁명군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혁명무력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벌려나가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독자성을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 년대 전반기에는 항일무장투쟁을 급속히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부터 적의 식민지통치가 덜 미치는 중국의 동북지역, 두만강연안의 천험의 요새들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들과 반유격구들을 꾸리는데 힘을 집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주체 21(1932)년 5 월말 안도현 소사하에는 처음으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인 소사하유격구역이 창설되게 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유격구창설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 년대 후반기에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국내깊이에 비밀근거지들을 창설하여 무장투쟁의 불길이 전국적판도에로 거세차게 번져나가게 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백두산일대는 군사지형학적견지에서 볼 때 한사람이 지키는 관문을 천사람이 열지 못하는 천연요새라고 말할수 있다. 유격전을 확대하는데서 백두산보다 더 적중한 기지는 없었다.

조선민족의 감정이 쏠려있는 백두산지구에 조선혁명을 령도해나갈수 있는 전략적지대를 확보하면 민족의 모든 력량을 반일항쟁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고 전민항쟁의 승리를 더욱 확고히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세계전쟁사에는 중국의 정강산이나 연안근거지, 꾸바의

마에스뜨라산의 유격근거지 등 혁명전쟁의 거점으로 된 근거지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지만 백두산근거지처럼 은페된 밀영과 혁명조직으로 튼튼히 이루어진 비밀근거지형태의 근거지는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의 항일대전을 선포하시면서 일제와의 대결은 전체 조선인민과의 총대대결로 된다는것을 명백히 선언하시고 전민항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였다.

일제는 1933 년 겨울 유격구를 없애기 위한 대규모적인 동기《토벌》공세를 감행하였다.

력량상으로나 군사장비상으로 보나 너무도 현격한 차이를 가진 힘겨운 싸움이였지만 일찍부터 인민의 힘에 의거하면 그 어떤 원쑤도 무서울것이 없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저없이 유격대와 전체 인민을 유격구방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유격대와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한덩어리가 되여 유격구방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유격대와 인민들은 서로가 고무하고 의지하며 분발하여 싸웠으며 진지들에 돌무지들을 마련하였다가 《토벌대》가 달려들 때마다 무리죽음을 안기군 하였다. 유격대가 적을 칠 때마다 유격구인민들과 아동단원들은 북과 꽹과리를 울리고 나팔을 불면서 기세를 돋구었고 고지에 총탄이 떨어지면 작탄을 운반하고 총이 고장나면 제때에 수리하여 무기를 보장하였다. 총을 쏘아본 경험이 있는 늙은이들은 유격대와 반군사조직성원들과 어울려 직접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적의 대병력의 련속적인 공격속에서도 유격구는 그 한치한치가 피로써 사수되고 불락의 요새로 거연히 솟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4(1945)년 8 월 9 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호응하여

이미 국내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을 전민항쟁에로 조직동원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의 지도밑에 인민무장대들은 전국각지에서 일제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소탕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으며 진격해오는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드디여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종국적으로 무너뜨리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세계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유격전을 벌린 나라도 많고 정규무력에 의한 현대전을 벌린 나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에서처럼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무력항쟁을 벌린 실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으로 주체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으로 강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해방하시였다.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력사적사실이다.

4)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위인

필승불패의 혁명무력건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적인 군건설사상을 제시하고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보위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키우신 희세의 령장이시였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라는것은 한마디로 당과 수령의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자기 당과 수령과 생사를 같이하는 군대를 말한다.

인민군대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뿐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실제적으로 간직하게 될 때에야만 진정으로 당과 수령의 군대로 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지하신 립장과 원칙이였다.

지난 시기 일련의 사회주의나라 군대들은 이러나저러나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받아왔다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반혁명적, 수정주의적인 당군분리책동과 《중립화》책동에 쉽게 용해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거부하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사회주의운동이 보여준 이러한 교훈에 비추어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군대의 신념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주체 46(1957)년 11 월 조선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도 인민군대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가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혁명적의리와 신념,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군대,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자기의 수령과 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군대로 강화발전되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주체 62(1973)년 10 월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열렸을 때였다.

대회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사상적단결과

관련하여 사람에게는 여러가지 피형이 있다, 사람에게 수혈할 때에는 A 형의 피를 가진 환자에게는 A 형의 피를 넣어주어야지 B 형의 피를 넣어주면 몸에서 열이 나 죽을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체의 혈통을 가진 우리 당안에는 주체형의 피만 흘러야지 그렇지 않고 사대주의형의 피나 수정주의형의 피가 들어오면 안된다,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군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의 통일단결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단결만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진 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뭉친 군대만이 시련과 난관으로 가득찬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적과 싸워 백전백승할수 있다는 진리를 평생의 신조로 간직하시고 주체의 군건설사의 갈피마다를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일화로 수놓아오시였다.

주체 40(1951)년 가을 어느날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한밤중에 전선에 있는 군단장을 전화로 찾으시여 벌써 날씨가 찬것 같은데 전사들에게 더운밥과 따끈한 국을 해먹이며 콩나물도 길러먹이도록 일깨워주시고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전쟁사에 일찌기 그 이름조차 없었던 화선휴양소도 내오도록 하시였다.

지휘관이나 전사 할것없이 모두가 오직 싸움만을 생각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의 병사들을 위하여 돌려주신 동지적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인민군장병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였으며 최고사령관과 인민군대를 하나로 이어주는 혈맥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계승에서 새로운 전환기가 펼쳐지고있던 1970 년대 중엽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건군강령을 제시하시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완성하는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전군 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군 주체사상화의 건군강령은 반세기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건군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준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무력건설강령이였다.

전군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인민군대에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6(1977)년 11 월 조선인민군 제 7 차 선동원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 기회들에 인민군대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과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 등 주체사상교양을 틀어쥐고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고 주체 62(1973)년 10 월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와 주체 80(1991)년 12 월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 등 여러 계기에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집단으로 만들어 전군 주체사상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전군을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모든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도록 하신것이다.

지난날 와르샤와조약참가국이였던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은 나라의 방위를 쏘련에 의거하여 하고있었던데로부터 자기 나라들에 쏘련의 군사기지를 두고 무장장비도 그 나라의것으로 배비하였다. 이

나라들에서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이 쏘련의 지휘봉에 따라 진행되였다. 결과 군사분야에서 비사상화가 실시되자 그것이 그대로 모방되고 종당에는 큰 나라 군대가 사회주의의 총대를 놓자 뒤따라 혁명의 총대를 내리우고 당과 사회주의도 다 말아먹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배주의와 결합된 현대수정주의, 현대사회민주주의의 어지러운 사상조류가 범람하는 복잡한 속에서도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다른 나라를 넘겨다보지 말고 모든 군사사업과 군사활동을 철두철미 자기 식대로, 주체적립장에서 진행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정치사상교양사업의 기본방향과 내용, 방법도 자기 식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으며 부대의 조직편성과 지휘관리, 전투훈련도 다 자기 식으로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건설하여나가신 불멸의 령도에서 특출한것은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것은 본질상 건군위업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대를 이어 보장해나간다는것이며 그것은 건군위업에 대한 령도의 계승문제가 원만히 실현될 때 철저히 실현되게 된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곡절많은 력사는 건군위업에 대한 계승문제가 단순히 수령의 령도직책을 그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전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최대의 정치적문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혁명위업계승에서 건군위업의 계승문제를 무엇보다도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군대의 사업부터 먼저 맡겨 지도하도록 하시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건군위업계승의 합법칙적요구와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이미전부터 인민군대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현해오시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던 1970 년대에 인민군대안의 당사업이 인민군당위원회와 총정치국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집중되여 당정치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제도와 질서, 규률이 한층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민군장병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명장의 기질과 인품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교시는 언제나 인상적이여서 누구에게나 그것이 그대로 장군님에 대한 신뢰심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워나가는 문제를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의 중대사로 간주하시였다.

주체 83(1994)년에 들어와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체계수립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 월 25 일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권총을 수여하시면서 다시금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89(2000)년 1 월 정초 어느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해오시던 잊지 못할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수령님께서는 군대를 자신에게 넘겨주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시였다고, 우리의 선군령도는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의 군력을 가진 불패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오래전부터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방침을 인민군대강화의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와 함께 그것을 조선로동당의 4 대군사로선으로 정립하시고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2(1953)년 7 월 27 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470 호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한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는 한편 인민군대강화의 기본고리를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에 두시고 강력히 밀고나가시였다.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전부간부화를 전략적방침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군간부화의 선행공정을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찾으시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2(1963)년 10 월 **김일성**군사대학(당시) 제 7 기 졸업식과 주체 53(1964)년 4 월 군사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등 여러 기회들에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시여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주체 55(1966)년 10 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도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군인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들로 육성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군을 간부화하여나가는 과정이 그대로 인민군대를 일당백으로 준비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하면서 이 모든것이 전투훈련의 도가니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끄시였다.

주체 52(1963)년 2 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전연의 병사들을 찾으시여 인민군대에서 들고나가야 할 구호가 일당백이라고, 전투훈련을 잘하는것이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키며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전의 4 대강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독창적인 5 대훈련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64(1975)년 2 월 당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10 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인민군군인들이 강의한 혁명정신과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 무쇠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가지며 인민군대안에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세울것을 규제한 5 대훈련방침은 인민군대의 훈련목표와 기본내용을 밝힌 지침이였다. 이 5 대훈련방침은 현대전의 요구와 군인들의 전투능력제고의 제요인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훈련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군간부화와 함께 전군현대화를 일당백의 혁명무력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건군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전군현대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0(1961)년 12 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제 2 기 제 2 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와 그후 여러 기회에 인민군대의 현대화는 어디까지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과 교훈, 우리 나라 군사행동지대의 특성, 주체전법,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에 따라 곡사화력의 비중을 높이고 무기와 기술장비를 보다 경량화하며 현대적무기, 상용무기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점차적으로 위력한 현대적장비들을 갖추어나가며 모든 무장장비를 기계화, 자동화하는 방향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원칙이 제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무장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현대적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선행공정으로 보시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각 군종, 병종들의 무장장비가 더욱 현대화됨에 따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어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일당백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의 면모는 현실을 통하여 증명되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강한 정신력과 함께 무장장비의 면에서도 전술무기만이 아니라 전략무기까지도 보유하고있는 최강의 무장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자각적인 군사규률을 갖춘 강철의 정예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2(1953)년 10 월에 조선인민군 제 831 군부대 군인들앞에서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연설하시면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혁명군대의 규률을 자각적인 규률로 세워왔다는것과 항일유격대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인민군대의 규률도 마땅히 자각적인 규률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군대의 규률을 자각적인 군사규률로 보시는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언제나 정치사업방법,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군인대중의 자각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인민군대안에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의 명칭에는 《인민》이라는 부름이 숭엄하게 붙어있다.

조선인민군, 이 명칭에는 인민속에서 나온 군대, 인민의 아들딸로 구성된 군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군대, 군민일치는 실현하여나가는 군대 한마디로 말하여 철저히 인민적성격을 띠고있는 군대의 특징과 면모가 집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무력으로 건설하는것을 불패의 혁명강군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혁명군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싸움에서 이길수도 존재할수도

없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의 혁명무력을 그 탄생의 첫 시기부터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되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건설하시였다.

주체 21(1932)년 4 월 25 일에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는 인민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하여 인민속에서 나오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실 때에도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조선의 혁명무력을 반동을 제외한 모든 계급계층을 망라한 그야말로 전체 인민의 아들딸로 구성된 인민의 군대로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혁명무력이 인민의 무장력으로서의 고상한 풍모를 갖추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6(1947)년 1 월 15 일 보안간부훈련소 제 2 소 군관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동무들은 인민의 군대인것만큼 인민에게는 충실하여야 하며 원쑤들과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싸워야 한다고, 모든 군인들이 실지행동으로 우리 군대가 참다운 인민의 군대라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인민군대를 자기의 혈육과 같이 사랑하며 원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민성을 혁명군대건설과 활동의 철칙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해나가는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병일치를 보장하는것을 인민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중요한 풍모로 보시고 그 실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여 모든 장병들이 하나의 사상과 뜨거운 동지적사랑으로 일치단결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관, 정치일군들을 만나실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늘 대원들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대원들과 같이 보초도 서군 하신 자신의 경험도 들려주시면서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중대에 내려가 전사생활을 해보아야 전사들의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줄수 있고 전사들에게는 지휘관들도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라는것을 똑바로 인식시킬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속에 인민군대에서 모든 장병들이 하나의 사상과 뜨거운 동지적사랑으로 일치단결을 이룩한것은 인민군대의 면모를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완성시킨 빛나는 성과로 되였다.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

오늘 세계에는 조선과 같이 정규무력의 강화와 함께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세운 실례는 흔치 않다. 지금 조선의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두고 세계가 경탄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세상사람들이 국가방위체계수립의 본보기로 격찬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훌륭히 일떠세우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전민을 무장시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도되여온것이였다. 고대에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 노예를 제외하고 당시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던 시민계급의 남자들에게 실시한 《개병제》는 주민무장의 초기형태였다고 볼수 있다.

오늘 일정한 나이에 한한 남자와 녀성들에게 총을 메워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거나 정규적인 상비군을 두지 않고 유사시에 전민무장화의 방법으로 국가방위체계확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렇게 놓고보면 조선에서와 같이 정규적혁명무력과 함께 전국적범위에서 전일적으로 조직화된 민간군사조직과 군사훈련체계에 의한 우월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하고 언제든지 침략자들과 싸울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는 나라는 사실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51(1962)년 12 월 당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5 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투적구호는 조선에서의 전민무장화를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무장화를 실현하는데서 합리적인 민간무력형태를 누구나 맡은 초소에서 일하면서 언제든지 적과 싸울수 있게 준비된 비상비적무장대오로 규정하시고 주체 48(1959)년 1 월 14 일 전국적범위에서 전일적체계를 가진 로농적위대(오늘의 로농적위군)를 창건하시였다.

로농적위대는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자원적인 민간군사조직으로서 무장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 비상비적인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로농적위대의 기본사명은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정규무력인 인민군대와 협동하거나 자립적으로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의 후방을 믿음직하게 지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농적위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여 민간무력으로서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시였다.

주체 51(1962)년 12 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로농적위대의 간부대렬을 잘 꾸리고 무기보관관리와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군사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3(1964)년 1 월에는 각 도, 시, 군 로농적위대 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주체 62(1973)년 12 월 어느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투훈련에 참가한 재령과 청단, 신원군안의

로농적위대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동원준비상태와 훈련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하시며 그 어떤 원쑤들도 쳐물리칠수 있게 준비된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9(1970)년 9 월 12 일 청소년학생들의 자원적인 무장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도 조직하시고 그를 강력한 민간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붉은청년근위대는 당과 수령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학생청년들의 자원적인 군사조직으로서 학습을 본신임무로 하면서 조국보위임무도 수행하는 혁명적민간무력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 로농적위군과 함께 후방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간무장력인 동시에 정규무력의 후비력량인 붉은청년근위대를 강력한 무장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붉은청년근위대의 군사훈련, 야영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고 훈련의 내용과 형식,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하시며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붉은청년근위대가 로농적위군과 함께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믿음직한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자라나게 된것은 조선의 혁명무력의 자랑으로 된다.

지금까지 인류의 전쟁사는 난공불락의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날로 발전하는 위력한 공격수단앞에서는 그 어떤 요새도 무너지기마련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새화에 대한 기성의 견해와 경험에 종지부를 찍고 적의 그 어떤 타격에도 끄떡없이 자기의 진지를 끝까지 지키며 필요한 경우 그에 의거하여 주동적인 공격행동을 벌릴수 있는 철벽의 요새를 온 나라에 일떠세우는 군사요새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요새화실현의 원칙으로 내세우신것은 적의 어떤 화력타격에도 견딜수 있게 온 나라의 전후방을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으로 만드는것이였다.

조국땅 그 어디에나 한놈의 적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국요새화의 중요한 요구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지점만이 아니라 전연과 해안은 물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빠짐없이 여러가지 견고한 방어시설들을 만들어놓아 온통 고슴도치와 같은 방비책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곧 전국을 요새화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 7월과 주체53(1964)년 1월에 하신 교시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반항공지하구조물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독창적인 전국의 요새화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을 해당 계선에서 완전히 격멸소탕할수 있게 방어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헌신의 로고가 있어 천리방선의 모든 초소들, 온 나라의 군사진지들과 방어축성물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온 나라가 요새화되고 그것이 전민무장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실은 아직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모든 곳이 요새화된 조선의 현실은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고위군사대표단 성원들은 조선에 와보고나서 《이때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이 나라처럼 전민이 무장되고 전국이 요새화되여있는 나라는 보지 못하였다. 조선은 틀림없는 군사대국이다.》라고 말하였다.

위력한 국방공업의 건설

건당, 건국과 함께 건군을 새 조국건설의 3 대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첫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고많으시였지만 국방공업창설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시고 그 력사의 초행길을 앞장에서 남먼저 헤쳐나가시였다.

주체 34(1945)년 10 월 2 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 일제가 포탄가공과 병기수리를 하던 평양병기제조소자리를 찾으시였다. 해방된 그때 찾으셔야 하고 새로 일떠세워야 할 공장들은 많았지만 자체의 병기공업, 국방공업건설을 위하여 그이께서는 이곳부터 먼저 찾으시였던것이다.

조선의 군수공업건설의 새 력사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뜻깊은 이 평천길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이날 혹심하게 파괴된 병기제조소를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이 공장의 파괴상만 보아도 일제침략자들이 얼마나 악착스러운 놈들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민주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우리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당도 창건하고 인민정권도 수립하여야 하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정규무력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몸소 키우신 항일혁명투사들을 병기공업부문에 파견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5(1946)년 12 월 포병기술훈련소를 내오고 병기공업부문의 기술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지난 기간 병기부문에서 일한 로동자, 기술자들을 전국각지에서 찾아내여 공장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어느날 병기기술자들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정규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서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세워 간부들도 양성하고있고 부대들도

조직하고있는데 우리는 자기 군대를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병기공장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병기공업의 력사가 없고 기술이 부족한 조선에서는 기관단총을 만들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자재와 부속품을 사오기 위한 수입신청서까지 만들어 들고다니던 사대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발양하여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만들어냈다.

주체 37(1948)년 12 월 12 일 조선의 병기공업의 첫 제품인 기관단총에 대한 시험사격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탄 세발이 10 점원안에 명중된 목표판을 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이 아주 훌륭하다고, 명중률도 높고 집중성도 좋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날에 수령님께서 크게 울리신 총성은 조선에서 주체적인 병기공업의 창설을 알리는 메아리였으며 총대를 중시하는 조선인민의 억센 기상을 세상에 알리는 뢰성으로 되였다.

조선의 병기공업의 력사를 돌이켜보는 사람들은 이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한장의 사진을 통하여 류다른 감회를 느끼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병기공장로동계급이 주체 38(1949)년 10 월에 자신께 올린 여러정의 기관단총을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그 기관단총을 김책, 최용건, 강건, 김일 등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수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여 주체병기공업의 력사를 세상에 알리신것이였다.

주체 38(1949)년 10 월초 어느날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1 월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세계직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모택동주석도 나오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에게 자신의 명의로 기관단총 2 정을 선물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11 월초 중국에서 진행된 세계직맹대회에 참가한

조선대표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시는 기관단총 2 정을 중국의 지도간부들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기관단총을 받은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간부들은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중국에 비해 인구상으로나 령토상으로는 너무도 보잘것 없고 총대가 약해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40 여년간이나 짓밟혀있던 조선에서 아직 자기들도 만들지 못한 자동무기를 이처럼 다른 나라의 도움도 없이 제손으로 만들어낸것이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이러한 결실을 낳았음을 깊이 느끼며 조선의 로동계급이 병기공업부문에서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를 진정으로 기뻐하였다. 그들은 중국혁명이 시련을 겪고있던 가장 엄혹한 시기에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피로써,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하신 **김일성**동지께서 이번에는 또 기관단총까지 보내여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81(1992)년 6 월 어느 한 기회에 우리 나라 군수공업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를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기관단총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기관단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못했을것이라고 교시하신적이 있다.

조선의 로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커다란 은을 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맨손으로 총대를 벼려낸 조선의 로동계급의 애국열의와 기백을 더욱 발양시켜 전화의 불비속에서는 군자리에 병기공장을 차려놓고 여러가지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도록 하시였다.

주체 41(1952)년 3 월초 군자리병기공장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조선의 병기공업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준 력사적인 걸음으로 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병기공업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관련하여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병기공장건설을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의 공장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병기공장건설의 방도를 밝혀주시고 공장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병기공장의 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고무는 그들을 끝없이 분발시켰다. 적기의 맹폭속에서도 나라의 병기생산기지가 확대강화되고 새로운 부문별 병기공장들이 일떠섬에 따라 각종 포탄과 수류탄, 지뢰와 통신기재 등 여러가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의 생산이 급격히 증대되게 되였다.

해방후 평상태에서 자체의 힘으로 병기공업을 창설하여 장래 국방공업의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야말로 군사강국의 만년기틀을 이루어놓을수 있은 근본요인이였다.

세상사람들은 1990 년대 조선인민이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력사에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을 때 그것을 극복한 비결이 무엇이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알고저 하였었다.

그때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반사회주의, 반공화국고립압살과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가 몰아온 어렵고 고난에 찬 력사의 회오리바람속에서도 조선은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하면서 역경에서 순경에로, 경제적압박상태에서 강국건설의 길을 열어나가는 극적인 전환을 마련해나가고있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그 누구나 쉽게 이룩할수 없는 이러한 기적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것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강한 정신력과 함께 국방공업위주의 강력한 자립적인 경제토대, 자기 식의 특수한 경제구조가 있었기때문이였다는것을 력사의 역풍이 한차례 크게 지나간 뒤에야 세상사람들은 알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세계여론들도 특별히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국방공업을 자립적으로,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형제간에도 남의 주머니돈이 제돈만 못하다는격이였다. 이 격언을 확증이나 해주듯 1962 년에 터진 꾸바의 까리브해위기는 큰 나라에 조국방위의 운명을 내맡겨서는 랑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가르쳐주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동안 모색하시면서 찾으신 사회주의건설과 수호를 위한 대강이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병진시켜나가는 그자체가 어디에도 전례가 없는 생소하고 방대한 사업이였고 령토나 인구수에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선인 경우에는 더더욱 힘겨운 일이였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나라와 민족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주저없이 병진로선관철의 길을 택하시였다.

경제와 국방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그자체만으로도 기성의 경험과 전례를 뛰여넘는것이였다. 세상사람들의 놀라움은 이 전략적로선이 실현된 현실을 보는 과정에 더욱 커졌다. 조선은 1960 년대에 벌써 정치에서 자주적이며 경제에서 자립적인 사회주의나라로서만이 아니라 군사적면에서도 자위적인 강국으로 솟아올랐던것이다.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도 단독으로 당당히 맞설수 있는 자위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군사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은 절세의 위인, 희세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은 업적중의 업적이다.

5. 인류해방의 구성

1) 인류해방의 앞길을 밝혀준 세기의 위인

온 누리를 비치는 주체의 해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시대와 력사, 인민의 대하속에서 주체의 고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수억만 인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무기를 안겨주신 세기의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빛발로, 투쟁의 기치로 될수 있은것은 그 절대적인 보편적진리성에 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해 떨쳐나선 진보적인류는 보편적진리성을 가지는 사상을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로 공인하고 받아들인다.

주체66(1977)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일본의 한 인사는 100 여년전, 50 여년전을 맑스-레닌주의시대라고 했다면 우리 시대는 **김일성**주의시대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맑스나 레닌은 생존기간에 제한된 범위에서 역할을 하였으며 맑스주의나 레닌주의는 그를 창시한 맑스나 레닌이 서거한 다음에 세계적인 사조로 파급되였다, 그러나 **김일성**주의는 그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정력적으로 활동하고계시는 현시대에 이미 세계적인 기본사조로 되였고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고 격찬하였다.

그가 격찬한것처럼 주체사상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나라나 민족의 운명과만 결부되여있지 않고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해방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자주사상이며 인류의 완전한 해방과 세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를 주는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를 근본핵으로 하여 전개되고 자주로 일관된 철저한 자주의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시기부터 자주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압제자, 착취자들에게 짓눌려있던 조선인민과 전세계 피압박근로대중의 공통적인 요구이며 근본지향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총칼에 피흘리면서도 부르짖는 조선인민의 독립만세의 웨침과 쏘련과 몽골혁명에 발맞추어 중국, 인디아 등 아시아나라들에서 격랑처럼 끓어번지는 혁명의 억센 조류에 접하시면서 자유와 해방의 함성을 웨치는 피압박근로대중의 공통적인 근본지향과 요구가 바로 자주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해나가려는 인간의 이러한 성질을 자주성으로 규정하시였다.

지금까지 인류사상사에는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들에 의해 헤아릴수 없는 사상과 리론들이 제기되였지만 인간의 자주적본성,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자주의 사상은 주체사상뿐이다.

주체사상은 그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는 물론 인생관적원리와 내용들모두가 자주로 일관되여있다. 자주를 인간의 생명, 인민대중의 근본생명으로 내세우고 자주를 실현하는데 운명개척의 근본묘리가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해방투쟁의 기치가 바로 주체사상이다.

언제인가 주체사상에 매혹된 외국의 한 인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의 지레대로 지구를, 아니 온 우주를 들었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해방위업수행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가시는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종일관 주체사상을 유일한 무기로 삼으시고 조선혁명의 첫 시기부터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인류해방위업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여 제시하고 관철해오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과 새 사회건설리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리론들은 그대로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따라배워야 할 투쟁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에는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세계인민들이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투쟁전략들도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해방투쟁의 전략적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투쟁전략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도 정확히 명시하여주시였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혁명성, 보편성에 매혹되여 끝없이 신봉하고 따라배우는것은 자주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세계 5 대륙의 그 어디에나 있으며 각이한 명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내오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보급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1969 년 4 월 15 일 말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연구조직이 결성된 때로부터 불과 20 여년사이에 세계 100 여개 나라에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여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였으며 신봉자대렬도 수없이 늘어났다.

1978 년 4 월 9 일에는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국제적규모에서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현시대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으며 그를 전후하여 지역적인 주체사상연구소들이 여러 지역들에서 결성되여 주체사상보급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지역 및 국제 주체사상연구토론회들이 큰 규모에서 성대히 진행되고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전국토론회, 련합토론회, 소조토론회, 각종 집회들이 진행되고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연구와 함께 세계적범위에서의 보급사업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60 여개의 민족어로 번역출판하여 보급하고있으며 《주체사상연구》, 《**김일성**주의연구》, 《주체의 시대》를 비롯한 여러 종의 잡지와 뷸레찐을 세계 130 여개 나라들에 배포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 인류해방투쟁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히는 사상적기치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창시가 선언되고 전세계에 퍼져나가던 20 세기에 이어 21 세기에 들어와서도 불과 몇년사이에 수많은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새로 결성되였다.

세기를 이어가며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이 영원한 인류해방의 기치라는것은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자주시대 인류해방투쟁의 최종목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신데 기초하여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최종목표를 밝혀주심으로써 인류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이에서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현시대에 와서 시대평가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인류사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고있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주성을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일어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함께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자주적인 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와 안전을 악랄하게 교란하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독립》과 《자유》를 인정하는척 하면서 반동화된 군부상층 및 종족상층부의 대표와 같은 우익계층들을 매수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하여 새로 독립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교활한 예속화책동에 말려들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가 하면 기대를 가지고 의존하려 하고있었으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까지도 제국주의자들에게 겁을 먹거나 환상을 가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있었다.

여기에 현대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현시대에 대한 온갖 그릇된 반동적견해들이 류포되고있어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새 사회건설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오늘의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도 반제반미립장을 투철하게 견지하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의 절박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현시대를 지난 시대와 구별하시여 자주성의 시대로 새롭게 정식화하시였다.

현시대가 자주성의 시대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식화에는 오늘의 시대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라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현시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평가는 지난 시기 생산도구의 발전수준이나 사회경제제도의 류형, 사회발전에서 노는 특이한 분야의 역할과 의의에 따라 구분한 견해들과 구별되는 가장 통속적이고 독창적인 과학적평가이다.

현시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도 독창적인 평가를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 국가수반들과 진보적인사들, 인민들에게 현시대의 본질과 추이를 정확히 알려주어 그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시대의 추이와 전반적흐름을 알아야 그에 맞게 자기 나라와 민족의 해방투쟁을 위한 정확한 길을 찾을수 있고 인류해방투쟁위업의 공동전선에서 보조를 함께 해나갈수 있다고 보시고 만나시는 외국의 벗들과 인민들에게 현시대의 본질과 추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설명해주시며 그들의 눈을 틔워주시였다.

남에게 매여살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살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현시대를 자주시대로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추이를

정확히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현시대에 대한 그 어떤 견해나 규정과도 대비할수 없는 통속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날을 따라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냈으며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대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최종목표를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인류해방투쟁을 현시대의 흐름과 일치시켜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자유와 해방의 기치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내건 투쟁의 구호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어떻게 투쟁하여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주장마다 제각기였고 견해마다 제나름대로였다.

뛰여난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20 세기의 시대적흐름의 자주적본성을 처음으로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지향과 요구실현의 견지에서 인류해방위업수행의 최종목표를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히신 인류해방위업수행의 최종목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다.

여기에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모든 투쟁이 철저히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해방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한다는 귀중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과제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시작하시던 첫 시기부터 시종일관 제국주의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민족적예속과 계급적지배의 근원이며 식민지나라 인민들에 대한 민족적예속과 지배는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라고 보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제국주의의 이러한 반동성에 대한

과학적안목을 지니고계셨기에 제국주의를 완전히 청산하는것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며 인류해방투쟁의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된다고 확언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쿠웨이트 《알 카바스》신문사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롯하여 여러 교시들과 담화, 연설들에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영원한 미래를 담보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해방투쟁의 최종목표를 새롭게 해명해주심으로써 인류의 해방위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민족적인 또는 계급적인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주의를 완성해나가는 력사적인 투쟁로정을 거쳐 완수된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한 정치가는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하면서 자주에로의 길, 바로 이것이 현세기의 기본흐름이며 새 세기의 인류의 진로이라고 소리높이 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의 발전과 그 승리의 합법칙성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의 해방투쟁의 발전과 그 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매개 나라 혁명이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된다는것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이 리론에는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의 발전과 그 승리가 세계적범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민족국가들에서 혁명이 승리하는 과정을 거쳐 이룩된다는것과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해당 나라 혁명의 주체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마련된다는 진리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의 발전과 그 승리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론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피압박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가장 옳바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벌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사에 존재하여온 협애한 민족리기주의와 민족배타주의에 결정적타격을 가하고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확고부동한 주체적립장과 국제주의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인류의 해방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현시기 인류공동의 투쟁과업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을 현시기 세계인민들이 공동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정부에서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주관적의사와는 달리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는 사회력사적조건이 더욱 성숙되여가고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대적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과업은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할데 대한 공동의 투쟁전략은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이 일찌기 찾아볼수 없었던 커다란 폭과 심도를 가지고 전진해나가는 자주시대의 전반적추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이였다.

날이 갈수록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거세찬 조류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와 간섭의 역류를 밀어제끼며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었다. 사회주의력량이 날을 따라 강화되는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식민지나라들에서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하여 1950 년대 중엽부터 1980 년대말까지 100 여개의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것을 현시기 세계인민들이 수행해야 할 공동의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할데 대한 공동투쟁전략은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에 의하여 조성되고있던 복잡하고 긴장한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어떤 투쟁인가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해명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71(1982)년 10 월 26 일 조선을 방문하고있던 파키스탄대통령을 수행한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다,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자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것이며 그렇게 될 때 제국주의자들이 고립되여 맥을 추지 못하게 되고 세계의 평화가 보장될것이라는 과학적판단에 기초한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온갖 지배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민주화된 국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물론 세계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발전된 나라도 있고 덜 발전된 나라도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는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크기나 발전정도에는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사이에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0(1991)년 6 월 1 일 일본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면서 자주성은 사회적인간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대내적으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며 대외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대외관계에서도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나가는것을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적방도로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들이 대내적으로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관철할뿐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할데 대한 전략이 밝혀짐으로써 진보적인류는 지배와 예속의 낡은 세계를 폭파하고 자주와 번영의 광명한 새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수 있는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를 받아안게 되였다.

오늘도 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수억만 인민들은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할데 대한 전략을 《전세계 인민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강령》, 《세계인민들을 자주위업의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고무적기치》라고 하면서 그에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전략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칭송의 인사를 올리고있다.

진보적인류에게 새겨준 단결의 전투적기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하시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현시대, 자주시대 인류해방투쟁의 전략적구호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제 1 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이며 이 투쟁에서 주체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인것만큼 세계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매개 나라의 자주적발전도 보장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인류해방위업실현의 전략적구호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구호는 자주화된 세계건설의 주체가 다름아닌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이라는 확고한 견해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구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는 인류의 해방투쟁이 새로운 폭과 양상을 띠고 벌어지고있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자주화된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세계적범위에서 로동계급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인간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 광범하게 떨쳐나서고있으며 단순히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만 할뿐아니라 새 사회를 일떠세우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광범한 투쟁에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는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는 새로운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혁명적구호는 국제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투쟁의 무기이다.

자주적인 세계는 그것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국제혁명력량에 의해 건설되고 완성된다. 국제혁명력량은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의 주인이고 직접적담당자이며 추동력이다. 그런것만큼 자주화된 세계건설을 위한 투쟁력량을 강화하는것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화된 세계건설의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열쇠를 바로 단결에서 찾으시였다. 단결만이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결속시킬뿐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전세계의 인민들을 하나로 굳게 결속시킬수 있다고 보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화된 세계건설을 위한 투쟁력량을 마련하고

강화하시기 위해 내세우신 단결은 곧 이 투쟁의 주력인 사회주의력량의 단결이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의 단결이며 사회주의력량과 발전도상나라들의 단결이다. 자주화된 세계건설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굳게 단결해나갈 때 국제혁명력량은 백방으로 강화되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더욱 힘있게 전진완성되여나갈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새롭게 펼치신 단결의 전략이다.

자주성을 단결의 기치로 내세우고 자주성의 원칙에 철저히 기초하여야 정견과 신앙, 제도와 민족을 달리하는 광범한 자주력량을 다 단결시킬수 있으며 자주화된 세계건설의 강력한 력량을 마련할수 있다.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은 공고하고 튼튼하며 그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는 투쟁구호는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보편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을 하나의 뉴대로 련결시키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으며 세계의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추동하고있다.

일본의 한 사회활동가는 자기의 글에서 위대하신 **김일성**주석께서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가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던 세계혁명의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신것은 실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력사적사변이 아닐수 없다, 이 구호야말로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인류해방의 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전력사적기간에 들고나가야 할 세계혁명의 전략적구호이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전략적구호를 한없는 감격과 환호속에서 심장으로 접수하였다고 한것은 단결의 구호, 투쟁의 전략을 받아안은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인사들과 수억만 인민들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길에 하나의 뉴대로 련결시키는 힘있는 무기를 마련해주시여 단결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로 다함없는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2) 인류해방투쟁을 자주의 길로 이끈 정치원로

새로운 앙양기를 펼쳐준 민족해방운동

20 세기 초엽에 들어서면서 정치적독립의 길을 개척해나가는것은 조선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운명적인 과제로 제기되고있었다.

그러나 당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민족문제해결의 옳바른 지침을 가지고 투쟁하지 못하고있은것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고있었다.

엥겔스는 유럽주민이 이주한 식민지에 대하여서는 독립을 예견하였으나 토착주민이 사는 식민지는 종주국의 로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한 후 그 관리밑에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독립할수 있을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레닌은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국가적분립의 자유와 정치적자결권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제기하였으나 식민지나라들이 예속국으로부터 분립하여 민족국가로 되기 위한 투쟁은 종주국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전진하였고 혁명도 발전하였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식민지, 반식민지들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선행리론의 제한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한데 기초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해나가는 전인미답의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개척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전쟁의 전기간 언제나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자체의 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기에 조선민족은 마침내 수십여년간이나 지속되여오던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세계의 많은 식민지, 반식민지나라의 독립운동자들과 인민들은 동방의 조선에서 타오른 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을 목격하였으며 그것을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본보기로 삼았다.

1968 년 1 월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는 70 여개 나라에서 온 진보적문화인들의 참가밑에 세계문화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새시대를 개척하였으며 마침내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첫 돌파구를 뚫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여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문건을 채택하였다. 문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에서의 항일무장투쟁경험이 현시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보편적경험이며 리론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이 문건은 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공적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한결같은 공인과 칭송의 표시였다.

자력독립의 위대한 본보기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에 찾아오는 독립운동지도자들과 항쟁투사들 그리고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 국가수반들과 진보적인사들에게 자체의 힘으로 정치적독립을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시며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경험을 따라배우려고 조선에 수많은 정치활동가들과 항쟁투사들이 찾아왔다.

그가운데는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던 도미니까인민운동대표단도 있었다. 그들은 주체 56(1967)년 5 월 자주적인 독립사상의 제일체현자이시며 빛나는 실천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조선에 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 시기부터 우리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이 과정에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자기 나라 혁명로선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세우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고 하시였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을 그 누가 대신해줄수 없으며 오직 자기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기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뼈저린 체험속에서 터득하신 진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이 교시에는 나라의 독립은 누가 선사하지 않으며 어디서 구걸해오거나 저절로 마련될수도 없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 혁명가들과 피압박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따라 민족해방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섰다.

짐바브웨의 항쟁투사가 조선의 항일유격대원들은 정규군의 지원도 없고 국가적후방도 없고 인민들의 지지밖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풀뿌리를 캐먹으며 만주벌판의 눈보라속에서 15 년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와 싸워이겼다, 그런데

눈보라도 없고 1 년내내 더우며 가는 곳마다 바나나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들과 먹을것이 많은 우리 아프리카에서 왜 싸우지 못하겠는가, 우리도 들고일어나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며 또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고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숭고한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귀중한 경험으로 이끌어주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앙양기에 확고히 들어서고 자력독립을 위한 투쟁이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는데 대한 명백한 실증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교훈과 혁명투쟁의 근본리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짓밟힌 겨레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길은 오직 총대로 혁명하는 길뿐이라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를 터득하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무장투쟁을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첫째가는 혁명로선으로 내세우시였다.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무장투쟁으로 민족적자주권확립의 본보기를 마련하시고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총대에 의거하는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전쟁승리의 세계사적의의가 있다.

전환적국면을 열어준 새 사회건설투쟁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의 해방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에서 가장 큰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류가 세기를 두고 바라온 자유와 해방의 력사적과제가 다 수행되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투쟁을 이끌어주시는데서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문제는 그들이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도록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만 나라의 완전독립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을 방문한 짐바브웨국회대표단과의 담화에서도 교시해주신것처럼 정치적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비록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다 하더라도 참다운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러한 나라는 또다시 다른 나라에 예속되기마련이다. 정치적주견이 없고 남의 말이나 고분고분 듣는 집권자는 아무리 하늘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지 못하는 국회는 실지에 있어서 남의 장단에 춤이나 추어주는 구락부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것을 시종일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 제일생명으로 내세우신것이였다.

해방을 맞은 조선에 미국의 한 녀류기자가 왔었다. 일찌기 미국을 떠나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문필활동으로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온 진보적인 기자인 그가 조선에 온것은 1947년 8월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온 나라가 새 사회건설로 들끓고있던 조선의 곳곳을 참관하였다.

현실을 목격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수 없었던 그는 원산에서 조직된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조선에 와서 느낀 감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기가 북조선에 와서 무엇보다도 놀랍게 생각한것은 정권을 운영하고 경제를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꾸려나가는 이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정치를 높이 받들고 조선사람들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나가고있는것이라고 하면서 현지를 참관하는 과정에 받은 커다란 감동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가 가진 이 기자회견에 대한 소식은 신문, 통신, 방송을 통하여 내외에 널리 보도되였다.

조선에 대한 참관을 마친 그는 자기가 돌아가면 정의의 필봉을 든 기자로서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북조선의 현실을 소개하는 글을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신문들에 쓰며 책도 꼭 내겠다고 진심에 넘쳐 말하였다.

이듬해인 1948 년초에 유럽의 한 출판물에는 그가 조선을 떠나면서 결의한대로 쓴 조선방문인상기가 게재되였다. 조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은 인상기였다. 그의 방문인상기에는 조선에 체류하는 나날에 가는 곳마다에서 자주적인 인민의 정권아래 자주적인 정치가 실시되여 자주적인 새 사회를 일떠세우는 조선의 장엄한 현실에 대한 그의 강렬한 인상이 조금도 꾸밈없이 서술되여있었다. 그의 인상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단행하신 자주정치가 진정한 새 사회건설의 길로 나아가려는 세상사람들에게 정치적자주성실현의 실천적모범으로 되였다는 력사적사실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였다.

자본주의나라를 대표하는 미국의 한 기자가 새 사회건설을 다그치는 조선에 직접 와보고 쓴 글은 발표되자마자 여러 나라 통신과 신문, 방송을 통하여 널리 보도되였다. 그것은 세계인민들의 이목이 해방된 조선, 새 사회건설로 들끓는 조선으로 집중되게 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은 오래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며 자주적인 정권아래 새 민주조선건설의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0(1991)년 4 월 국제의회동맹 제 85 차총회 개막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에서도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 사업을 인류가

지향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시고 그 실현의 원칙적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특권과 전횡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이 발표되자마자 세계는 그것을 《새로운 국제질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힌 백과전서적인 연설》,《공정한 국제질서확립의 휘황한 기치》라고 찬양하면서 인류의 해방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하기에 조선을 찾아와 자주의 심원한 진리를 체득하고 자주의 위대한 무기로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갈 굳은 결의를 안고 돌아가는 외국의 수많은 벗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의 길로만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와 번영만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김일성**주석은 자주성의 상징, 자주성의 수호자》라고 한결같이 심장의 목소리를 터쳤다.

위대한 수령님은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나라들이 제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나가는 거창한 창조의 력사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실천해오신 위대한 선구자이시였다.

주체 72(1983)년 10 월 어느 한 나라의 정치활동가를 만나주시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경험을 알기 쉽게 들려주시며 경제적자립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미제에 의하여 재더미로 되였으며 우리에게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벽돌 한장, 세멘트 한 g, 철근 한쪼각도 없었으며 게다가 전쟁시기에 많은 청장년들이 미제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인민군대에 나가있다보니 로력도 매우 부족하였다고 하시며 당시의 어려웠던 나라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교시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전후에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지만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고 인민을 령도하는 당이 있는 이상 나라의 모든것이 아무리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하더라도 다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끝까지 관철해온데 대하여서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원조보다도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손으로 복구건설을 진행한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다른 나라의 원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운데 대한 생동하고 의미깊은 교시여서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그의 심금을 크게 울리였다.

새로 독립한 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경제적자립의 길로 이끌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지께서 가장 중시하신 문제는 이 나라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3(1974)년 9 월 19 일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담화를 하시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의 협조를 실현하는것이 왜 필요하며 실제적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원조》의 미명밑에 경제적인 침략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경제기술적으로 협조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협조를 강화할수 있는 훌륭한 기술과 경험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발전도상나라가 100 여개 있는데 이 나라들이 좋은 경험과 기술을 한가지씩만 내놓아도 100 여가지의 좋은 경험과 기술이 나온다고, 발전도상나라들이 이것만 서로 교환하여도 큰 문제를 풀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매개 나라의 자연부원과 기술적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참으로 현명한 가르치심이였다.

인민이 주인이 된 새 사회, 새 생활창조에서 자위적국방력건설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위적국방력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0(1971)년 9 월 꼴롬비아국회대표단이 조선에 왔을 때에도 자위적인 국방력을 건설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실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교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1(1962)년에 일어난 까리브해위기는 우리에게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뿐아니라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9(1980)년 4 월 잠비아대통령과 주체 70(1981)년 9 월 이란국회대표단과의 담화에서도 우리 나라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였기때문에 정치적자주성과 민족적독립을 튼튼히 고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는데서 인민대중을 굳게 단결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나라들에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나가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주시면서까지 구체적으로 하여주신 교시들은 조선에서 많은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 모든것을 극복하면서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 하는데 대한 더없는 확신으로 일관되여있었고 그래서 자위적국방력건설의 길로 이끌어주는 귀중한 경험으로 되는것이였다.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운 사회주의운동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사회주의는 곧 자주였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선택이 곧 사회주의이고 자주로 건설해야만 하는것이 바로 인민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 언제나 확고하게 새겨져있은 정치적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2(1973)년 8 월 25 일 일본 오사까부지사일행을 만나주시였을 때에도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온 조선의 경험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사일행에게 조선에서는 어떻게 되여 새롭고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고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빨리 건설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의 물음에 구체적인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고 사회주의를 건설한것은 다른 나라의 실정과 우리 나라의 실정이 다르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경우를 놓고보면 그 나라들은 지난날 정상적인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친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정상적인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직후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 44(1955)년 4 월테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을 때에도 유럽의 일부 나라 사람들은 공업의 토대가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협동화를 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었지만

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상요구로 나서고있고 그것을 맡아할만 한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웃든말든 상관하지 않고 협동화를 힘있게 밀고나아갔으며 다른 모든 사업은 물론 지식인문제를 비롯한 민족간부양성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갔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인것만큼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기가 할 일은 제힘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자기 나라에 필요하거나 자기의 실정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인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왔기때문에 미제에 의하여 분렬되여있고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으며 주변정세가 복잡하여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자주의 신념이 맥박치는 그이의 교시는 일찌기 자주로 혁명의 닻을 올리시고 자주로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에게서만 들을수 있는 귀중한 교시였다.

20 세기가 다 저물어가던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류의 해방위업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다.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던것이다.

세계사회주의운동에서 빚어진 비극적인 사태로 하여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해방위업에 초래될 후과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시고 좌절된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여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세계의 진보적인류에게 크나큰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재건의 전환적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 돐을 맞으며 세계의 각 대륙, 각 지역들에서 수많은 외국의 벗들과 인사들이 그이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구름처럼 모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축원의 인사를 올리고싶은 절절한 소망을 안은 진보적인류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였다. 그것은 복잡다단한 엄혹한 시기에 자기들의 운명, 인류의 운명을 맡길 인류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리는 세계의 마음과 마음들의 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의 수많은 공산당, 로동당 및 진보적인 정당대표단들이 조선에 오는 계기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과 혁명적당들이 들고나가야 할 공동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실것을 결심하시고 일군들에게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투쟁강령을 채택발표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외국의 대표단과 인사들, 벗들을 만나주시고 사회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립장을 제기하시였다. 그리고 변화되는 정세와 환경에 맞게 옳바른 공동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문제들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교환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목격하였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이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은 수많은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인 정당대표들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킬 결의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한 공동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쌍무적 및 다무적회담들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며 사회주의운동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한 방도를 충분히 토의하였다.

그리하여 주체 81(1992)년 4 월 20 일 평양에서는 세계 70 개 당의 48 명의 당수들을 비롯한 대표들이 서명한 력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발표되게 되였다.

세계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민들은 평양선언을 《사회주의재건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재생을 알리는 위대한 공산당선언》,《사회주의재건의 전투적기치》, 《사회주의를 수호하려는 굳센 의지를 천명한 문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대처할 강력한 무기》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평양선언이 채택된 그해 주체 81(1992)년말에 벌써 세계의 80 여개 정당이 선언에 서명하였으며 주체 92(2003)년 6 월까지 그 수는 260 여개로 늘어났다. 이것은 세계 수억만 인민대중이 평양선언을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있다는데 대한 뚜렷한 표시였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자주성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보내고있으며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재건운동을 활기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선언이 발표된 후 아일랜드공산당, 벨지끄로동당, 스웨리예맑스-레닌주의공산당(혁명가), 방글라데슈로동당, 네팔공산당(통일중앙), 민주꽁고로동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에서는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당강령과 당규약, 당내 기본문건들을 전반적으로 새로 작성하고 정치결의를 채택하였으며 평양선언을 당대회공식문건으로 첨부하는 등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헌장으로 내세웠다.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당들이 재건되고 사회주의재생을 위한 투쟁도 광범히 벌어졌다. 선언발표이후 불과 1～2 년사이에 사회주의가 좌절된 동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산당, 로동당들이 재건되여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로씨야련방공산당, 벨라루씨공산주의자당, 우크라이나공산당(맑스주의자), 로므니아새사회당,

뽈스까공산주의자동맹《프로레타리아트》를 비롯하여 새 출발을 선포한 당들은 자기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원인을 심각히 분석하고 교훈을 찾은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재생을 기본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여러 나라의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도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내의 모든 좌익력량과의 단합을 이룩하고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현실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의 로고를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도가 날을 따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신념으로 더욱 확고히 전환되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신 평양선언의 기치따라 온 세계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반제자주의 길로 이끈 쁠럭불가담운동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20 세기의 인류해방투쟁은 자기의 년대기우에 쁠럭불가담운동의 탄생이라는 또 하나의 격동적인 사변을 아로새기였다.

1961년 9월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계기로 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이 첫 진군을 개시하였던것이다. 오래동안 력사밖에 밀려나있던 발전도상나라들이 하나의 조직화된 정치적력량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한것은 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변이였다.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비롯한 광범한 력량을 망라하는 쁠럭불가담운동의 탄생은 압제자, 략탈자들을 전률케 하는 수억만 진보적인류의 조직적단결의 일대 시위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이 발생한 첫 시기부터 그를 반제자주적인 성격을 가진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혁명적인 운동으로

방향전환시키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이 개시된 첫 시기부터 그를 반제자주적운동으로 전환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자주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아가는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3(1974)년 5월 조선이 쁠럭불가담운동에 정식가입할데 대한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주체 64(1975)년 8 월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쁠럭불가담국가 외무상회의에서 전원찬동으로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국이 되였다. 조선의 쁠럭불가담운동가입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자주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에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4(1975)년 12 월 16 일 력사적론설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는 위력한 운동이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강력한 세력이라고 정식화하시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침략과 간섭을 계속하고있으며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략탈하고 착취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폭로하시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할수도,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도 없다는것을 명백히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며 이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로작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본질과 성격을 온 세상에 뚜렷이 명시하고 이 운동을 철두철미 반제자주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기의 리념에 맞게 국제무대들에서 반제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이 회의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5(1976)년 5 월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사 대외편집주필을 만나신 자리에서 제 5 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방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토의해야 할것이라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 년대에 이르러 랭전이 종식되고 쁠럭불가담운동이 새로운 도전에 부닥치게 되였을 때에도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이 운동의 발전방향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1(1992)년 9 월 1 일 인도네시아 《메디아 인도네시아》신문사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의 발전방향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주, 평화를 지향해나가는것은 되돌려세울수 없는 력사의 기본흐름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의 근본리념과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야 한다, 이 운동이 변화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론 활동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자기의 근본리념과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의 전략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보조를 맞추어나가는것이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히신 쁠럭불가담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이 운동이 자기의 근본리념과 원칙, 정치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100 여개의 성원국이 망라되여있었고 세계의 많은 정치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이 운동에 관여하고있었다. 하지만 쁠럭불가담운동을 이처럼 시종일관 반제자주의 숭고한 한길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뿐이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발기자의 한사람인 이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였던 찌또는 이미 주체 66(1977)년 8 월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끌어주셔야 하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린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는 주체 100(2011)년 5 월 25 일부터 27 일까지 쁠럭불가담운동창립 50 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쁠럭불가담국가 외무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운동성원국들이 단결하여 국제문제해결의 주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와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수호하고 공고히 하는데서 집단적행동을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고 운동창립 50 돐에 즈음한 발리기념선언과 최종문건이 채택되였다. 선언에는 운동이 앞으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다극적인 세계를 건설하며 성원국들에 대한 그 어떤 일방주의적행위도 단호히 배격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가 밝혀져있다.

이 선언은 쁠럭불가담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의 로고를 바치시며 이끌어오신 쁠럭불가담운동의 반제자주적리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데 대한 힘있는 시위였다.

3)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위대한 수호자

위대한 수령님은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려는 진보적인류의 평화옹호위업을 힘있게 이끌어오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제일수호자이시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 돐경축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억압의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가 창조되는 자주의 시대, 주체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한것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기적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이였다.

반제평화력량의 단결은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세계 반제평화애호력량의 단결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큰 로고와 심혈은 인류해방위업의 기수인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데 바쳐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제 3 세계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문제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과 국가의 일관한 대외정책적문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신 사회주의력량의 단결은 단순히 경제기술적진보나 문화교류를 위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철두철미 반제자주를 위한 단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 인류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의 실제적인 담보를 마련해주기 위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을 각개분산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분렬, 리간, 쟁탈책동이 날을 따라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 돐을 기념하는 중앙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힘있게 선언하신것은 바로 이러한 실태에 대한 과학적판단에 기초한것이였다.

20 세기 중엽에 이르러 국제무대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새로운 양상의 불길이 솟구쳐올랐다. 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사이에 분쟁과 충돌, 전쟁이 빈번히 일어났던것이다. 싸울수록 빈곤해지고 빈곤해질수록 더 싸우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실태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었다.

유고슬라비아신문 《오슬로보쥬니에》 책임주필이 위대한 수령님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올린적이 있었다. 현재의 세계는 일부 지역들에서 무장충돌에 의해서만 해결되고있는 수많은 미해결문제들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쟁문제들을 제거하거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보시는가 하는것이였다.

그의 이 질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국제무대에서 발생하고있는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분쟁문제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라고 찍어 교시하시면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분쟁이 일어나고 지어는 무장충돌이나 분쟁까지도 야기되고있다고 명백히 대답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식민지지배책동으로 하여 산생되고있는 이러한 분쟁과 충돌은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나 분쟁문제가 아무리 심각한것이라고 해도 무력행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반제평화를 공동의 리념으로 첫자리에 놓고 호상리해와 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늘 교시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3(1974)년 9 월 아르헨띠나기자대표단이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조선에 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단결과 협조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현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라고 하시면서 강유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이 나라들의 전투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저들의 《원조》가 없으면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떠벌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수 없다고 명철하게 까밝히시였다. 그러시면서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면 얼마든지 제국주의자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으며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 년대초에 아랍나라들이 석유수출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방세계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위기를 겪게 한 사실, 얼마전에 있은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가 이때까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온 원료 및 개발에 관한 국제질서를 이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 3 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200n. mile 해양권을 위한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에 커다란 타격을 준 사실들을 실례를 들어 가르쳐주시면서 이것은 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 결과라고 하시였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서로 단결하여 투쟁하면 그 어떤 강대국의 압력도 물리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데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여 반제평화를 위한 위력한 력량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8(1979)년 7 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를 소집하시고 제 6 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풀어야 할 근본문제들에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교시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견지하고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모든 군사동맹의 해체, 비핵지대, 평화지대의 창설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72(1983)년 3 월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제 7 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주체 75(1986)년 9 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진행된 제 8 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회의들도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이한 평화애호력량들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제평화의 공통된 리념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결코 어느 한 정치적력량의 독자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세계의 모든 대륙을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자면 지구상의 모든 진보적정치세력, 정치적력량들이 다같이 떨쳐나서 반제, 반전,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서로 자기의 리념과 원칙에 맞게 단결을 실현할뿐아니라 이 력량들이 반제평화수호의 한 전호에 선 전우로, 형제로 대하며 서로 굳게 단결할데 대하여 늘 강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에 첫째가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치시면서 세계의 모든 반제평화옹호력량을 반제친선, 평화수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4) 참다운 국제주의자의 위대한 귀감

정의의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성원

혁명하는 나라 사람들이 서로 사심없이 지지성원하는것은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마땅한 계급적의리로 된다.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적극 지지성원하지 않고 제 리속만 차리는것은 틀림없는 민족리기주의이며 국제주의와 계급적의리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고 싸워나갈뿐아니라 정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는데 참다운 혁명가, 위인의 진가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반제자주, 평화와 진보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전기간에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일관한 자세와 립장이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켜싸우는 세계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지지성원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지지성원이였다.

꾸바혁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없이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심을 지니시고 견실하게 적극 지지성원하여주신 정의의 투쟁의 하나였다.

미제에 의하여 조성되였던 까리브해위기는 꾸바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지지성원이 얼마나 견실한것이였는가를 보여준 력사적계기였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케네디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놓고 꾸바에 대한 침략을 모의하였으며 이어 꾸바에 대한 전면적《무력봉쇄》를 선포하였다.

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인 나라들이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려고 단독으로 미제와의 결사전에 나선 꾸바를 적극 지지성원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위협공갈이 두려워 그 누구도 발벗고나서서 꾸바를 지지하고 도와줄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심지어 어제날까지 형제요 동지요 하던 나라 사람들도 언제 그랬던가싶게 몸을 사리는 형편이였다.

더우기 이 준엄한 시기에 미제의 위협공갈에 겁을 먹은 이전 쏘련의 흐루쑈브는 미국의 요구대로 꾸바에 있는 미싸일과 비행기들을 황급히 철수시켰으며 미제가 미싸일철수결과를 확인하겠다고 오만하게 나오자 세계면전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 꾸바의 령토, 령해, 령공에서의 감시를 《허용》하는 비굴할 정도이상의 추태까지 연출하였다.

《사회주의성새》라고 자처하던 나라가 이렇게 《대국》의 체면도, 계급적원칙과 의리도 다 줴버리고 비굴하게 나오자 미제는 더욱 기고만장하여 날뛰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꾸바인민의 반미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시고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련대성을 선참으로 보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은 《꾸바혁명과 꾸바인민을 반대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래동안 감행하여온 침략적행동은 가장 로골적이고 파렴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세계평화는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꾸바인민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봉쇄조치를 선포한 미제의 침략행위는 《공해상에서의 야만적해적행위이며 세계전쟁을 직접 도발하려는 범죄행위이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횡포한 도전행위》라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데 이어 미제를 반대하여 일떠선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대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들의 집회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광범히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오만무례한 책동으로 하여 까리브해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미제의 꾸바에 대한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꾸바인민과 한전호에서 함께 싸워나갈데 대한 결단성있는 조치를 취해주심으로써 꾸바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대사관일군들과 류학생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총을 잡고 결사전에 참가하여 꾸바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라는 전보지시를 보내주시였다는것을 통보받은 꾸바사람들은 너무도 놀라운 나머지 감격에 목메여 《가장 어려울 때 생사운명을 함께 하자고 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켜싸우는 세계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지지성원은 견실하고 절대적일뿐아니라 자그마한 사심이나 대가도 모르는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동지적지지성원이였다.

일반적으로 국적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민족도 리해보다 타산을, 신뢰보다 대가를, 진심보다 가식을, 지원을 주는것보다 방조를 받는것을 더 중시하고

앞세우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의 세계는 그 어떤 자그마한 타산이나 대가도 모르는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에 기초한 가장 진실하고 깨끗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우는 웰남인민에게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성원은 진보적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그이의 국제주의적의리가 얼마나 고결하고 뜨거우며 진실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바크보만사건이 터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즉시로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주체 53(1964)년 8 월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흉계를 꾸며왔으며 실천에로 옮기고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까밝히면서 이것은 웰남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엄중한 도발행위이며 전체 사회주의진영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이며 동남아시아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락인하였다. 그리고 공화국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며 이미 발표된 웰남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형제적웰남인민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고 지적하였다.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강도적인 도발행위를 폭로규탄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우는 웰남인민에 대한 국제적지지성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3(1964)년 11 월 친히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첨예한 정치군사정세속에 있는 웰남을 방문하시였다.

싸우는 웰남땅을 몸소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국가주석 호지명과 회담을 하시면서 싸우는 웰남인민을 크게 고무해주시였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바크보만사건 이후 온 웰남땅에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던 시기였다. 전쟁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전쟁이 한창인 나라에까지 찾으시여 싸우는 그들을 고무하고 지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풍모는 정녕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에 기초한 가장 진실한 국제주의정신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반둥회의 10 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을 때에도 그 나라에 온 웰남의 지도간부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만나주시고 국제적범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성원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론해주시였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돕겠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립장을 거듭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웰남에서의 미제의 《계단식전쟁확대》책동이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던 때에도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성원의 손길은 반제투쟁의 길에서 싸워온 캄보쟈, 라오스, 알제리, 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 모잠비끄, 니까라과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의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데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지지와 성원은 언제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고 어디서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 위력한 추진력으로 되였건만 그이께서는 언제 한번도 그것을 별다르게 생각지 않으시였다.

주체 66(1977)년 7 월 16 일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대표단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들은 중동을 비롯한 전세계의 정의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하여주시는 그이께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담아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준전시상태나 다름없는 준엄한 정세속에서 살면서도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해주는것은 누구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 지닌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지지성원을 보내주는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바로 이런 국제주의자이시였다. 가장 견실하고 고결하며 변함없는 지지성원으로 정의의 위업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기치가 되여주시고 해방성전에 거대한 고무적힘을 주시고도 그것을 응당 해야 할 일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정의로운 투쟁의 제일옹호자, 최고고무자이시며 국제주의적의리와 동지적우애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 참다운 국제주의자이시였다.

싸우는 혁명전선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지원

싸우는 혁명전선을 피로써 도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국제주의적지원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벌리는 정의의 성전에 직접 총을 들고 참가하여 그들과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주신 가장 적극적이고 열렬한 지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 한번 정의를 위하여 싸움을 벌려야 할 대상이 강적인가 아닌가, 전승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려해보신적이 없었다. 그이께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벌리는 싸움에 참전할것을 결심하시는데는 오직 한가지 조건만이 있었다. 바로 그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떨쳐나선 인민들의 정의의 싸움인가 아닌가 하는것이였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이 벌리는 정의의 전쟁이라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언제 누가 하는 전쟁이든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견지하여오신 일관한 원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전기간 중국인민과의 반제공동전선에서 그들과 어깨를 같이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주시였으며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사회주의쏘련을 무장으로 견결히 옹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바로 이 공동의 전선에서 중국의 싸우는 형제들과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시고 공동투쟁을 벌리시면서 중국혁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시였다.

두차례의 북만원정도 바로 중국인항일무장부대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심에서 출발하여 단행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차례에 걸쳐 몸소 북만원정대를 이끄시고 험준한 로야령을 넘나드시며 포연탄우속에서 조중혁명가들사이의 전투적우의를 더욱 두터이하시였다.

중국속담에 사람을 사귀려면 그의 마음을 보라는 말이 있다. 중국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항일혁명전쟁이 벌어지던 그 나날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적의리로 일관된 동지적우의와 국제적의리심을 뜨겁게 체험하고 느꼈다.

제 1 차 북만원정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보중을 비롯한 북만의 중국혁명가들을 만나 항일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으로부터 중국인무장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정대의 절반이상의 성원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시였다. 특히 그들과의 공동작전으로 주체 23(1934)년 11 월 녕안현 남호두부근 경박호반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벌리시였으며 이 과정에 그들에게 유격전법과 대중정치사업방법 등도 배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24(1935)년 6 월부터 다음해 2 월까지사이에 진행된 제 2 차 북만원정기간에도 녕안현 산동툰전투, 경박호반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군사작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이 지도하는 무장부대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모험적인 《열하원정》으로 하여 동북혁명이 커다란 난국에 직면하고 특히 항일련군 1 군이 전멸의 위기에 빠졌을 때인 주체 27(1938)년 10 월에 진행된 림강현 외차구에서의 포위탈출전투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심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중인민의 반일련합전선이 빛나게 실현되고 련합작전이 도처에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격멸되고 조중인민의 전투적우의와 국제주의적련대성은 더욱 공고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승리한 사회주의쏘련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빛나는 국제주의적모범을 창조하시여 일제의 대쏘침략계획을 파탄시키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방대한 무력을 쏘만국경일대에 집중배치하고 쏘련에 대한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주체 21(1932)년 가을부터 주체 22(1933)년 가을까지 훈춘과 동녕현성을 비롯한 적의 군사적요충지들에 대한 습격전투와 주체 23(1934)년 봄부터 주체 24(1935)년말에 이르는 기간 경도선에서 렬차매복습격전투 등을 련이어 조직하시여 일제의 쏘만국경침공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시였다.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진행하신 쏘만국경일대에서의 전투들은 작전상으로는 조선혁명자체에 크게 리익이 되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쏘련을 무장으로 돕기 위해 그이께서 의도적으로, 주동적으로 조직하신 전투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쏘침공의 기회만을 엿보던 일제가 1938 년 7 월 하순 쏘련의 연해주 남단 조, 쏘, 만국경 삼각지대인 하싼호일대(장고봉부근)에 대한 무력침공을 도발하였을 때에도 강력한 적배후타격으로 놈들의 작전적기도를 격파분쇄해버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1939 년 5 월 몽골의

할힌골(노몽한)에서 또다시 쏘련에 대한 무장도발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국경충돌사건이 아니라는것을 간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건은 일제가 오랜 기간 준비하여오던 대대적인 대쏘침공작전의 일환이며 그 서막임을 대번에 포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즉시 적배후교란작전으로써 일제의 대쏘침공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안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제의 할힌골지역에로의 병력이동과 군수물자수송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놈들의 군사보급로인 《경라선》(장춘과 라진간)과 《빈돈선》(할빈과 돈화간)일대에서 전투활동을 적극화하였다. 특히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주체 28(1939)년 8 월 하순 안도현 대사하, 대장강전투와 9 월 하순 요차전투, 푸르허습격전투, 백초구습격전투 등 여러 전투들을 벌려 일제침략군의 대부대들을 소멸하고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들을 로획하였다. 이 전투들에서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김진과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허성숙 등 수많은 국제주의전사들이 배출되였다.

쏘련인민이 어려웠던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휘하신 참다운 국제주의적모범은 쏘련당과 국가지도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38(1949)년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쏘련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을 때 쓰딸린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신뢰와 친선의 정이 흘러넘치는 축배사에서 20 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항일유격대를 조직령도하신 **김일성**동지는 동방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쏘련을 피로써 옹호하여주신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이시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쓰딸린의 진정어린 축배사는 그대로 피로써 참다운 국제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존경심과 칭송의 표시였다.

1945 년 8 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중국에서도 항일전쟁이 끝나게 되였다. 사람마다 새 생활에 대한 환희에 넘쳐있었지만 중국인민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장개석도당에 의해 내전에 또다시 말려들게 되였던것이다.

사실 해방후 조선의 형편은 말할수 없이 어려웠다. 조선인민앞에는 일제가 모든것을 다 파괴하고 달아나 그야말로 빈터우에 새 조선을 일떠세워야 할 아름찬 과제가 놓여있었다. 조선의 이러한 형편에서 다른 나라 혁명을 도와준다는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변함없이 도와주는것을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로, 혁명을 먼저 수행한 나라로서 응당히 리행하여야 할 의무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위기에 처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동북지방에 수많은 정치군사간부들과 부대들을 파견하시여 동북지방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뿐아니라 동북해방작전과 관련한 전략전술적방안들도 제시하여주시였다.

동북혁명의 운명을 두고 못내 심려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혁명가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주체 34(1945)년 11 월말 압록강을 건너 단동으로 가시였다.

단동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구사령부의 작전협의회에서 여러 지휘성원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적군의 배치정형과 기동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조성된 일시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군구사령부의 지휘성원들에게 당면하여 적들과의 무모한 정면충돌을 피하며 도시들을 내주고 적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며 그대신 농촌에 근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꾸려진 해방지구를 고수하면서 대부대기동전과 유격전을 광범히 전개하여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의 력량을 극도로 약화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전전술적방안을 밝혀주시였다.

력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여있으며 여기에는 다른 나라 혁명을 지원한 이야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한 나라의 수령이 총포성이 울부짖는 다른 나라의 전장에까지 몸소 나가 밤이 새도록 구체적인 작전적방향을 밝혀주고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오직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단행하실수 있는 국제주의적장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동북해방작전에 참가한 약 25 만명의 조선인부대전투원들은 동북민주련군의 주력으로서 장개석도당과 희생적으로 싸웠다. 특히 장춘, 길림, 사평, 금주, 심양해방전투들에서 조선인부대전투원들은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싸움으로써 중국동북지방을 해방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인부대전투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중국인민의 제 3 차 국내혁명전쟁의 전기간 동북의 목단강과 연변지방으로부터 만리장성을 넘고 장강을 도하하여 해남도에 이르는 수만리 로정에서 국제주의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였으며 중국혁명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기에 중국의 주은래총리는 일찌기 과거 중국인민의 항일전쟁기간과 여러차례에 걸친 국내혁명전쟁기간에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중국인민을 지원하였다고 뜨거운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실로 중국혁명을 돕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로, 의무로 간주하시고 중국인민이 파란많은 곡절을 겪고있던 시기에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을 사심없이 피로써 도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고있다.

참다운 국제주의적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도 피로써 도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우는 아랍인민들과 한전호에 서계시였다. 싸우는 아랍인민들에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적극적인 군사적지원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을 아랍인민에 대한 국제주의적지원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였으며 아랍인민들에게 있어서 반미, 반이스라엘전쟁에서 예전에 없던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한 거대한 힘이였다.

1973 년 10 월 6 일에 일어난 제 4 차 중동전쟁시기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및 외무성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에짚트와 수리아의 요청에 따라 비행대를 보내주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것은 반제자주를 위한 혈전에 나선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그이의 견결하고 드팀이 없는 반제적립장의 뚜렷한 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에짚트와 수리아에 달려간 영용한 조선의 비행사들은 첫 전투에서부터 적의 최신형비행기를 단번에 격추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높은 전투도덕적품성을 발휘하여 적들을 전률케 하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쳤다.

당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나라 비행사들을 우습게 보면서 하늘에서 제노라고 오만하게 날쳤다. 그러나 아랍의 하늘에 조선전쟁과 웰남전쟁을 통하여 세상에 그 위력이 널리 알려진 조선의 비행사들이 나타나자 형세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제 최신식비행기를 가진 이스라엘비행사들은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비행기를 가지고도 자기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군 하는 조선의 비행사들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와 성심성의로 되는 지원의

뜨거운 손길이 있어 세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매번 패하기만 하던 에짚트와 수리아는 제 4 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이기고 빼앗긴 땅을 되찾았다. 이것은 아랍세계에서 일어난 커다란 력사적사변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나라 인민들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싸우건 위대한 수령님의 사심없는 원조를 받았다. 모잠비끄, 짐바브웨,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등 민족해방과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을 비롯하여 지구상의 곳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전선에 위대한 수령님의 국제주의적의리심에 의하여 마련된 막대한 량의 무기와 탄약, 군복, 의약품 등 군사적원조가 끝없이 흘러들었다.

세상에는 물론 싸우는 나라에 이러저러한 원조를 하여준 정치가나 혁명가, 군사가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자신의 심혈을 깡그리 바쳐 아낌없는 원조를 하여준 참다운 국제주의적의리심의 체현자는 일찌기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다.

진보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 준 사심없는 지원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을 진보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데서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것은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해나갈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하도록 도와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국방력건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지난날 조선과 같은 식민지처지에 있다가 해방을 이룩한 나라들의 재생과 번영에 관한 문제였을뿐아니라 전세계적범위에서의 인류의 해방위업, 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정의의 혁명위업이였다. 이런 자세와 립장을 확고하게 지니신분이여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방력건설문제를 두고 애타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시였고 그것을 곧 자신의 고충으로 받아들이군 하시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도와 자위의 국방력을 건설하고 인류해방의 력사적위업에 떨쳐나서게 하려는 그이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심으로 하여 독립의 기발이 나붓기는 세계의 곳곳마다에 은혜로운 군사적지원이 가닿았고 그에 떠받들려 마침내 많은 나라들이 자위적인 국방력을 일떠세우게 되였다.

그런 나라들가운데는 영제국주의자들과의 15 년간의 간고한 무장투쟁끝에 드디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1980 년 4 월 공화국창건을 선포한 짐바브웨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짐바브웨정권의 공고성을 담보할수 있는 군사력을 꾸려주시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도와주시였으며 지원을 하나 주시여도 언제나 그 나라 인민의 립장에 서시여 천가지, 만가지를 다 헤아려주시며 성의껏 도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심없는 숭고한 국제주의적지원의 손길이 있어 짐바브웨인민들은 자체의 군사적힘을 길러 새 사회건설을 방해하며 파괴전복음모를 꾸미던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을뿐아니라 《짐바브웨식사회주의건설》의 구호밑에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의 고충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자립적민족경제와 발전된 민족문화를 건설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뭘 조금 원조준다고 해서 냄새피우지 말아야 한다, 제일 싱거운것이 원조주면서 《내가 원조준다.》고 냄새피우는것이다, 이런것을 우리가 제일 싱겁게 보는데 왜 남에게 그런 일을 하겠는가, 거만하지 말고 아주 겸손해야 하며 무엇을 좀 지지하고 지원하는데 대하여 조금이라도 우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군 하시였다.

못먹고 못입어도 혁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국적을 따지지 않고 먹어라, 써라 하는 때가 더 좋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국제주의적의리의 세계이다. 이런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주체 56(1967)년 6 월 15 일 룡성기계공장(당시)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나라 로동계급들이 하루에 한시간씩이라도 일을 더 해서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과 분렬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호소하시면서 룡성의 로동계급이 이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간곡한 당부도 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 보내주신 지원과 방조는 자그마한 사심이 없는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심에 바탕을 둔것이였기에 발전도상나라 국가수반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존경과 흠모의 감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사실 조선의 경제적잠재력이나 인적 및 물적자원에 비해볼 때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준 국제주의적원조는 아름차게 큰것이였다. 그렇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언제나 응당한것으로, 꼭 해야만 하는것으로 여기시였기에 언제 한번 그런것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으시였고 일군들과 인민들도 그렇게 교양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 보내주시는 경제기술적지원과 그것이 빠른 시일안에 실질적으로 빛을 낼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치신 로고와 심혈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언제나 국제주의적지원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에 떠받들리여 조선은 주체73(1984)년 1월에 벌써 22개 나라에 30여개의 공장을 건설하여주고 20여개 나라에 관개건설을 하여주었으며 50 여개 발전도상나라들에 5 000 여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보내여 이 나라들의 새 사회건설을 각 분야에서 도와주었다.

이렇듯 끊임없이 이어지는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은혜로운 지원의 손길은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새 희망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새 사회를 건설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모든것을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여 자기들을 세기적락후와 빈궁에서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목소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퍼졌다.

주체 97(2008)년 1 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가 전세계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에 보내는 호소가 온 우주로 퍼져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 돐에 즈음하여 준비위원회들을 결성하고 토론회, 좌담회, 전시회, 도서출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체 101(2012)년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자는 호소였다.

주체 99(2010)년 10 월에는 국제준비위원회도 결성되였다.

주체 100(2011)년 4 월 13 일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 돐경축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가 열리였다.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서기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2012 년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나라별, 지역별 국제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정형이 통보되고 2012 년을 **김일성**주석의 존함과 더불어 력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해로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으며 책임일군협의회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의 마음들이 합쳐지고 또 합쳐져 세계적범위에서 하나의 대하를 이루고있는 이러한 현실은 그이께서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남긴 여운이 얼마나 크고 깊은것인가를 다시한번 새겨보게 한다.

6. 영원한 수령

1) 주체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은 천출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위업계승문제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원칙적문제로 내세우시고 일찍부터 그 실현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여 조선인민에게 대대손손 누릴 수령복을 마련해주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자신의 모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 조선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을 키우신것이다.

조선혁명이 바야흐로 조국해방이라는 민족사적대사변을 눈앞에 두고있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맞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아드님을 조국과 민족의 훌륭한 아들로 키우는것을 자신의 절대의 사명과 책임으로 새겨안으시였다.

조선인민은 만경대혁명가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그날부터 그이를 백두산 김대장의 뒤를 이을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였다.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천만년 길이 빛나라 조선의 백두태성》, 이 구호문헌들에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대를 곧바로 잇는 길이야말로 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라는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확신과 **김정일**동지께서 그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시켜주실것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절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주체위업의 장래운명을 걸고 위대한 장군님을 훌륭히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는 장군님의 천부적인 뛰여난 자질과 능력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시고 그것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년시절의 위대한 장군님에게서 처음 느끼신것은 보통의 어린이들과는 남다른 비상한 탐구심과 기억력, 배짱과 인정미 등 뛰여난 재능과 인격이였다. 닭이 물을 먹을 때 꼭 주둥이를 쳐드는 현상이나 이 세상 만가지 꽃색갈중에 검은색이 없는 리유를 기어이 밝혀내신 사실, 하나에다 하나를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리치를 알아내신 사실, 동무들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대장의 기질과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 장령의 앞길도 서슴없이 막아서는 배짱, 과일 한알도 동무들과 꼭 함께 나누시는 순결한 인정미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위대한 장군님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속에 담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계시였다. 그것은 독자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력, 끝장을 보는 인내력과 의지, 부인할수 없는 견인력, 정의의 대, 고결한 인간성이였다. 그것은 두뇌활동으로부터 기질과 인간됨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한 결합으로 조화를 이룬 옹근 하나의 천재로서의 인간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천부적인 자질과 능력이 조국과 민족의 아들로서의 훌륭한 인격으로 완성되도록 최대의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성장에서 특별한 관심을 돌리신것은 장군님을 주체사상의 완벽한 체현자, 옹호자로 준비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으로 하여금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 실천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그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해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피심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벌써 중학시절부터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환히 꿰들고계시였으며 이 과정에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가장 독창적이고도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이르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연구론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치시였으며 론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헌만도 무려 수백건이나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장하실 당시 조선혁명에서는 주체확립문제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는 문제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절감하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대하심에 있어서 철저히 독자적인 안목을 지니도록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이 나날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0 여년의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에서 공리처럼 인정되여온 맑스-레닌주의의 시대적 및 리론적제한성들을 명철하게 밝혀내시였다. 뿐아니라 정치경제학과 력사학, 법학, 문학 등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학계를 놀래우는 독창적인 발견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사회과학전반을 그 기초에서부터 새롭게 건설하시였으며 교육의 앞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백여년간을 내려오면서 《정설》로 공인되여오던 력사문제인 《신라정통설》을 재평가하시고 조선의 중세력사를 동방강대국인 고구려를 중심으로 바로잡아주신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이 시기 장군님의 독자적인 사고력과 실천력의 높이를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은 3 살때부터 군인이였으며 자신의 병사생활은 백두산에서 시작된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태여나서 처음으로 몸에 덮은것은 어머님의 군복이였고 처음으로 손에 쥔것도 어머님의 권총이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첫 학교는 강대한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전장이였다. 바로 여기서 총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억센 믿음과 사랑이

뿌리내렸고 빨찌산아들로서의 돌격적인 성격이 형성되였으며 직업적인 군인으로서의 기질이 체질로 온몸에 자리잡히게 되였다.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옷중에서도 군복을 좋아하시고 놀이중에서도 군사놀이를 즐겨하시며 책중에서도 영웅전을 애독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품격은 이렇게 형성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 주체위업의 계주봉으로 넘겨주신것은 다름아닌 총대였으며 인생의 기둥으로 세워주신것도 군인의 넋이였다.

일찌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적예지와 지략을 키워주시던 그 관심과 노력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 년대에 이르러서는 장군님의 혁명행로에 위대한 선군령도의 자욱을 깊이 아로새겨주시였으며 군현지지도의 길에서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령군술을 체득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사에 선군혁명령도의 시작으로 기록된 주체 49(1960)년 8 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도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군님과 함께 걸으신 군현지지도의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온 나라의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에로 끊임없이 이어가신 군현지지도의 나날은 단순히 위대한 장군님께 군사적지략과 령군술을 체득하도록 하신 과정이 아니라 명실공히 주체의 군사가로서의 완벽한 품격을 갖추도록 하신 력사적인 나날이였다.

이러한 나날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 대에 벌써 장군의 슬기와 기상을 타고나신 또 한분의 백두산청년장군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였다. 항일투사들과 인민군대 지휘관들은 1960 년대말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이라고 우러러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과 무한한 창조적힘을 알고 인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아들로 키우는데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장군님의 마음속에 인민이야말로 최대의 정의이고 힘이며 만사해결의 근본이라는것을 기둥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숭고한 노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부터 인민을 알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을 깊이 간직하게 하였으며 그 위대한 인민과 생사를 함께 하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로 성장할수 있게 한 더없이 고귀한 자양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이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동행하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으로 하여금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더욱 폭넓게 체험하며 그 과정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을 체득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심깊은 의도가 담겨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키우신 과정은 구체적인 사업방법을 하나하나 체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체로 판단하고 결론하도록 하며 다양한 주제의 폭넓은 담화를 통하여 정치적식견과 실천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데 이르기까지 정치가로의 성장 전과정을 포괄하였다.

주체 53(1964)년 6 월 19 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으로 하여금 당사업전반을 틀어쥐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부터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시면서 점차 인민군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령도를 실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선견지명과 결단은 장군님을 그 첫걸음부터 수령님의 혁명위업과

뗄수없이 련결된 주체위업의 령도자로, 수령님의 넋과 인격과 령도풍모를 그대로 닮은 또 한분의 탁월한 령도자로 준비시키신 결정적요인이였다.

하기에 30 여년세월이 흐른 먼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내가 그때 민청에 갔더라면 중앙당에서 당사업을 령도한 30 년의 력사를 가지지 못하였을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웅심깊은 의도를 지니시고 나를 키우시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한 혁명가, 나라와 민족의 아들로 훌륭히 키워오신 나날은 조선인민이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그이를 심장으로 높이 모셔온 뜻깊은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부터 공인된 지도자로 청년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전반을 령도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친애하는 지도자》로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열화같은 흠모를 받으시였다.

1970 년대초부터는 점차 그 존칭이 당과 국가의 공식문건에 오르게 되였다.

문학예술부문과 사회안전부문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여러 부문 일군들과 인민들은 장군님의 지적이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이의 초상화를 자기 사무실들과 기관들에 정중히 모시였으며 주체 60(1971)년 2 월 16 일에는 그이께 충성의 송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삼가 불러올렸다.

물론 이 노래를 지어부를 당시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렸고 그이의 엄격한 지시에 의하여 출판물이나 방송에 공개되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은 조선인민들속에 급격히 보급되여갔다. 캄캄한 밤하늘에 솟아오른 새별을 우러러 온 나라 인민들이 심장으로 《조선의 별》 노래를 지어부르던 력사의 그날의 감격스러운 재현이였다.

당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그이를 주체위업의 유일한 계승자로 공인하고 그이를 《향도의 별》로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온 나라의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과학, 교육, 문화,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실데 대한 청원서와 편지를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력사적의지는 이미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절대적인것으로 굳어졌다.

주체 63(1974)년 2 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8 차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조선로동당 수뇌부에 모시는 조직문제를 토의하고 그이를 주체혁명위업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빛나는 선견지명은 일찍부터 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필연성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착실히 준비하여오시였으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신것입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과 민족의 훌륭한 아들로 키워 전당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절대적인 지지찬동속에 주체위업의 유일한 계승자로 내세우신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가장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영원한 계승과 승리를 약속하는 일대 경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수립하는 사업을 가장 신중하고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주체 71(1982)년 6 월 12 일 삼지연에서 열린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김정일**동지가 인민군대를 당적으로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지도하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좌할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력사적인 삼지연회의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는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무를 공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실제상 그이께서 최고사령관과 같은 지위에서 사업하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언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80(1991)년 12 월 24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 기 제 19 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력사적인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는 중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으신 이날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74 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였다.

주체 82(1993)년 4 월 9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9 기 제 5 차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령도의 계승문제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전히 실현해나가시던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충실하고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받들어나가도록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이시며 당과 인민에게 귀중한 당부의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81(1992)년 2 월 16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몸소 지으신 친필송시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완벽한 칭송이다.

백두산정 정일봉
소백수하 벽계류
광명성탄 오십주
개찬문무 충효비
만민칭송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2 월 16 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제정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도 친히 비준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후 처음으로 열병식이 진행되게 될 때에는 열병행사가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몸소 지도해주시고 답례발언도 자신께서가 아니라 장군님께서 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웅심깊은 뜻을 사람들은 다는 모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일군들과 인민으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간직하고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혁명의 생사존망과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자신의 대에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였다.

그이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시대가 시작되였고 그이의 휘황한 빛발속에서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담보할 계승의 력사가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였다.

2) 영원히 흐르는 태양의 력사

주체83(1994)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다.

인류를 안고, 시대와 혁명을 안고 태양과 같이 불타오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에게 하늘의 태양이 꺼진것과도 같은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20 세기의 저물녘을 뒤흔든 청천벽력같은 비보는 평범한 사람도 탁월한 위인도 생의 끝점이 있다는 인류사의 법칙을 다시금 확증하는듯싶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시대와 력사앞에 그이께서 한생에 이룩하신 업적에 맞먹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을 펼쳐놓았다. 그것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인간의 현실적인 영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직후 조선의 한 문필가는 태양이 아주 사라진듯싶은 컴컴한 하늘에서 비줄기가 떨어져내린다, 이 세상 머리우 사람이 가보지 못할 먼 곳에서 우주의 심혼이 울고있다, 땅에서 일시에 터져오른 인민의 곡성에 하늘이 화답한것이다, 눈물로 어우러진 천지… 인민이 울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닥쳤음을 믿어야 한다는 글을 남기였다.

수천만의 남녀로소가 일시에 터뜨린 피타는 대통곡,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가 전세계에 준 거대한 첫 충격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인민과 영원히 헤여지실수 없는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첫 움을 틔우시던 20 세기 초엽에 벌써 겨레는 조선의 재생과 영광을 위하여 조선의 하늘에 솟아오른 조선의 태양을 보았다. 하기에 열혈의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태양의 존함을 삼가 드리였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영원한것의 상징인 태양으로만 그이를 부를수 있다고 확신했기때문이였다.

력사가 흐르고 세월이 바뀌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상징은 변함없이 태양이였다.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는 그이를 《주체의 태양》, 《민족의 태양》이라고 감격에 겨워 삼가 불렀고 《인민의 태양》, 《인류의 태양》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가장 숭엄하고 격조높은 시로 칭송하였다.

모든 민족들의 력사속에는 그 민족들이 내세우는 지도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력사에도 일찌기 소년시절에 벌써 민족의 별로, 혁명의 태양으로 불리우고 받들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수령은 없다.

조선인민은 10 대의 위대한 수령님께 영생불멸의 송가 《조선의 별》을 삼가 드리였다. 인민이 드리는 송가 역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 어리신 나이에 받으시였다. 지난 시기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받은 수령송가는 다 그들의 집권후에 받은것이였다.

조선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혁명의 길에 나서실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을 이끄시고 인민을 보살피실 조선의 별이시였고 조선의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도 같이 조선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인민의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자신의 사상도 주체, 인민대중의 이름으로 불러 조선인민에게 선물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영원한 의무와 권리를 밝혀주는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인인 인민의 사상이고 그 인민의 행복과 영광을 위한 투쟁의 기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통하여 압제자들에게 빼앗긴 자기의 존엄과 지위, 무궁무진한 창조의 능력과 인류력사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되찾았다. 주체사상의 리념과 의지에 받들리여 력사무대에 등장한 조선인민은 자기를 위한 유일한 사상, 유일한 보호자가 바로 주체사상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무궁무진한 령도력으로 노예의 처지로부터 영웅적인민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른 력사의 행운아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능력은 80 여성상 그이의 전 생애속에서 끊없이 발휘되였다. 그이께서는 남들이 기관차를 타고 20 세기에 들어설 때 달구지를 끌며 40 여년 망국사의 첫걸음을 내짚은 조선인민을 바로 그 세기에 인류력사의 중심에, 진두에 내세우시였다. 세월의 빛발이 모두 막히고 오고가는 바람만 가득찬 대국들의 틈사리에 갇히워 오금을 펴지 못하는 조선민족을 일떠세우시고 천리마의 날개를 달아주어 천지개벽의 력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운명을 영원히 지켜주고 만복을 가져다주시는 위대한 창조의 거장이시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행복만을 누려온 수령님의 한식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천대받고 짓눌렸던 인민들을 품에 안으시고 불행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며 오로지 인민을 위해 사신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맑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일 인간이 자기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저명한 학자, 위대한 현자, 훌륭한 시인으로는 될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결코 진정으로 완성된 인간으로는 될수 없다고 하였다. 맑스의 이 견해에 비추어보아도 위대한 수령님은 실로 이 세상 가장 많은 사람들, 인민대중에게 아직 그 누구도 주지 못한 커다란 행복, 많은 행복, 영원한 행복을 주신 이 세상의 유일한 성인이시였다.

지난 20 세기는 위대한 수령님을 인민의 수령, 인민의 어버이로 받들어올려 수령님과 인민을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인 능력에 받들리여 수난의 력사를 끝장낸 조선인민은 수령님의 령도를 떠나서는 력사의 폭풍을 헤칠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열로, 빛발로 하여 무적의 영웅으로 성장한 조선인민은 그 은혜로운 사랑을 잃으면 자신들이 해빛밖으로 떠옮겨진 거목처럼 비참하게 쓰러지고만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의 력사적지위를 세상의 정점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의 삶속에서 떠나가시면 자기들의 삶전체가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하실 때만이 자기들의 력사적지위와 자기들이 누리는 영광과 행복이 영원히 보존된다는것을 조선인민은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었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의 흐름은 력사 그자체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의 영결의 날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태양상이라고 높이 불렀다. 그렇게 위대한 수령님은 빛나는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오시였다.

인민의 념원과 의지에 의하여 력사는 어제도 오늘도 달리는 될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로 영원히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자신의 고귀한 한생을 다 바쳐 시대와 인류를 위해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영생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세계의 반향에는 주석님의 서거로 하여 지구가 가벼워졌다는 의미깊은 말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의 평가는 전지구적인 무게가 실린 시대와 인류의 평가이다. 그것은 사상은 물론 령도업적과 풍모 그 모든것에 있어서 인류력사발전에 거대한 공적을 이룩하고 위인사의 본보기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시대와 인류의 가장 공정한 평가이다.

주체 90(2001)년 9 월 조선을 방문한 강택민 중화인민공화국주석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방문록에 공적은 탁월하고 위업은 영원하리라는 글을 남기였다. 그가 남긴 이 글은 시대와 인류를 위해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영원히 계속된다는 인류의 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지난 20 세기 중엽부터 세계정치무대에서는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와야 한다는 격언이 공리처럼 인정되여왔다.

지난 시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의 길에 대한 계시를 준다는 성자와 그가 있던 성지를 찾아가는것을 행운으로 간주하였다. 맑스주의가 나온 후 전세계 로동계급은 맑스가 생존했던 도이췰란드를 맑스주의의 조국으로 불렀으며 레닌주의가 승리한 쏘베트로씨야를 세계혁명의 본거지로 일러왔다.

주체사상이 창시된 조선은 세계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영원히 밝혀주는 등대로, 혁명의 성지로 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것은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정치인, 인류의 최대의 소망으로 되였다.

위대한 사상을 주는것은 세계를 주는것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 력사가는 20 세기를 총화하면서 그리스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어 문명세계의 문을 열어주었듯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인류에게 주인된 세계, 리상향건설의 열쇠를 안겨주시였다고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인간의 절대불변의 본성인 자주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핵으로 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주체사상은 사실상 어느 누구의 뜻에 의한 사상이라기보다 시대와 인류, 력사 그자체의 뜻이며 그에 담긴 진리의 힘에 의해 스스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불멸의 사상이다. 영생불멸할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시대와 인류와 더불어 영생하신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을 위하여 끊임없이 울리고있다. 이 목소리가 근로인민들에게 자주적인 새 생활과 평등한 새 세계를 건설할 의지를 북돋아주지 않는 곳이란 사실상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20 세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였던 민족해방혁명과 계급해방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등 여러 단계의 혁명을 유일무이하게 당대에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여 인류위업의 대보물고를 풍부히 마련하신 령도의 거장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사에는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도 있고 빈터우에서 나라를 일떠세우는 두차례의 복구건설도 있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포괄하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도 있고 사회주의제도수립후 계속혁명의 기치높이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실천도 있으며 사람들을 완성된 사회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해방의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도 있다. 정치가로서 당대에 어느 한 문제만 해결하여도 대단한것으로 인정될수 있는 거창한 위업들을, 그것도 인류사가 해결을 기다리는 모든 초미의 문제들을 자신의 정치생애에서 가장 빛나게 해결하신것은 실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경이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다.

20 세기 세계정치의 중심에 서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의 위대성은 결코 그 포괄범위의 방대성이나 실제적인 결과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그 하나하나가 다 가장 과학적인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이 가장 전형적인 혁명투쟁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된것으로 하여 언제 어느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나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업적이라는데 보다 큰 세계사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업적과 경험은 그자체가 진보적인류의 삶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무려 4 시간에 걸쳐 혁명과 건설에 관한 가르치심을 받고나서 이것은 곧 혁명의 교과서이라고 격찬하면서 수령님께서 회고록을 꼭 쓰실것을 자기의 진정을 담아 간절히 말씀드렸다.

쏘련의 쓰딸린대원수로부터 중국의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를 비롯하여 웰남의 호지명주석,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 캄보쟈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 칠레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등 지난 세기의 모든 명인정치가들은 한사람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적인 정치원로로 높이 받들고 그이께 세계혁명의 운명을 부탁하였다.

인류가 낳을수 있는 모든 위인적능력이 그이께 집중되여 그이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셨기에 20세기가 있을수 있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의 무게로써만 인류의 무게, 지구의 무게를 잴수 있다는것이 지나온 한 세기가 남긴 력사적총화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원동력으로 하여 흐르는 시대와 력사의 흐름은 영원하다.

인민을 위하여, 시대와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은 필연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이 인류력사속에 열어놓은 길, 인류가 기어이 가야 할 그 필연의 길도 탁월한 후계자가 이룩하는 계승의 력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어질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 수령님의 고귀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으로 이 땅에 수령영생의 빛나는 력사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이 흐르던 대국상의 나날 몸소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시조로, 조선민족이 천추만대를 두고 높이 모실 주체의 태양으로 불멸하게 하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의지와 불같은 충성이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와 같은 충성에 의하여 건설된 금수산기념궁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서 특기할것은 수령님의 직함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법화함으로써 수령님을 영생하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받들어올리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86(1997)년 7 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공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태양상, 현지교시판, 당창건기념탑과 같은 기념비들이 새로 훌륭히 건립되고 명승지들의 자연바위에 수령영생구호와 태양칭송의 글발이 새겨졌으며 수령영생가요와 수령영생문학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보급되고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을 수록한 기록영화들이 편집상영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의도를 100% 계승하고 100% 완수하는것을 수령님의 영생의 총적목표로 내세우시고 불굴의 의지와 로고를 바쳐 실현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수령영생의 력사는 이어지고있다.

오늘 세계는 수령의 영생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의 력사를 똑똑히 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한몸에 받으신 인민의 어버이로서, 시대와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안은 세계적인 정치원로로서, 절세의 위인을 후계자로 두신 수령으로서 영생하시는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과 인류,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영원한 주체시대와 더불어 천세만세 불멸하신다.